

국립국어원 2009-01-6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57-01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이 창 덕



국립국어원 2009-01-6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57-01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공동 연구자: 임철성(전남대학교)

심영택(청주교육대학교)

민병곤(경인교육대학교)

박재현(상명대학교)

나은미(한성대학교)

연구 보조원: 박창균(경인교육대학교)

김지연(고려대학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연구 책임자: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연구 기관 한국화법학회

연구 책임자 이창덕

공동 연구원 임철성, 심영택, 민병곤, 박재현, 나은미

연구 보조원 박창균, 김지연

연구 협력 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임철성(전남대학교 교수)
 심영택(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민병곤(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재현(상명대학교 교수)
 나은미(한성대학교 교수)
연구 보조원: 박창균(경인교육대학교 연구원)
 김지연(고려대학교 강사)

담당 연구원: 조태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23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2월 18일
발행일 2009년 12월 18일
인 쇄 태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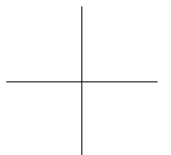
(책 등)

국립국어원
2009
- 01 -
64

표준
위화법
기개선
연구 및 보완을
위한

국립국어원

(겉표지 뒷면)



가. <국문 초록>

나.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구성원들의 소통 영역과 방식이 전통적인 소통 방식과 크게 달라졌다. 실제 언어 상황에서 소통하는 양상과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 인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말, 호칭·지칭어 등이 어색하거나 쓸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족과 지역 주민 등 친밀한 사이에서는 상호 이해하고 문제가 없었지만 변화 많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일상 화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또 인사말이나 호칭 등에서 기분을 상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로 미루어보아 국어 표준 화법을 정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과거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를 중심으로 만든 <표준 화법>이 있지만, 그 책에서 표준 화법을 정할 당시 전국적인 화법 사용 실태 조사가 없었고, 또한 1992년에 ‘표준 화법’을 발표한 후 상당한 시일이 흘러 어떤 것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가 수준의 표준 화법을 정하고, 학교와 방송에서 체계적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법 사용 실태와 화법 각 영역에 대한 인식을 널리 조사할 필요가 생겼다.

이 연구는 1992년 발간된 <표준 화법>에서 제시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이 실제 사용 양상이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으며, 이들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법 전반을 조사하기 이전에 현재의 표준 화법 사용과 국민들의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 30-40대, 50대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인사말과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실태, 그리고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 조사, 심층 면담,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표준 화법 점검을 위한 기초 설문을 만들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 설문지를 다듬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에 발표한 <표준 화법 해설>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리하였다. 세대 별로 별도 조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2009년 표준 화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화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실제 사용이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 중 40% 정도는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이 혼란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20대 젊은 층일수록 혼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실제 화법에서 상황맥락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만, 화자나 청자가 이들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혼란스러운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화법의 사용 실태와 화법에 대한 인식이 <표준 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 호칭과 지칭어, 경어법 사용에서 실태와 인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 친구의 부인을 ‘제수씨’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았고, ‘아내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처남(의) 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존대를 나타내는 ‘-시-’의 경우 ‘즐거운 쇼핑 되세요.’라는 표현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자연스럽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이나 되었다. 또, 많은 가정에서의 아침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새로운 매체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용어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좋은 아침’이나 ‘와이프’ 등 영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영어식 표현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어법에 어긋난 ‘즐거운 쇼핑되세요!’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다거나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점은 놀랍다. 적절한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 종업원을 ‘여기요!/저기요!’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 인사말과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이 배우기 어렵고 까다로운지 잘 나타내 준다. 전통 사회에서 살아온 토박이들도 표준 화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 다매체 사회에서 표준 화법을 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시사한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 규정을 정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국가차원의 표준 화법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 언어생활 개선을 위해 화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조사와 연구, 학교와 방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합리성을 인정하는 표준 화법 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 언어생활의 가장 비중이 큰 듣기와 말하기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국적 화법 실태와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 현대 표준 화법’ 규정을 만들고, 각 급 학교와 방송 등 공공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표준 화법,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화법 실태

【차 례】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 및 과정	6
II. 연구 과정 및 방법	10
1. 설문 조사	10
2. 통계 처리	18
3. 심층 면담	21
4. 전문가 협의회	37
III. 연구 결과	52
1. 인사말	52
2.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76
3.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114
4.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133
IV. 결론	144
1. 요약	144
2. 제언	164
<참고문헌>	175
<Abstract>	178
<부록>	180

【표 차례】

〈표 1〉 세대별, 연령별 표집 현황	19
〈표 2〉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2
〈표 3〉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4
〈표 4〉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6
〈표 5〉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8
〈표 6〉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0
〈표 7〉 ‘회갑(칠순, 고회)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2
〈표 8〉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3
〈표 9〉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5
〈표 10〉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7
〈표 11〉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8
〈표 12〉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70
〈표 13〉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72
〈표 14〉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74
〈표 15〉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76
〈표 16〉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78
〈표 17〉 ‘혼인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0
〈표 18〉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1
〈표 19〉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3
〈표 20〉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5
〈표 21〉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6
〈표 22〉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8
〈표 23〉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9
〈표 24〉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0
〈표 25〉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2
〈표 26〉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4
〈표 27〉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5
〈표 28〉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7
〈표 29〉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8
〈표 30〉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0

<표 31>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1
<표 32>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2
<표 33>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3
<표 34>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4
<표 35>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결과	106
<표 36>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7
<표 37> ‘형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9
<표 38>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0
<표 39>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1
<표 40> ‘장모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3
<표 41>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직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4
<표 42>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7
<표 43>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9
<표 44>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1
<표 45>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4
<표 46>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6
<표 47>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8
<표 48>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30
<표 49>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31
<표 50> ‘표준 화법의 사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133
<표 51> ‘표준 화법의 혼란’에 대한 응답 결과	135
<표 52>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136
<표 53>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138
<표 54>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	139
<표 55> ‘즐거운 쇼핑되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140
<표 56>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141

【그림 차례】

<그림 1> 설문 답지 초안	16
<그림 2> 세대별, 연령별 표집 현황	20
<그림 3>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3
<그림 4>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5
<그림 5>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7
<그림 6>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58
<그림 7>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0
<그림 8> ‘회갑(칠순, 고회)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2
<그림 9>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4
<그림 10>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5
<그림 11>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7
<그림 12>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69
<그림 13>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71
<그림 14>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72
<그림 15>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74
<그림 16>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76
<그림 17>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78
<그림 18> ‘혼인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0
<그림 19>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2
<그림 20>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4
<그림 21>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5
<그림 22>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7
<그림 23>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8
<그림 24>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89
<그림 25>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1
<그림 26>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2
<그림 27>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4
<그림 28>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6
<그림 29>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7
<그림 30>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99
<그림 31>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0
<그림 32>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1

<그림 33>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2
<그림 34>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3
<그림 35>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5
<그림 36>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6
<그림 37>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8
<그림 38> ‘형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09
<그림 39>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0
<그림 40>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2
<그림 41> ‘장모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3
<그림 42>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직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5
<그림 43>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17
<그림 44>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0
<그림 45>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2
<그림 46>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4
<그림 47>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6
<그림 48>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28
<그림 49>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30
<그림 50>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132
<그림 51> ‘표준 화법의 사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134
<그림 52> ‘표준 화법의 혼란’에 대한 응답 결과	135
<그림 53>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137
<그림 54>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138
<그림 55>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	139
<그림 56> ‘즐거운 쇼핑되세요.’ 대한 응답 결과	141
<그림 57>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14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현대 국어 표준 화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어 표준 화법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초 조사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 화법 마련을 위한 화법 전 영역의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1990년대 초 출간된 <표준 화법 해설>의 내용과 달라진 점을 파악하며, 새로운 조사와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표준 화법을 만들고, 학교와 방송 등 공공 기관을 통한 표준 화법의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상 국어사용에서 가장 빈번하고 비중이 높은 영역이 듣기와 말하기의 화법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실제 국어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관계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호칭과 지칭, 경어법, 인사말은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이들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관계와 업무 처리에서 본의 아니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배우고 싶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고, 제대로 사용하고 싶지만 무엇이 옳은지 실제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들의 실제 국어 생활과 관련하여 화법의 사용 실태와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당시의 생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제에 대해서 쟁점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표준 화법’을 제시하였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당시 제시한 표준 화법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학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이 있어 왔다. 실제 이들 화법 영역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적절하지 못한 표준 화법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생겼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하는 현실에 적합한 ‘표준 화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일상 화법과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제정하는 어문 관련 규정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두 번의 설문 조사나 단 기간의 연구로 온 국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표준 화법 규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현대 국어 화법 전반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사말, 호칭과 지칭, 경어법 등에 대한 사용 실태와 표준 화법에 대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화법 실태와 국민들의 화법 인식을 제대로 조사하여 ‘표준 화법’을 정해야 현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화법 체계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고, 학교와 방송에서 교육하고 홍보할 표준 화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른바 표준 화법 규정 설정이 필요한 것인지, 화법 사용이 (인사말과 경어법과 호칭 등의 제한 영역이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1990년대 초반에 전문가들이 쟁점으로 삼아 토론했던 정한 것들이 21세기 들어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그 혼란스러운 정도를 파악하고, 과거에 제시한 것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듣기와 말하기 상황에서 일어난다. 국민 언어생활에서 화법(듣기와 말하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화법의 규범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경어법, 인사말, 호칭·지칭어에 국한하는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각 언어 사용 영역에서 어떻게 듣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의 화법 실태와 화자들의 인식 조사는 일부 학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사회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화법 규정을 마련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세대에서도 통용되는 합리적 표준 화법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화법 표준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표준화의 대상이 되는 ‘화법의 개념’에 관한 연구, ‘왜 어떻게 표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화법 표준화 시행’에 관련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1991) 이후 연구 결과들 중에서 이번 표준 화법 실태 연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연구만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격몽요결’, ‘사소절’, ‘내훈’ 등 여러 교육서에서 말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중요하게 제시하여 왔으나, 국가 기관이 화법을 표준화한 것은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이 처음이다. 이 책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여러 분야의 원로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990년부터 1년이 넘도록 논의한 결과를 국어심의회를 통해 확정하여 두 권의 책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 이후 표준 화법 전반에 관한 연구로서 두드러지는 것은 국어원에서 특집으로 발간한 ‘새국어생활’ 13-1권이다. 강신항(2003), 김세중(2003), 전영우(2003), 김희진(2003), 이정복(2003)을 특집으로 묶었다. 주로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글들이다.

강신항(2003)에서는 음운, 어휘, 어법의 측면에서 잘못된 어법 사용을 지적하고 통일된 규범의 제정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 어문 규범과 화법을 아우르는 언어 정책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규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세중(2003)에서는 당시 표준화가 다양한 상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과 현실 적용이 어려운 결정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전영우(2003)에서는 세대 간, 지역 간, 계층과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희진(2003)에서는 표준 화법의 조건으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것, 말하는 이의 정성과 진실함이 담겨 있을 것, 쉽고 자연스러울 것, 실효성이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복(2003)에서는 통신 언어의 화법을 대상으로 하여, 대화방, 게시판, 전자편지, 운영자 언어들이 사용하여야 할 바른 화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국인을 위한 화법 표준화 요구와 그 개별 방안들을 제시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문금현, 2008). 2009년 한국화법학회에서도 국립국어원과 공동으로 ‘국어 표준 화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어(2009년 9월 26일 제20회 전국학술대회) 현행 화법 표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주제 발표는 전영우(2009), 구현정(2009), 임철성(2009), 전은주(2009), 노은희(2009), 서현석(2009)이었다.

경어법의 사용에 대해 두드러진 연구로 이정복(2001), 구현정(2004, 2009), 전해영(2005) 등이 있다. 구현정(2009)에서는 경어법의 내용에서 ‘압존법의 문체를 각 장면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표준, 어휘적 경어법의 표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세중(2003)에서는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이 경어에 관해 소략하게 다루었음을 지적하고, 경어법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규범화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일정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왕한석 외(2005)와 같이 호칭어와 지칭어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정작 그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북한에서는 황대화·양오진(2009)에서 서북 방언의 친족어를 현지 면담 조사를 통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현지 조사의 결과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어서, 호칭어와 지칭어의 표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하고 있다. 전은주(2009)에서도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

인사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 정리되었다. 김태곤(2000), 문금현(2008), 박영순(2003), 이용덕(2001), 조항범(2009), 황병순(1999) 등이 있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인사말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사용 실태 연구보다는 교육적인 내용 정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을 정리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화법 표준화는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을 언중의 현실적인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1)이 전통 예절에 치중하여 현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약했다는 반성을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내, 외국인을 위한 화법 표준화가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에서 표준 화법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이 많다. 표준 화법의 결과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화법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친절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국어 생활의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서는 기본

적인 표준 화법의 내용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표준 화법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표준 화법의 대상을 언어 예절로만 한정된 것은 ‘화법’의 개념을 매우 좁게 인식한 결과이다. 표준 화법이란 사회적으로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여야 할 화법이다. 지금까지 표준의 대상이 되는 화법을 언어 예절(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에 한정하였지만, 실제 일반 국민들은 소개하기, 발표하기, 회의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화법의 행위에 대한 일정한 표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실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표준 화법으로 다루어야 할 화법의 영역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3. 연구 내용 및 과정

가.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바람직한 표준 화법 연구는 모든 국민의 화법 사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 표준 화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성인 남녀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표준 화법 사용 실태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초·중등 학생들은 아직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고,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등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일관된 언어 용법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화법 전 영역이 아니라 기존 표준 화법에서 중심 내용으로 다루었던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국민들이 매일 매일의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인사말, 친척과 인척 사이 또는 회사 등 사회에서 상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과 지칭, 그리고 최근 혼란을 빚고 있는 ‘즐거운 쇼핑 되세요.’와 같은 주체 존대 ‘시’의 그릇된 사용 등에 대한 실태와 인식 조사로 국한하였다. 이들 세 영역에 대한 실태뿐 아니라 인식 조사도 필요하고, 표준 발음과 어법, 상황별 언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이 1990년대 초에 정한 표준 화법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로 표준 화법에서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여 연구 범위를 국한하였다. 이들 주제 영역에 대해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심층 면담 등의 방법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수도권 화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연구가 국어 표준 화법 전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행해질 대규모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표준 화법의 대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 규모 연구의 방법론적 착오를 줄이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준어를 규정할 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으로써 출신 지역 자체를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나서 설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와 예비 조사(pilot test)를 수행해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 화법의 필요성과 같은 기본 인식에 관련된 문항은 실태를 다루는 문항 후반부에 약간만 추가하였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문제되는 영역이 어디이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세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기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기획 ●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화법’에 대한 기존 연구와 논의 검토 · 해외 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 일본 ‘지금으로부터의 경어’ 등 				
[2단계] 기존 내용 검토 연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문항 틀 설계 ● 설문 문항 개발(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칭·지칭, 경어법, 인사말 ● 표집 방법 결정 ● 전문가 협의회(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 설문 영역 설정과 문항(안) 검토·협의 ● 설문 파일럿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표집 ● 설문 수정·보완 후 내용 확정 				
[3단계] 설문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범주 <table border="1" data-bbox="395 1317 1011 1391" style="margin-left: 40px;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2px;">세대별</td> <td style="padding: 2px;">20대 / 3-40대 / 50대 이상</td> </tr> <tr> <td style="padding: 2px;">지역별</td> <td style="padding: 2px;">서울·인천·경기</td> </tr> </table> ● 설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약 1,100명 ● 통계 처리 및 설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코딩 · 통계 처리 	세대별	20대 / 3-40대 / 50대 이상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세대별	20대 / 3-40대 / 50대 이상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기술 통계: 표본 분석, 빈도 분석 - 2차 추리 통계: 규범과 실태 차이 분석, 집단별 차이 분석 · 통계 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브리핑 및 내용 분석 기술 · 통계 처리 결과 브리핑 · 통계 결과 논의 및 심층 분석 · 영역별 통계 결과에 대한 내용 기술
[4단계] 심층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대상 심층 면담 · 설문 결과에서 심층 면담 필요 항목 도출 · 현장 탐방 후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의 사안별 원인에 대한 질문 - 사안별 일반인의 실제 인식 질문 - 개선 필요 항목에 대한 이유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내부 워크숍 · 연구 결과(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에 대한 다각도 분석 실시 · 연구 보완 방향 논의
[5단계] 보고서 검토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다. 연구 추진 일정

이 연구의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구 일정에서 따라 진행되었다.

단계	세부 연구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1단계]	연구 기획												
기초 연구	문헌 연구												

단계	세부 연구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2단계] 기존 내용 검토/연구 준비	설문 문항 틀 설계		■										
	설문 문항 개발(초안)			■	■								
	표집 방법 결정				■								
	전문가 협의회(1차)					■							
	설문 파일럿 테스트					■							
	설문 보완 후 내용 확정					■							
[3단계] 설문 조 사 및 분 석	표본 수집						■						
	설문 실시						■	■					
	통계 처리 및 설문 분석								■				
	자료 코딩								■	■			
	통계처리									■			
	통계 표 작성									■			
	통계 처리 결과 브리핑									■			
	통계 결과 논의 및 분석										■		
[4단계] 심층 면담	일반인 대상 심층 면담									■	■		
	연구진 내부 워크숍										■	■	
[5단계] 보고서 검 토, 제출	최종 검토											■	
	보고서작성·제출											■	■

II 연구 과정 및 방법

1. 설문 조사

이번 연구의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가. 문항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설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체적인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의 방향을 논의하고 각 영역의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표준 화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문항 설계에 관한 제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본과 영미권 등의 표준 화법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표준 화법 연구의 실태를 참고하였다.

설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① 표준 화법 문제 파악 및 개선, ② 새로운 화법 영역 체제 마련'으로 잡았던 기획 의도에서 ②를 삭제하고 ①로 초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화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이후 후속 연구에 대한 충실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설문지 초안 작성

국립국어원에서 1992년에 제시한 '표준 화법'을 중심으로, 2009년 현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관한 내용 중 모두 78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지의 초안을 제작하였다. 이때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반응하는 문항과 성별(남, 여)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여백을 설문 후반부에 마련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수집하기 위해, 인사말의 경우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만들어 조사하였다. 연구진이 생각한 인사말의 사례들과 현재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인사말의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호칭어의 경우는 처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나, 실제 사용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연구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통 문항과 남녀 개별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 인사말 : 공통(15문항- 서술형)

번호	문항 내용	답변
1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	
2	이웃의 윗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	
3	직장에서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	
4	밤에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저녁 인사말	
5	집을 나서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

1.

○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 공통(10문항- 선택형), 여자(13문항- 선택형), 남자(16 문항- 선택형)

<예 1>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공통)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1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어머니	어머님			
2	혼인한 자녀를 부를 때	아버	아범	○○아버	○○아범	자녀이름	
3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아가	새아가	○○어미	ैया	새택	
4	(친척에게) 시부모가 며느리를 가리킬 때	며느리	며늘애	○○어미	○○택	○○처	
5	어머니 자매의 배우자를 부를 때	이모부	아저씨				
...					

<예 2>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여자)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1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아버지	아빠			
2	(친정부모에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	시아버님	시아버님	○○할아버지			
3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서방	○○아버	○○아범	여보게		
4	(자기 아들에게) 장모가 사위를 가리킬 때	○서방	매부	매형	자형		
5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씨	○○아빠	○○아버지	영감	
...					

<예 3>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남자)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1	사위가 장인 어른을 부를 때	장인 어른	아버님	아버지			
2	(아내에게) 사위가 장인 어른	장인	장인어	아버님	○○외할		

	을 가리킬 때		른		아버지		
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씨	○○엄 마	○○어머 니	임자	
4	(아내 친구에게) 남편이 아내 를 가리킬 때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애 어머니	애 엄마	
5	(남자의 경우) 형의 아내를 부 를 때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			

○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어·지칭어: 공통(34문항- 선택형)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동료를 부를 때	○○○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	○ 형 (○○) 언니	○(○○) 여사
2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상사를 부를 때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여사		
3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 씨	○ 형	○ 선생(님)	○○○ 선생(님)	○(○○) 여사	○ 군 ○ 양	
4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과장(님)	제수씨
5	친구의 아내를 가리킬 때	부인	합부인	자네 부인	자네 합부인	○○ 어머니		
...				

○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의견: 서술형

● 표준 화법의 보안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다. 예비 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개발한 설문지 초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0대-60대 사이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35명, 남 20명/여 15명)으로 하여, 10월 22일 - 26일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설문 중에 대상자들에게 응답에 관련한 별도의 면담을 통하여 개선안으로 활용하였다.¹⁾ 다음은 예비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여자와 남자 항목이 분리되어 있으나, 구두로 말을 해 주기 전에는 두 항목에 모두 체크하는 경향이 있음(응답자 정보를 적는 란을 앞에 배치하고, 기타 다른 사항도 고려).
- 실태 조사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음(발문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 인사말 중에서 객관식 항목에 '없음'이나 '고개만 숙임' 등을 넣을지 논의 필요
- 직장에서의 호칭, 지칭 부분에는 '기타란'이 없음.
- 본 조사 대상에서 10대를 제외하기로 했으나, 대학 1학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만 나이로 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음.)
- 인사말을 직접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부담)을 많이 호소
- 문항 중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음.
 - <예1> 인사말 14번 항목: '정년 식당에서 본인에게 하는 인사말'이라는 부분의 '본인'을 설문 응답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예2> 인사말 12번 항목: '자신의 성을 소개하는 말'에서 '성(姓)'을 '성(性)'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대체로 어렵다는 반응
- 설문 양식(체크 표시 박스) 수정 필요

라. 전문가 협의회

설문지 초안과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협의회(10월 30일)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심의진의 검토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석주(한성대학교)

1) 설문 예비 조사 결과 가운데 인사말 서술형 문항 결과(<부록1>)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조사 문항은 객관식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
- 결혼 여부, 자식의 유무, 친밀도에 따라
- 박경현(경찰대학교)
 - 실제 쓰는 사례를 조사, 기존 연구물을 염두에 두지 말 것
 - 올케, 언니, 오라비 등이 없음
- 장경희(한양대학교)
 - 문항을 좀 더 흥미 있게 답할 수 있게
 - 집에서 부를 때, 밖에서 부를 때 동시에 조사
 - 연령별로 구분 필요
 - ‘-할 때’를 일일이 표기하지 말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면?
 - 결론을 예측해서 설문지를 작성
 - 인사말: ‘-께’ 삽입
- 조태린(국립국어원)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가?
 - 표준 화법이 필요한가?
 - 호칭이 어려운가?
 - 연령별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부족
 - 서비스업 관련에서 나타나는 호칭, 높임법 등을 포함

마. 설문지 수정

예비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의 집중 검토 작업을 거쳐 본 조사를 위한 최종 57개 문항의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설문지가 초안 설문지에 비해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항 형태: 서술형 → 선택형(인사말)
- 문항 수: 87문항 → 57문항
- 설문 항목: <경어법> 삭제,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추가

<예>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1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그저 그렇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2	현행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혼란스럽다.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저 그렇다.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				
5	표준 화법을 가르치고 개선하는 일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학교	방송	신문	가정	지방자치단체
6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즐거운 쇼핑 되세요!"	매우 자주 듣는다.	자주 듣는다.	가끔 듣는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6-1	위 표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상당히 어색하다.	그저 그렇다.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				

이와 같은 과정을 걸쳐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²⁾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인사말 : 공통(13문항- 선택형)

○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 : 공통(7문항- 선택형), 여자(10문항- 선택형), 남자(9문항- 선택형)

○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어·지칭어 : 공통(9문항- 선택형)

○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공통(7문항- 선택형)

○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의견 : 서술형

바. 설문 답지(OMR 카드) 제작

설문 조사 자료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문 답지를 OMR 카드로 제작하여, 그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답지는 설문 범주별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은 설문 답지 제작을 위한 초안 디자인이다.³⁾

2) <부록 2>에 본 조사에서 사용한 최종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다.

3) <부록 3>에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답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설문 답지 초안

설문 예비 조사 이후, 본 조사용 설문 답지(OMR 카드)를 수정, 보완하여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주체 명시: ‘한국화법학회·국립국어원’ 문구 추가
 - 답지 제목 추가: 인사말(공통), 호칭·지칭어-가족(공통), 호칭·지칭어-가족(여자), 호칭·지칭어-가족(남자), 호칭·지칭어-직장·사회(공통), 표준 화법(공통)
- 문항 5개 단위로 실선 넣기: 응답기재시 혼동 방지
- 기타 의견 기재란 확보

사. 설문 조사 실시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설문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대별(3개군) 표준 화법 실태 및 인식 조사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의 표집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설문 실시 기간: 2009년 11월 18일 - 12월 3일

- 표집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표집 대상 인원 및 설문지 회수율
 - 표집 대상 인원: 1,100명(20대 330명, 30대-40대 550명, 50대 이상 220명)
 - 설문지 회수율: 86%- 946부(20대 86%- 283부, 30대-40대 89%- 489부, 50대 이상 79%- 174부)

2. 통계 처리

가. 변인 설정

이 연구에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핵심 변인으로 설정한 것은 성(性)과 세대이다. 연구 초기의 설계 단계에서 ‘지역’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수도권 거주자를 표집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들의 출신 지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다양한 변이형을 반영하다 보면 ‘표준 화법’의 현재 실태를 점검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별 사례 수집 연구가 될 우려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일단 수도권으로 표집 지역을 한정하였다. 더불어 수도권 거주자의 출신 지역은 본인의 출신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부모의 출신 지역으로 할지, 수도권으로 이주한 시점의 기준을 언제로 할지, 여러 곳을 이동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에 대해 변인을 통제할 수 없어,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도권 거주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신 지역’ 변인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단위의 조사는 국립국어원에서 추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1992년의 ‘표준 화법’과 언중들의 언어사용 실태의 격차를 점검하고, 추후 연구나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핵심적인 변수인 ‘성별’과 ‘세대’만을 설정한 것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세대는 20대, 30-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집단별 화법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는 목적보다는 표준 화법의 실태를 조사하는 목적에 초점이 있으므로, 학습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10대를 제외하고 20대 이상을 표본으로 삼았다. 현재의 사회적 양상으로 보아 표준 화법 조사에서 30대와 40대의 구분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30-40대로 묶어서 처리하였다. 50대 이상은 장년 세대로 설정하였다.

나. 통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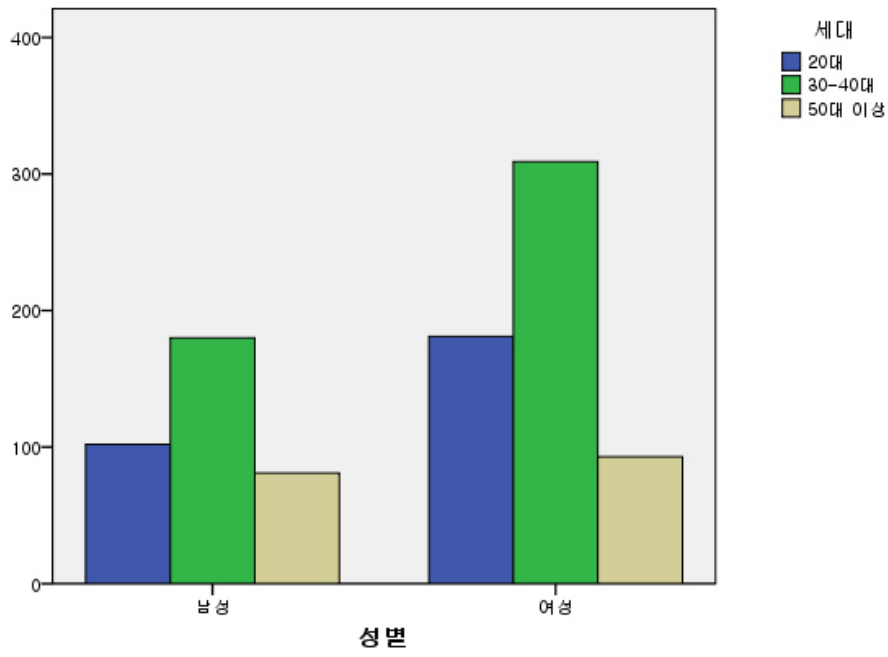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OMR 처리기로 읽어 자료를 가공하였다. 가공된 자료를 통계 분석 패키지인 SPSS 12.0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으로 설정한 성별과 세대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도 병행하였다. 교차 분석을 통해 항목별 빈도와 퍼센트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양상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막대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의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인이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의 수준을 .05로 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표본 현황

이 연구의 전체 표본은 946명이었다. 남성이 363명(38.4%)이었고, 여성이 583명(61.6%)이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283명(29.9%), 30-40대가 489명(51.7%), 50대 이상이 174명(18.4%)으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 표본의 전체 분포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여성 참여자가 많으나, 세대에 따른 집단 구분 내에서 성별 비중이 비슷하여 세대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성별	남성	102	180	81	363
		10.8%	19.0%	8.6%	38.4%
	여성	181	309	93	583
		19.1%	32.7%	9.8%	61.6%
합계		283	489	174	946
		29.9%	51.7%	18.4%	100.0%

<표 1> 세대별, 연령별 표집 현황



<그림 2> 세대별, 연령별 표집 현황

3. 심층 면담

가. 면담 사항

설문 결과 도출 이후 설문 조사가 가지고 있는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더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심층 면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세대별이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인사말

- ① 집안에서 아버지/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와 '나' 항)
- ②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축하축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 항)
- ③ 회갑(칠순/고희) 맞은 친구 부모님께 '만수무강하세요.'라는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 항)
- ④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들어가세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 항)
- ⑤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 '좋은 아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항)
- ⑥ 먼저 퇴근하면서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수고하십시오.'와 '고생하십시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 항)
- ⑦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말없이 인사만 한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 항)

(2)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 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자- '다', '라' 항/여자- '라', '마' 항)
- ②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기'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자- '다', '라' 항/여자- '라', '마' 항)
- ③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와이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자- '마' 항)
- ④ 아내 오빠 부인을 부를 때 '형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자- '아' 항)

(3)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①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미스터 김/미스 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 항)
- ②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나’ 항)
- ③ 식당에서 남자/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 ‘사’ 항)
- ④ 백화점에서 중년/젊은 손님을 부를 때의 ‘언니, 오빠,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자’ 항)

나. 면담 내용

심층 면담은 연령대별로 20대 3명, 30-40대 5명(30대 2명, 40대 3명), 50대 이상 2명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심층 면담은 피면담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지를 바탕으로 표준 화법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후에, 크게 3영역의 세부 문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20대의 의견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20대 대학생들은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표준 화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준 화법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지려면 교과서에 넣고 입시에 관련시키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자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 피면담자 전원이 미혼인 관계로 가정에서의 호칭과 지칭의 문제에선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친인척 관계가 확장되면서 겪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는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주변 어른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따라 부는 경우가 많다.
- 얼마 전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높임법, 호칭·지칭어가 어렵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따라서 표준 화법을 학교에서 교육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방송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인사말>

- 집안에서의 아침 인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경우 아침에 보면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그냥 말없이 아는 척 정도를 한다. 그 이유는 딱히 인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가까이 보는 사람인데, 격식을 갖춰 인사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는 어떻게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좀 어려운 분이니까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핵가족이 고도로 진행된 현재의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딱히 표준 화법에서 지정하여 이러한 아침 인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도 자기들은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 생일 축하 인사말 ‘추카추카(축하축하)’의 사용에 대해서는 20대는 흔히 쓰는 표현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답변이었기에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그 윗세대 어른들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 같으며, 그 말을 어른들에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실제 부모님에게 핸드폰 문자를 가르쳐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때는 나이 많은 부모님의 경우에도 핸드폰 축약어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실생활에서도 그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추카추카(축하축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어색한 기분도 들지만 웬지 어른들이 젊은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나쁘지 않다.
- 칠순이나 고회에서 하는 인사말 ‘만수무강하십시오.’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하세요.’ 정도가 좋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20대 응답자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든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커다란 부담이나 걱정은 없어 보였다. 잠시 무엇을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하지만, 대개 물어보거나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간단히 목례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혹시 다른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겠느냐는 물음에 자기 주변에 친한 대개의 20대들이라면 그런 일에 그리 크게 고민하지 않는 듯 하다고 답했다. 피면담자 가운데는 원래부터 이런 표준 화법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까지 해보는 열심을 가진 이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물어보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사용해

보고 상대의 반응을 본 다음에 다른 인사말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인사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 전화의 끝인사로 ‘들어주세요.’라는 인사말에 대해서는 피면담자들은 이 말이 표준 화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 의아하게 여겼다. 자신들은 아주 극존칭으로 사용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 표현을 써주면 왠지 높임을 받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대개의 경우, ‘안녕!’ 과 같이 간결한 끝인사를 사용하고 ‘들어주세요.’란 인사는 어른들에게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본 적은 없고, 전화 통화를 하고 각자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란 예측을 내놓았다.
- ‘좋은 아침’에 대해서는 좋은 아침은 왠지 촌스러운 느낌이라는 반응이었다. 가끔 쓰기도 하지만 많은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쓰는 격식화된 표현 같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영어의 ‘Good morning’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인사 표현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의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좋은 하루 되세요.’도 ‘Have a nice day’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지만,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고 답했다. 결국 그 인사말을 들었을 때 의미를 잘 파악하고 듣기 좋은가 나쁜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라는 물음에 그냥 형식적인 인사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 ‘수고하세요.’에 대해서는 종종 쓰지만, 그 표현이 바르지 못한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대체할 다른 말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어 그냥 상용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이런 인사말을 전문가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 표현을 웃어른들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분명 대체할 다른 말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다. 굳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영 어색하거나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와 비슷한 ‘고생하세요.’라는 말은 일을 윗사람에게 자주 듣는 말인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썩 좋지 않다.
-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말없이 인사만 한다.’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모르겠어서’와 ‘그런 경우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예절 바른 느낌이다.’란 의견이 겹쳐졌다. 재미있는 것은 20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때때로 정확한 말이 아닐 경우는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란 말로 혼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상가에 가서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 차라리 조용히 손을 잡고 토닥토닥하는 편이 더 낫다. 지금까지는 문상을 가본 경험이 대부분 지인의 부모님보다는 조부모님들이 많았고, 상주도 더 훨씬 어른이었던 경우가 많다보니, 대개는 목례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반응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초기에 호칭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어른들께 많이 들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만, 정확한 호칭이나 이상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싶다. 현재 이성 친구를 부르고 있는 ‘오빠’, ‘누나’ 등의 호칭 사용이 굳어질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해 본 적은 없다.
-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와이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내라고 하는 건 너무 늙어 보이고, 마누라는 낮춰 부르는 것 같다. 부모님 세대는 ‘안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 역시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선배들이 자신의 부인을 ‘와이프’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와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경우에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형제들을 타인에게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 아내 오빠 부인을 부를 때 ‘형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미혼인 피면담자다 보니 이 관계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차 관계인 ‘아내’가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여자 친구와 결혼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물어보니, 일단 ‘형수’라고 부르는 건 어색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각자 어떻게 불러야할지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래도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에 일단 상대의 나이에 따라 동생이나 누나냐를 따져야할 것 같고, 그 이후 이름을 부를 것인지, 존칭을 쓸 것인지를 정하겠다는 반응이다. 촌수의 높낮이보다는 상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따지는 듯 한 모습이다. 그리고 아내

의 오빠는 상당히 가까운 촌수기 때문에 결혼 전(연애결혼의 경우)에 충분히 만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으므로, 그 전에 일찍 호칭 관계를 정리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어른들끼리 장난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피면담자들 대부분은 현재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상황이 되면 좀 더 진지한 자리에서는 친구에게 물어볼 것 같고, 가벼운 자리에서는 그냥 ‘제수씨’라 부를 것 같다.
-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 저기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자신들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언니 또는 아저씨, 아줌마 등도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는 부르기 난감하다. 특히 여자 종업원보다는 남자 종업원은 더 힘들다고 하였다.
- 영어 표현인 ‘미스, 미스터’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다는 반응이다. 더욱 극단적인 경우는 마치 율락 업소의 종업원을 부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싫다고 하였다. 말(어휘)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백화점에서 중년이나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언니, 오빠,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피면담자들은 대개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았는데, 이들에 따르면 현재 대개의 기업단위의 판매직원 교육에서 손님들의 호칭을 ‘고객님’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호칭을 손님에게 쓰는 건 때때로 불쾌할 뿐 아니라 비격식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또는 ‘아가씨, 총각’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 것 역시 기분 좋지 않다는 의견이다.

(2) 30대의 의견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표준 화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용어 자체도 낯설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특히, 가족관계(친척)에서 호칭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장 및 사회에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

지만 필요성을 느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아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았다면 원만한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표준 화법을 정형화해서 교육하면 일상의 언어생활을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굳이 제도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안내나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고 안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사말>

- 요즘 30대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께 인사할 경우가 드물다. 아침 인사는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 인사말의 표현 문제보다 예의의 문제이다.
-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 '축하축하(추카추카)'에 대한 빈도가 높는데 50대 이상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세대와 공감하려는 의도나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료와 윗사람에게는 정형화된 생일 축하 인사를 한다. 교육을 한다면 정형화된 인사말로 대체하기보다는 상황(대상과 매체)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 '만수무강하세요.'라는 표현은 너무 격식을 갖춘 말이라서 거리감이 느껴진다. 가깝지 않은 분께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분에게는 사용하기 어렵다. 상대방이나 분위기를 너무 격상시켜서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용이 꺼려진다.
- 전화의 끝인사로 '들어가요.'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끝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인사말이 없기 때문이다. 윗사람과 먼저 끊으라는 의미와 공손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좋은 아침’은 영어식 인사 표현으로 듣기 거북한 인사말이다.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좋은) 느낌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고,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50대 이상이 20대보다 빈도가 높은 경우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 ‘수고하십시오.’라는 인사말에서 '수고'라는 어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고생하십시오.'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이는 대중매체의 교육이나 홍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고하라든지 고생하라든지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말이므로, 객관적인 자기 상황을 말하며 중립적이고 미안한 뜻을 담고 있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를 사용한다.

- 문상에서의 인사말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한 경우가 많다. 문상에서의 언어 예절을 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근한 관계에서는) 말없이 인사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다.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를 보면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상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사회의 영향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하 남편의 경우라도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씨'라고 부른다.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고 통용된다. 아내의 이름 찾아주기 운동(누구 엄마라고 하지 말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 연애 감정이 살아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처가에서는 이름을 불러 주지만(통용되지만), 본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윗사람들(부모님들)은 이름 부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아내를 '자기'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든다. 연애했 때 젊은 사람들이 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와이프(wife)'라는 지칭하는 것은 일단 외래어라서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와이프라고 너무 많이 사용하여 격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아내'나 '집사람'에 비해 남편과 대등한 위치에 놓인다는 느낌을 받는 용어이기도 하다.
- '형수'라는 말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조사 결과를 보니 다소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마땅한 호칭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호칭한다. (누구) 숙모라고 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호칭어를 찾기가 어렵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미스터 김/미스 김’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종업원이나 접대부를 부른 것 같다. 오히려 누구 씨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호칭 자체는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나 정서에서는 부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꺼려진다. 서양 문물의 도입과 함께 사용한 용어라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제수씨가 동생의 처를 부르는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이 사용한다. 그 까닭은 그 사람과 친근한 관계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한 사람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이 친근한 느낌이 든다.
- 종업원을 ‘이모, 고모’라는 말로 친근한 느낌을 담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땅한 호칭을 찾지 못하여 중립적인 '여기요/저기요'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모, 삼촌’이라는 가족 관계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친족 관계의 폭이 줄어들어 특정 대상에게 ‘이모, 고모’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빈도수가 낮은 것 같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언니'라는 호칭을 남성들도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언어 표현 방식을 따라주거나 종업원을 젊게 대해 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언니, 오빠’라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이지만 상술이 반영되는 것 같아 속보여 꺼려지기도 한다. ‘사장님’ 같은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호칭이다. ‘고객님’이나 ‘손님’이라는 중립적인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다. 요즘에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 대체로 ‘고객님’으로 보편화되어가는 것 같다.

(3) 40대의 의견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문학 전공자인 J 씨는 ‘대체로 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나, P 씨와 K 씨는 ‘어떻게 불러야할지 몰라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
- 한편 세 사람 모두 호칭·지칭어의 경우, ‘예전에는 친·인척들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학교’가 가장 적절하며, ‘방송’의 경우 ‘드라마’ 등에서 제대로 된 호칭·지칭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사말>

- 집안에서 아침 인사 및 인사말에 대하여 대부분 아침에 아침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면담자 중 P 씨는 아침에 배우자에게 ‘여보 잘 잤어요?’라는 인사말을 하면, 전날에 갈등이 있었다라도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J 씨는 아들에게 ‘아들 잘 잤어?’라는 인사말을 한다고 했고, K 씨는 ‘신랑 일어나.’하며 남편이 ‘오늘은 날씨가 어때?’라고 반응한다면서 그런 인사말을 하는 날을 비교적 하루의 시작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피면담자 세 사람 모두 아침 인사가 필요하며 특별한 ‘인사말’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 간의 아침 인사가 가족들의 원만한 관계 및 하루 일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생일 축하 인사말인 ‘추카추카(축하축하)’의 사용에 대하여 40대 후반인 P 씨는 쓰고 싶지 않지만, 안 쓰면 상대가 세대 차이를 느낄까봐 사용한다. 40대 초반인 K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쓰다 보니 익숙해져 이제는 괜찮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문학 전공자인 J 씨는 아들이 쓰니 쓰기는 하지만 조금하게 어색하게 느꼈다.
- ‘질순’이나 ‘고희’에서 ‘만수무강 하십시오.’라는 말을 20대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면담자 모두 ‘만수무강 하십시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P 씨는 어렸을 때 들긴 했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며, K 씨는 ‘건강하세요.’를, J 씨는 ‘건강하세요.’나 ‘건강하게 오래사세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20대가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수막에 그 말이 쓰여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하였다.
- 전화의 끝인사로 ‘들어주세요.’라는 인사말에 대하여 충청도가 고향인 P 씨와 전라도가 고향인 J 씨와 자연스럽다는 여겼지만, 서울 토박이인 K 씨는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말이 ‘상스러운 느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 사람 모두 그런 느낌은 없다고 하였다.
-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말에 대하여 P 씨는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말을 좋아한다, K 씨는 ‘여러분 안녕’을 자주 사용하지만 ‘좋은 아침’도 괜찮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국문학 전공자는 J 씨는 ‘좋은 아침’은 ‘Good morning’의 번역어라 느낌이 좋지 않아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라

는 인사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 ‘수고하세요.’에 대하여 국문학 전공자인 J 씨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잘 사용하지 않았으며, P 씨와 K 씨는 자주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사를 들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 아내 오빠의 부인을 ‘형수’라고 부르는 것은 20대의 상당수가 아내 오빠의 부인을 ‘형수’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친·인척 관계를 모르는 별 일이 다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친·인척 관계에 대한 호칭만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였다. 이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친·인척의 경우에는 분명한 호칭·지칭이 사용되기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친근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서 괜찮다. 그런데 친밀도나 가족 모임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호칭·지칭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40대 후반의 P 씨는 자녀가 모두 성장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남편 친구들이 ‘제수씨’ 또는 ‘P 여사’라고 부른다. 반면 40대 초반의 K 씨는 자기 친구들의 경우 ‘○○(아이 이름)엄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K 씨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동반이 자주 있는 경우). 한편, ‘○○여사’라는 호칭이 어느 정도의 나이에 적절한지에 대해 세 사람 모두 ‘50대 중·후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40대의 경우 누가 ‘○○여사’라고 부르면 어떨겠느냐는 질문에 ‘기분이 나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호칭·지칭이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사람을 부를 때 ‘여기요, 저기요’를 사용하는 것은 마땅히 부를 말이 없어 사용하는 것 같은데, K 씨는 ‘아줌마, 아저씨, 언니, 오빠, 이모’라고 부르며, J 씨와 P 씨는 ‘아줌마, 아저씨’는 듣는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사용하지 않는데, ‘언니, 오빠’는 잘 나오지 않아, 그냥 ‘여기요, 저기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사람을 부를 때 ‘여기요, 저기요’ 하는 것은 마땅히 부를 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미스, 미스터’라는 말에 대하여 세 사람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했다. K 씨는 ‘○팀장’과 같이 직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P 씨와 J 씨는 ‘○○○ 씨’, ‘○○ 씨’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50대 이상의 의견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표준 화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사용할 자신은 없다. 인사말, 호칭과 지칭어, 경어법 사용 체계가 근래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전반적 의견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이 사용법이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여 적절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이들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 사용법이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의 경우에도 개인 간에도 인식과 실제 사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최근에 인사말, 경어법과 호칭·지칭어 사용 양상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걱정스럽다. 전통적으로 기준 삼아온 나이와 지위에 따라 경어법과 호칭 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가 현장에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본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칭할 때, 과목명으로 ‘야, 국어 온다.’식으로 말하거나,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개’라고 지칭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도 공감하는 표준 화법이 정해지고, 방송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으면 한다.
- 상황에 따른 표준 화법을 정하는 일과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관계의 설정이나 유지, 발전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나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서 인사말, 호칭과 지칭, 경어법 사용에 대한 표준 규정을 정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사말>

- 집안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

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상적이고 교육이 잘 된 집안이라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 간에 인사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안녕히) 주무셨어요?’ 정도가 무난한 인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버지에게는 다소 격식을 갖춘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머니에게는 격식을 갖춘 인사말 이외에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춥지 않으셨어요?, 허리 아픈 거 좀 어떠세요?’ 등과 같은 다른 내용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많다.

-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축하축하(추카추카)’라고 인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휴대폰 메시지라면 매체 특성으로 보아 허용할 수도 있겠으나 면대면 축하 인사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생일 축하해, 축하한다, 축하하네.’와 같은 정상적인 문장으로 인사해야 한다. 아무 인사말도 안 하거나, 지나치게 장난기 있는 분위기로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회갑(칠순이나 고회)을 맞은 친구 부모님께 ‘만수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어색하고 현대 도시생활에서 분위기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본인이 회갑연에서 만약 그런 인사를 받는다면 부담스럽고, 달갑지 않다. 자신이 지나치게 늙은이 취급 받는 느낌과 마음에 없는 형식적 인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싫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더 건강하시고,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인사말이 적절하다고 본다.
- 전화를 걸고 끊는 상황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들어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었으나 좋은 인사말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도가 무난한 인사라고 본다. 꼭 ‘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럼, 먼저 들어주세요.’라고 ‘먼저’를 붙이는 것이 좋겠다. 전화 통화에서는 윗사람이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이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급한 상황 인식을 못하고 계속 통화를 길게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이어서...’처럼 말해 상대방이 전화를 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영어식 표현인데다가 인사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또 ‘안녕!’, ‘안녕하세요!’가 일반적으로 무난한 인사라고 본다. 또는 ‘일찍 나왔네(요).’처럼 인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칭찬이나, 기분 좋은 내용으로 인사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예를 들면, 머리 모양이 바뀌었으면, ‘어,

머리 새로 했네. 잘 어울려(요).’라고 인사한다면 서로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퇴근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와 같이 인사하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정도로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문상 갔을 때 상주에게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문상 인사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전통적인 인사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형식적인 전통 방식의 인사말을 고집하기보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정도의 인사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잘 아는 사이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 덕을 기리고, 부고에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슬픈지를 표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가정에서 호칭·지칭어>

- 젊은 세대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를 때, ‘야!’라고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름을 부른다면 ‘○○씨’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어린 아이가 출생한 후에는 ‘○○엄마/아빠’와 같이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부를 때나 지칭할 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한때 유행했으나 점차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 이는 잘못이다. 결혼 후에는 전통적으로 써온 ‘여보’, ‘당신’을 빨리 익혀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 ‘(우리)와이프(wife)’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20대 보다는 오히려 40-50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품위 있는 지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어식 표현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또 자기 아내를 ‘우리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보는데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제 아내, 저희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신의 아이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엄마’라고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에 아내 친척이나 인척들이 만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과거에는 부르지 않던 호칭의 필요가 생기고 있다. 아내 오빠 부인을 ‘형수(님)’라고 부

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아내의 오빠, 즉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인은 ‘형수(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나 이는 잘못이다. 그렇다고 ‘처남(의) 닻’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또 ‘아주머니’라고 하는 것도 젊은 층에서는 내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들 이름을 이용해서 ‘○○외숙모’라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마땅한 호칭이 없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젊은 사람을 부를 때, ‘미스터 김이나 미스 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용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호칭·지칭어라고 보기 어렵다. ‘(김)○○씨’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학교 사회라면 당연히 ‘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일반 직장에서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성만 사용해서 ‘김씨’라고 하는 것은 비하하는 의미가 강해져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제수씨’는 엄연히 아우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친구들 사이에 농담처럼 상대 아내를 ‘제수씨’라고 불러와서 세대에 상관없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표준 호칭·지칭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친밀하여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씨’라고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 이름을 이용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무난하다. 가끔 친한 사이에서 ‘너희 마누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무례한 표현이다.
- 식당에서 남자나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 저기요’가 일반적이거나 이 표현은 ‘여기 좀 보세요!’의 준말이어서 호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대체로 상대방이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다. ‘여기요, 저기요’보다 좀 더 나은 호칭이 있었으면 좋겠다.
- 백화점 등 상점에서 손님을 부를 때 나이에 따라, ‘언니/오빠, 어머님/아버님, 사장님/사모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밀을 강조하거나 과잉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손님, 고객님’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 호칭·지칭어가 복잡하고 사용법이 어려우므로 다소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호칭·지칭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휴대폰 뒷번호에 ‘님’을 붙여 ‘3826님’과 같이 부르거나 지칭하는 것을 들었는데 좋다고 본다. 일본어의 ‘상’처럼, 우리말도 ‘님’을 여러 호칭과 지칭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최근 ‘즐거운 쇼핑 되세요!’, ‘합계 4만 5천원이세요.’와 같이 주체존대를 표시하는 접미사 ‘-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분명 국어 문법에 틀린 표현이다.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가 훨씬 경제적이어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법적으로 잘못이다. ‘합계 4만 5천원이세요.’하기에는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시-’를 덧붙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체존대어미 ‘-시-’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합계 4만 5천원입니다.’로 말해야 한다.

4. 전문가 협의회

가. 최종 평가회

다음은 표준 화법 설문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재영 교수(한신대학교)와 신지영 교수(고려대학교)가 최종 평가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Q1: 이전의 국어원 연구 결과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물어보나 마나한 것은 일단 제외했고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올만한 것들을 중심을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Q1: 그러한 것들이 보고서에서 부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집필하실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선 1991년에 조사한 것과 지금 얼마나 다른 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Q1: 변인을 연령, 성별 위주로 하였던데요. 설문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한정했다 해도 그들의 고향이나 출생지는 왜 고려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표준 화법이 가정교육이든 무엇이든 교육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교육 수준이 변인으로 설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A: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역 출신, 학력을 고려하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차후 다른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어를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서 사용하는 교양 있는 언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신지역까지 따지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1: 설문지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어떤 부분은 표현 차이가 반영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A: 설문의 답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예비검사로 주관식 답안을 받아 이를 답지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세분화되거나 합쳐진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화법 인식에 대한 설문들을 보면서 왜 상대 존대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존대

등급이 사실 4단계에서 2단계로 좁혀 가는데 아마도 그러면서 주체적 표현을 끌어 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 복잡한 문제라 다른 연구과제로 논의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Q1: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단일화 시켜서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그때는 연구 기간이 짧아서 작업을 줄여서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게 어느 자리에 가서 소개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다음연구에 하셨으면 합니다.

Q1: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설문 조사 결과가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합니다.

A: 현실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규범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를 조사해봤는데,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디쯤으로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전문가 협의회 때 물어봤을 때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규범을 바꾸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딱 잘라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2: 실태를 중점으로 하고 대안적인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요?

Q1: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은 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차후 논의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합니다.

A: 예를 들어,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 일컫는 것은 어떠합니까?

Q1: ‘제수씨’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수씨’는 요즘 뿐 아니라 우리의 훨씬 위의 어른 분들도 써온 전통적인 것입니다.

Q3: 아까 변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설문 조사를 할 때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설문 조사 때 정보를 요구한 다음, 통계를 돌릴 때 연구 성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혼인 여부나 자녀 여부, 학력, 출신 고향 등의 정보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하나의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처리에 어려움이 증가하기는 하기에 변수를 줄여 분석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들은 것인지 여부도 있으면 좋겠고, 자기가 듣는 입장에서 더 좋은지, 아니면 말할 때에 직접 쓰는 것이 더 좋은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문 조사를 다시 할 수 없겠지만 후속 연구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지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가계도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즉, 예전에 배웠던 가족이나 가계도 기준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가 가족을 벗어나는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호칭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는가 대한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A: 여러 변수들을 다 고려해 보았는데 20대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무어라 부르냐는 질문에 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Q3: 그러한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객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결과랑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저희가 조사할 때 문항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다 2배, 3배 많았는데 하다보면 많아서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 보면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좀 걸리겠고요. 지금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변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적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와 들었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싫어해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제수씨'인 것 같습니다.

Q2: 예전에는 관례로 사용되었습니다.

A: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친·인척 관계 이외에 묘한 관계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또 아주머니와 아줌마와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님'이라는 말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Q1: 설문에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20대와 50대가 같은 양상과 30-40대가 같은 양상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따로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2: 전에 있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송년 인사 같은 경우는 언제 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설명을 더욱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다음 장에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인데 여자는 장모에 해당하는데 장모만 붙이고 또 빠진 글자도 있습니다. 다음에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과장님’이 들어간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앞에 질문에 ‘과장님’이 나와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A: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요. 사장은 아닌 것 같고 직원 중에 높은 사람을 불러주는 게 서비스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Q2: 식당의 규모에 따르세요?

Q3: 식당에서는 이러한 직급이 아닌 것 같은데요?

Q2: 설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내고요, 보고서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요. 91년 표준 화법에 나온 것 중에서 간추려서 조사를 하는데 변화가 일어났을 법한 것 위주로 했는데 지금 필요한데 91년에 없는 것들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러한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화법에 대한 틀이 다르다는 것을, 변화가 있다는 것을 담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로 설문 조사의 결과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문가 협의회에서 무엇을 논의하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아까 여자 분에게 했던 질문은 남, 여 같이 하느라 잘못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예전에 조사 안 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지위나 나이 중심으로 시나 상대 존대가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상대 존대가 나타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장이 아니라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황 중심별, 사용자 중심별로, 또 모두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 협의회는 실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Q: 심층 면담 대상하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A: 대학에서 국어교육, 화법 쪽에 연구하시고 가르쳤던 선생님들 대상으로 50대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Q: 그런데 심층 면담은 이 면접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가요?

A2: 직접 대상자는 아니고 연령을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Q: 설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따로 한다는 말인가요?

A: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하고, 설문 내용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별로 차이가 확연한 것들 위주로 합니다. 언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합니다.

Q3: 표준 화법 설문지 맨 마지막장을 보면 표준 화법의 인지도가 있느냐가 빠졌는데 맨 마지막장 1, 2, 3에 대한 응답 결과가 이상합니다. 1번에서는 표준 화법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2번에서 보면 ‘약간 어렵다.’가 많고 3번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결국 1, 2번을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는데 3번에서 보면 엄청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서 혹시 사람들이 표준 화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말 하는데 그렇게 규칙을 심하게 따져야 해요?’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에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Q3: 그런데 1, 2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결과가 나와야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결과가 인사말이나 지침에 한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A2: 그런데 1, 2번에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 20%내외거든요.

Q3: ‘보통이다.’라는 것이 필요성이 없는 거죠.

A2: ‘보통이다.’는 ‘필요성이 없다.’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Q3: ‘그저 그렇다.’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A2: 저희는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Q3: 근데 5점 척도로 했으니까 ‘그저 그렇다.’로 되어있으면 긍정으로 볼 수 있고 부정으로 볼 수 있다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1, 2번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2: 그냥 말 그대로 인식을 조사한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1번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A: 사실 설문의 조사가 언제나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관련된 조사를 할 때는 조사 한 번 해서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Q3: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안했을 때 1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 이것을 사실대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A2: 이것은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표준 화법이 있지만 계속 ‘어렵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A3: 설문을 했기 때문에 대략 맥락이 잡힌 상황입니다.

Q3: 1번이 맨 앞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지 순서를 정할 때도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맨 처음에 가야 합니다.

A3: 처음부터 어렵냐고 하면 뭐지 모르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풀어보도록 하기 위해 질문을 나중에 넣었습니다.

A2: 표준 화법을 아는 사람이 풀어보는 경우와 모르는 사람이 풀어보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 이 문항 안에서 보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봐서 답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A3: 이 문항의 의도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설문 조사의 의도는 우리 목소리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어 대신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3: 그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설문의 결과가 의도한 방향으로 나와야 좋겠죠.

A: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문법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문법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냐고 물으면 다들 ‘없다.’고 대답합니다. 지금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표준 화법에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자신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설문에서 역시 표준화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A3: 조금 전에 가족에서 벗어난 관계와 필요한 것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후속 연구에 대한 것도 포함시켰으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연구에서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국어원에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일 때와 직장 밖일 때와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고려해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범위를 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지요. 소규모로 나누는 것도 심층적으로 더 들어갈 것을 고려해보면 한 사람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 표집으로 하여 5,000명이 정도가 하나의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이러한 항목 하나하나를 심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이번 조사에서 이 정도 단계까지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얼마나 깊이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고서에 넣을 것입니다.

A: 또 한 가지는 영국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국가가 지원해 줘서 자료를 모으고 3년 동안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을 연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즉, 연구를 하기 전에 기초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 자체 때문에 심각한 관계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례로 다양하게 계속 모으면서 기초 연구를 시작해야 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심각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 연구를 안 하면 경어법 등을 이번 연구처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이 설문 문항의 답지 순서에 기준이 있나요?

A: 처음에는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1번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표준 화법을 기준으로 하는 과정에서 뒤섞어 배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 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섞었습니다.

A2: 예전에 제시된 사례들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뒷부분을 예측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집하니 응답이 앞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검사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Q4: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렬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A: 저희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섞어 놓으면, 결과가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실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조정했습니다.

Q3: 주관식 응답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까?

A4: 주관식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이것 중에 3~4개 정도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 드는 것이 있습니다.

Q3: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4: 예를 들면 아빠한테 하는 인사말로 '아빠, 안녕!'과 같은 것입니다.

최종 평가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재영(한신대학교)

- 설문 대상자의 고향, 교육수준도 조사 대상에 넣는 것이 좋겠음.

- 선택지에 제시된 인사말의 어미를 세분화해야 할 것.

○ 신지영(고려대학교)

- 변인을 더 많이 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겠음.
-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듣는 경우를 나누어 조사(사용과 선호도의 문제)
- 일반적인 호칭(아저씨, 아줌마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
- 표준 화법에 대한 인지도의 문제
- 답지 배열의 문제(설문의 의도성에 대한 논의)

○ 김세중(국립국어원)

- 예전에는 없었지만 현재 필요한 표준 화법에 대한 조사
- 대단위 조사를 위한 예비 항목 확보
- 3개년 계획에 따른 기초 조사로서의 역할

나. 외부 전문가 협의회

표준 화법 연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쳤다. 최현섭 소장(상생화용연구소), 김상준 교수(동아방송대학교), 이경우(호서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협의회에 참가하였다.

(1) 최현섭 소장의 의견

- 인사말 중 '저 일어났어요.'의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인사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의아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그런 말을 했을까 의아해서요. 혹시 아버지가 문밖에서 일어났느냐고 물을 때 대답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표정이나 미소 등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의 경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그저 무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정성이 거의 들어 있지 않아 연구의 대상이 될 듯합니다. 표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세배 때 하는 인사말도 매우 의례적인 수준인데, 언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에 관한 것일 듯합니다. 많이 쓰는 인사말을 표준으로 삼는 데서 연구가 그친다면 핵심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를 동일한 항목에 배열할 수 있을까요? 후자는 연세가 높은 분들에게만 해당될 듯합니다.

- '생일 인사'의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생일 차림과 그 인사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생일을 차려 주고 친구 아이들까지 초청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 대해 적절한 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 '문상 인사'의 경우,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는 인사가 6.2%가 나왔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인사말이므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 문항을 넣은 의도도,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식당 종업원 호칭'의 경우, 과장님 같은 직함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6%)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해석은 재고가 필요할 듯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일정한 직함이 없는데다가 나이 차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운영하는 사람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영자임이 알려졌을 경우 외에는 선불리 '사장님'하고 부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분명히 틀린 호칭(지칭)이므로 해석할 때 유의했으면 합니다. '제수'는 동생의 아내를 이르므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경우는 장난으로 재미삼아 하는 경우뿐이지요.

(2) 김상준 교수의 의견

- 한국화법학회가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과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대한 설문 조사는 다양한 설문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당시의 생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제에 대해 마련한 '표준 화법'의 확인에 머무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 이번에는 누락됐더라도 화법에 대한 조사를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사장실과 회장실 등 CEO들과 고위공무원 등의 비서실에서 면대면 대화에서의 호칭과 전화상의 호칭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부를 때나, 간호사가 환자를 부를 때의 호칭은 과거에는 나이의 고하에 관계없이 '○○

- 씨'하는 식으로 상당히 고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자'가 아닌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 님' 하는 식으로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사장실과 회장실, 고위공무원 등의 비서실에서도 면대면 대화에서의 호칭과 전화상의 호칭에서 상대방의 직함을 모를 때는 '○○○ 씨'보다 '○○○ 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님'도 나쁜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 씨'보다는 '○○○ 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화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피의자나 피고인, 소송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호칭, 경찰이 시민들을 부를 때의 화법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문 규범이나 화법 규범에서의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비문법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기타 의견 중 많이 사용한다면 현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중이 많이 사용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서도 가능하면 교육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할 때는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라는 언중을 상대로 할 때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홍보나 권고라는 말이나 이해시킨다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등 국민을 상대로 한 언어 규범에 '이렇게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처럼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 1991년에 마련한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면서 상사나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수고하십시오.'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기 때문에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988년에 고시한 표준어규정 중 표준발음법 제5항에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의 '의'는 [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준어와 표준발음,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일상 언어에서의 화법 등은 언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면밀히 파악해서 분야별로 분류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어떤 말

이 관용으로 쓰면서 굳어졌다면, 완전히 틀린 말이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라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전화를 끊을 때, ‘들어주세요.’라는 인사말에 대해서는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주로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한 검토 안에서는 ‘들어주세요.’가 대문 밖에 나와 헤어지면서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선인들의 인사 방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살려 사용할 만한 표현으로 여겨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 설문 조사에서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30-40대의 경우 ‘와이프(wife)’로 지칭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어가 표준 화법의 호칭어·지칭어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현실은 하루라도 빨리 교육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육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가 아니라 ‘홍보해서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표현을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비문법적 표현의 수용성’ 항목에서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수용성 정도는 각각의 표현에 대해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즐거운 쇼핑 되세요.”에 대해서는 41.3%는 ‘자주 듣는다.’, 30.1%가 ‘가끔 듣는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비문법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기타 의견 중 많이 사용한다면 현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중이 많이 사용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에서도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도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되세요.’라는 표현은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11월 30일 ‘라디오·인터넷 연설’ 말미에서도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고심해서 작성한 대통령의 연설 원고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되세요.’라는 표현은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말 화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앞서도 지적했거니와 이번 설문 조사가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당시의 생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제에 대해 마련한 ‘표준 화법’의 확인에 머무른 듯 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경우의 화법을 조사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연구 보고서 형태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기록물을 교육 기관에서는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정부 기관 등에서는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 기관에서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21세기 초 민족 언어의 현상’을 나타내는 소중한 기록물이라는 생각으로 편찬되어야 하며, 과거의 해설서들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교육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이경우 교수의 의견

- 한국화법학회에서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표준 화법 실태 설문 조사를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1990년대 초에 표준 화법이 마련되어서 벌써 20여 년이 가까워 오고 한국사회가 빠른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경험하면서 언어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한 방송과 인터넷이 젊은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해서 학교나 가정에서 언어예절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화법 실태 설문 조사를 기초로 하여 표준 화법 개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1990년 대 초에 제정이 되었지만 현재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어휘나 용법은 폐지를 하고 외래어의 남용 등은 고유어를 사용하도록 개정을 한 후에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방송인 특히 연예인에 대한 화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또한 드라마 작가나 구성 작가들에게 언어예절 교육(인사말, 지칭과 호칭, 경어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 표준 화법 실태 조사를 설문지 형식으로 하였는데 물론 3개월이라는 시간상의 제약도 있지만 설문 조사 형식은 장단점이 있다. 실제 화법은 대화하는 현장을 녹취해서 분석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고 설문 조사의 방법은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을 대답했는지 아니면 규범적인 것을 대답했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설문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설문

자의 표본을 어떻게(연령 별 지역 등) 몇 명을 선정해서 조사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둘째, 앞으로 표준 화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구어체 형식의 고유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라의 ‘세배할 때 사용하는 인사말’에서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좋다고 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한자 어휘를 그대로 권장할 것인지 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에서 전화 받는 상대방이 윗사람일 때 ‘들어주세요.’를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이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했다. 그런데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들어주세요.’가 빈도수 36%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 항목으로 ‘안녕히 계세요.’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녕히 계십시오.’와 ‘안녕히 계세요.’는 경어법상 등급이 다르다.
-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좋은 아침’이라는 표현은 외국어를 직역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통적인 인사말이 있으므로 쓰지 않도록 결정하였는데 설문 조사에서는 ‘좋은 아침’과 ‘좋은 아침입니다.’를 27%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할 것인지도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도 ‘안녕히 들어주세요.’(40.9%), ‘들어주세요.’(14.7%)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과 비슷하다. 이 항목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설문 항목이 빠졌다. ‘안녕히 가세요.’만 질문하였다.
-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보고서에 윗사람에게 ‘수고하다, 고생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인사말을 큰 부담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고하십시오.’가 7%, ‘고생하십시오.’가 2.9%로 사용하는 비중이 아직 적는데 위와 같은 추정은 성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에서 표준 화법에서 자기 성에는 ‘가’를 붙이고 남의 성씨에는 ‘씨’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였는데 보고서에는 ‘김 씨입니다’가 45.5%, ‘김해 김 씨입니다’가 21.7%, ‘김 씨 성을 씁니다.’가 3.5%로 71% 정도로 자기 성에도 ‘씨’를 붙이고 있으므로 이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와 ‘혼인한 딸을 부를 때’에서 20대, 30-40대, 50대 이상이라는 연령 구분은 혼인한 아들이나 딸의 연령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표시가 없어서 부모의 연령 구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도 며느리의 연령 구분이 되어야 한다. 또, ‘20대는 본인이 신혼 무렵에, 50대 이상은 자녀가 막 결혼한 시기에 해당하는데’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자식의 연령과 부모의 연령 구분이 혼용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다.
-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와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에서 연령 구분이 화자의 연령인지 청자의 연령 구분인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자의 연령이라면 20대의 화자가 사돈의 결혼 안한 딸과 아들에게 ‘사돈처녀’, ‘사돈총각’이라는 어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실제로는 ‘○○○씨’라고 부르지 않을까?
-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도 연령 구분은 사위의 연령이다. 20대가 장인이나 장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연령 구분인지 청자의 연령 구분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도 연령구분이 보고서는 부르는 사람(화자)의 연령 구분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표시가 없고 또한 부르는 사람(화자)과 불리는 사람(청자)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도 부르는 사람(화자)의 연령 구분인지 불리는 사람(청자)의 연령 구분인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도 연령 구분이 누구의 연령 구분인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아내 오빠의 부인을 말할 때’도 연령 구분이 화자의 연령 구분인지 청자의 연령 구분인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에 표준 화법에는 ‘매부’로 정하였는데 보고서에 ‘매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도 연령 구분이 화자의 연령구분인지 청자의 연령 구분인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도 연령 구분이 화자의 연령 구분인지 청자의 연령 구분인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에 성별 구분이 있는데 친구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 있을 수 없으므로 여성의 분포는 필요 없다고 본다.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여성의 분포는 필요 없는 분류이다.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도 남성의 분포는 필요 없는 분류이다.
- ‘백화점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와 ‘백화점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의 중년과 젊은이의 연령상 경계를 그어줄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의 문제가 있다.
-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에서 조사결과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조사 정비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준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역별 특성을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 맞는 경어법이나 호칭·지칭어를 설정해서 교육하는 것은 표준어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 ‘표준 화법의 교육기관’으로 설문 조사 결과 30-40대는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가 대부분 여성이어서 여성 상위적인 시각에서 드라마를 전개하고 경어법 사용도 마찬가지로여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데 마치 시청자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마 작가나 연예인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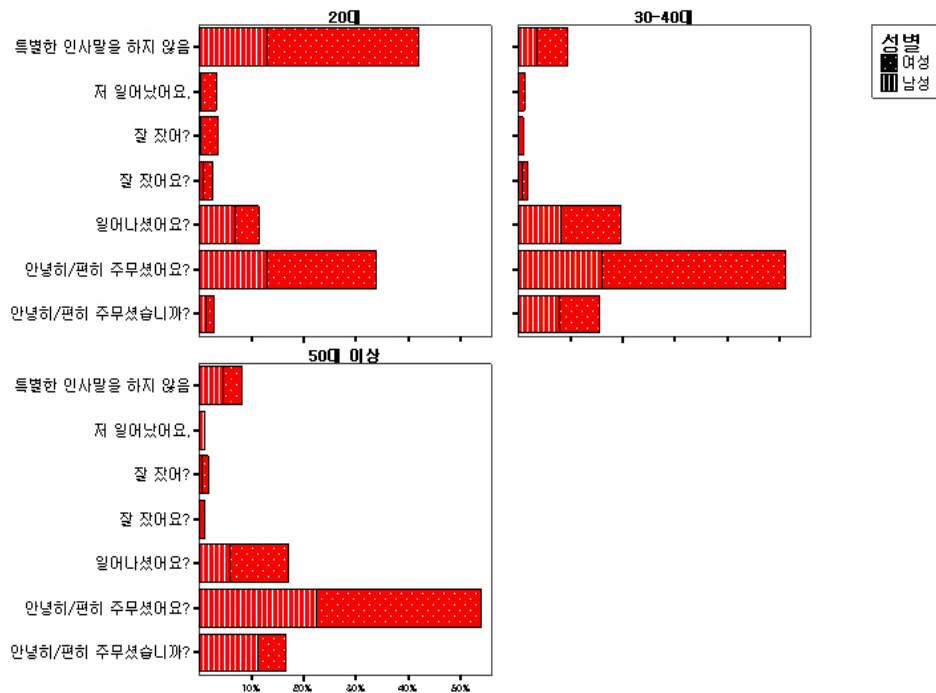
1. 인사말

가.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 인사말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 인사말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18.9%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진 것은 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하고 가족 내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나셨어요?’(16.8%),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12.0%)의 순이다. ‘잘 잤어요.’와 ‘잘 잤어.’가 2.0%, ‘저 일어나났어요.’가 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인사말인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합쳐 68.5%로 아주 높게 나타났지만,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와 같은 인사말들도 의미 있게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8 3.0%	74 15.5%	28 16.6%	61 17.4%	49 8.7%	110 12.0%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92 33.9%	243 51.1%	91 53.8%	150 42.7%	276 48.8%	426 46.5%
일어나셨어요?	31 11.4%	94 19.7%	29 17.2%	68 19.4%	86 15.2%	154 16.8%
잘 잤어요?	7 2.6%	9 1.9%	2 1.2%	6 1.7%	12 2.1%	18 2.0%
잘 잤어?	10 3.7%	5 1.1%	3 1.8%	2 .6%	16 2.8%	18 2.0%
저 일어났어요?	9 3.3%	6 1.3%	2 1.2%	4 1.1%	13 2.3%	17 1.9%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114 42.1%	45 9.5%	14 8.3%	60 17.1%	113 20.0%	173 18.9%
합계	271 100.0%	476 100.0%	169 100.0%	351 100.0%	565 100.0%	916 100.0%

<표 2>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이 가장 높은 데 비해 (42.1%), 30-40대와 50대 이상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아주 높았다(각 51.1%와 53.8%). 20대는 특히 ‘저 일어났어요.’와 ‘잘 잤어.’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 3.3%와 3.7%). 30-40대와 50대 이상은 ‘잘 잤어요.’, ‘잘 잤어.’, ‘저 일어났어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잘 잤어.’(2.8% : 0.6%)와 ‘저 일어났어요.’(2.3% : 1.1%)였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를 표준으로 삼고, ‘잘(편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를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데 <2009년 통계 자료>⁴⁾를 살펴보면, ‘편히 주무셨습니까?’를 넘어 특별한 인사말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잘 잤어?, 잘 잤어요?, 저 일어났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비율이 4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잘

4) 이하 <2009년 통계 자료>는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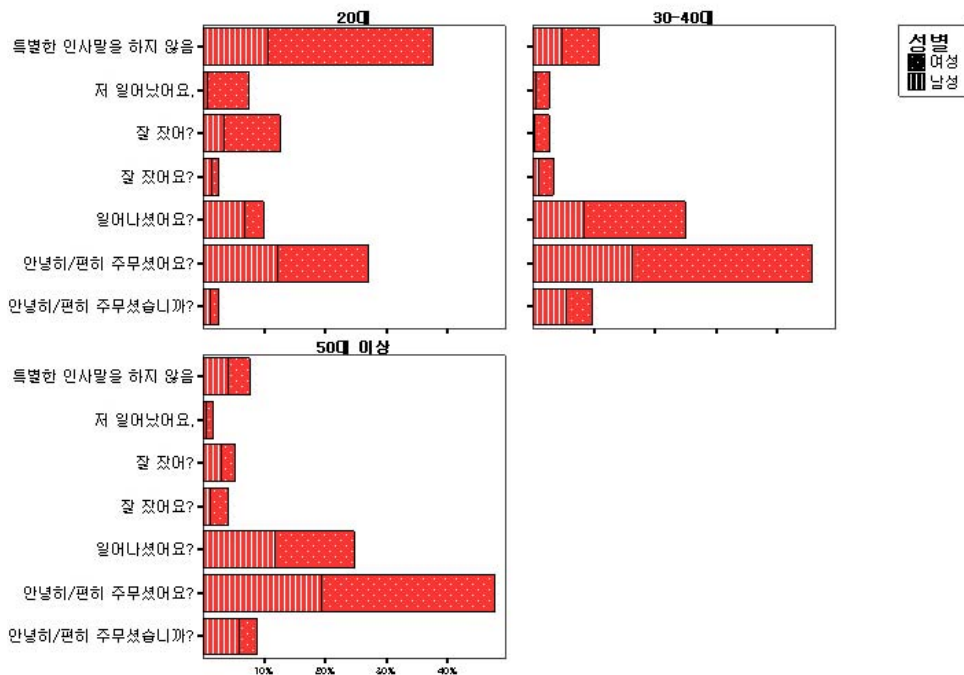
‘잘 잤어?’와 ‘잘 잤어요?’는 손아래사람에게 사용하는 아침 인사말의 표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저 일어났어요.’라는 표현은 인사말의 내용이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인사말과 차이를 보였다.

나.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일어나셨어요.’가 20.5%로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1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가정에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7.5%), ‘잘 잤어?’(6.0%)의 순이다. ‘저 일어났어요.’와 ‘잘 잤어요?’가 각각 4.0%, 3.3%로 나타났다. ‘잘 잤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7 2.7%	46 9.6%	15 8.8%	39 11.1%	29 5.2%	68 7.5%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71 27.0%	218 45.7%	81 47.6%	142 40.6%	228 40.7%	370 40.7%
일어나셨어요?	26 9.9%	119 24.9%	42 24.7%	78 22.3%	109 19.5%	187 20.5%
잘 잤어요?	7 2.7%	16 3.4%	7 4.1%	11 3.1%	19 3.4%	30 3.3%
잘 잤어?	33 12.5%	13 2.7%	9 5.3%	16 4.6%	39 7.0%	55 6.0%
저 일어났어요.	20 7.6%	13 2.7%	3 1.8%	6 1.7%	30 5.4%	36 4.0%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99 37.6%	52 10.9%	13 7.6%	58 16.6%	106 18.9%	164 18.0%
합계	263 100.0%	477 100.0%	170 100.0%	350 100.0%	560 100.0%	910 100.0%

<표 3>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37.6%), 이런 경향은 30-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도 각각 10.9%와 7.6%로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 걸쳐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보다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50%이상씩 높게 나타나 인사말이 전체적으로 ‘합쇼체’에서 ‘해요체’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 ‘잘 잤어?’가 1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를 사용하는 비율에서 남성(11.1%)이 여성보다(5.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신 ‘잘 잤어?’라는 반말의 사용은 남성(4.6%)보다 여성(7.0%)이 높게 나타났고, ‘저 일어났어요.’의 경우도 남성(1.7%)보다 여성(5.4%)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만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이 차이를 보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18.0%)이 아버지의 경우(18.9%, 1위)와 달리 ‘일어나셨어요.’(20.25%)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잘 잤어?’는 아버지의 경우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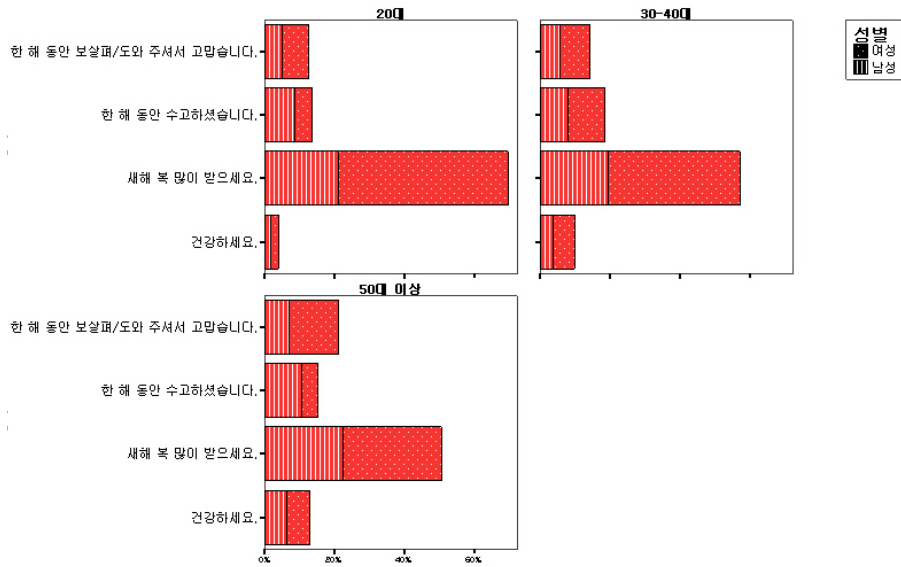
에 불과했지만 어머니의 경우 6.0%로 높게 나타났다.

다.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5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16.5%)와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15.0%)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하세요.’(8.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건강과 관련된 안부 인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건강하세요.	11 4.0%	48 9.9%	22 12.9%	34 9.4%	47 8.2%	81 8.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3 69.7%	277 57.2%	86 50.6%	191 53.1%	365 63.9%	556 59.7%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8 13.7%	90 18.6%	26 15.3%	81 22.5%	73 12.8%	154 16.5%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35 12.6%	69 14.3%	36 21.2%	54 15.0%	86 15.1%	140 15.0%
합계	277 100.0 %	484 100.0 %	170 100.0 %	360 100.0 %	571 100.0 %	931 100.0 %

<표 4>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는 20대로 갈수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이 많았고, 50대로 갈수록 '건강하세요.'와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많았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에서 남성(22.5%)이 여성(12.8%)보다 높은 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여성(63.9%)이 남성(53.1%)보다 높았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특별한 송년 인사말을 제시하지 않고, 비고란에 상대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치하의 뜻을 포함한 표현으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2009년 통계자료>는 송년 인사말과 새해 인사말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가 세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이미 윗사람에 대한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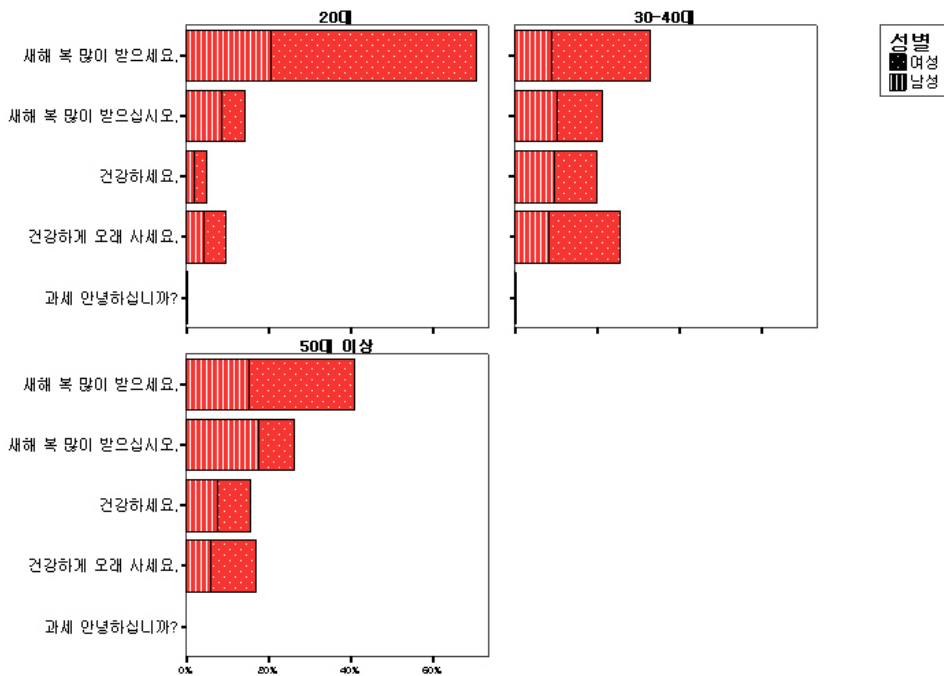
라.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45.7%)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19.3%)와 ‘건강하세요.’(14.8%)로 나타났다. ‘과세 안녕하십니까?’(0.2%)와 같은 한문 투의 인사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과세 안녕하십니까?	1 .4%	1 .2%	0 .0%	1 .3%	1 .2%	2 .2%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27 9.6%	124 25.6%	29 17.0%	62 17.2%	118 20.5%	180 19.3%
건강하세요.	14 5.0%	97 20.0%	27 15.8%	66 18.3%	72 12.5%	138 14.8%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0 14.3%	103 21.3%	45 26.3%	104 28.9%	84 14.6%	188 20.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8 70.7%	159 32.9%	70 40.9%	127 35.3%	300 52.2%	427 45.7%
합계	280 100.0%	484 100.0%	171 100.0%	360 100.0%	575 100.0%	935 100.0%

<표 5>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6>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에서는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20대의 경우 70.7%로 아주 높은 반면 30-40대는 32.9%, 50대 이상은 40.9%를 보였다. 대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는 30-40대가 25.6%, 50대 이상은 17.0%로 나타났다지만 20대는 9.6%로 나타났다. ‘건강하세요.’의 경우도

30-40대가 20.0%이고, 50대 이상이 15.8%인 반면 20대는 5.0%에 불과했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합쇼체’와 ‘해요체’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여성(52.2%)이 남성(35.3%)보다 높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남성(28.9%)이 여성(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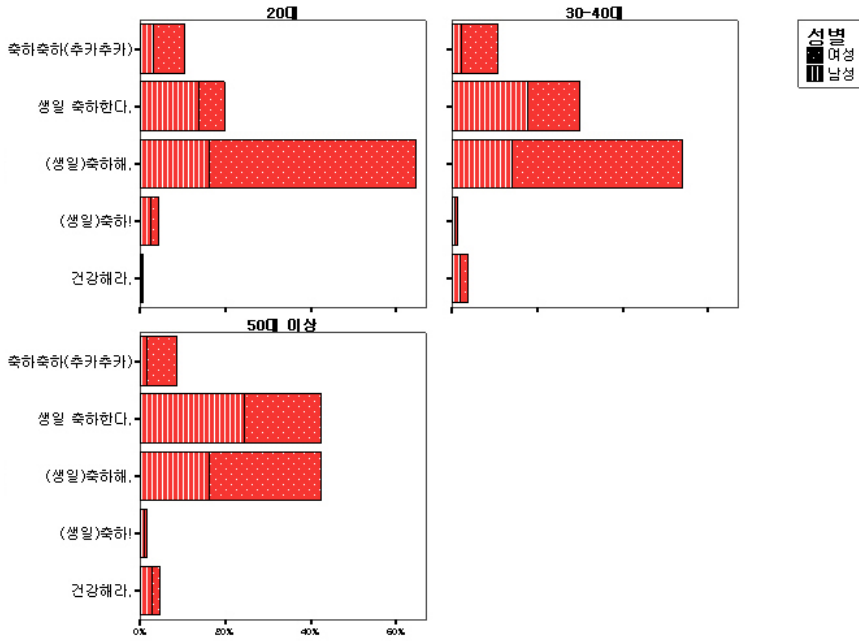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세배는 원칙적으로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절 받는 어른에게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고, 절을 받는 어른이 덕담을 하게 된다. 만약 절을 한 뒤 어른의 덕담이 끝나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을 후에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경우에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좋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합하여 7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표현이 세배할 때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는 ‘(생일) 축하해.’(5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생일 축하한다.’(29.3%), ‘축하축하(추카추카)’(10.3%)가 뒤를 이었고, ‘건강해라.’(3.0%)와 ‘(생일)축하!’(2.3%)의 인사말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축하축하(추카추카)’는 인터넷식의 인사말인데도 10.3%나 사용하고 있었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건강해라.	2	18	8	16	12	28
	.7%	3.7%	4.7%	4.5%	2.1%	3.0%
(생일) 축하!	12	6	3	12	9	21
	4.3%	1.2%	1.7%	3.4%	1.6%	2.3%
(생일) 축하해.	179	261	73	141	372	513
	64.6%	54.1%	42.4%	39.4%	64.9%	55.1%
생일 축하한다.	55	145	73	166	107	273
	19.9%	30.1%	42.4%	46.4%	18.7%	29.3%
축하축하(추카추카)	29	52	15	23	73	96
	10.5%	10.8%	8.7%	6.4%	12.7%	10.3%
합계	277	482	172	358	573	9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7> ‘생일 맞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반말인 ‘(생일) 축하해.’는 20대로 갈수록 높은 비율(64.6% ← 54.1% ← 42.4%)을 보이는 반면, ‘생일 축하한다.’는 50대로 갈수록 높은 비율(19.9% → 30.1% → 42.4%)을 보였다. ‘건강해라.’는 20대(0.7%)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생일) 축하해.’의 경우 여성(64.9%)이 남성(39.4%)보다 매우 높게 사용하는 반면에, ‘생일 축하한다.’는 남성(46.4%)이 여성(18.7%)보다 높게 사용하고 있다. ‘축하축하(추카추카)’의 경우도 여성(12.7%)이 남성(6.4%)보다 높게 사용하였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생일) 축하합니다(축하한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표준으로 제시하였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명사형 인사말인 ‘축하!’, ‘축하축하(추카추카)’가 12.6%를 차지하였다. 인터넷의 언어 표현인 ‘축하축하(추카추카)’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20대 10.5%, 30-40대 10.8%, 50대 이상 8.7%)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 언어들이 일상적인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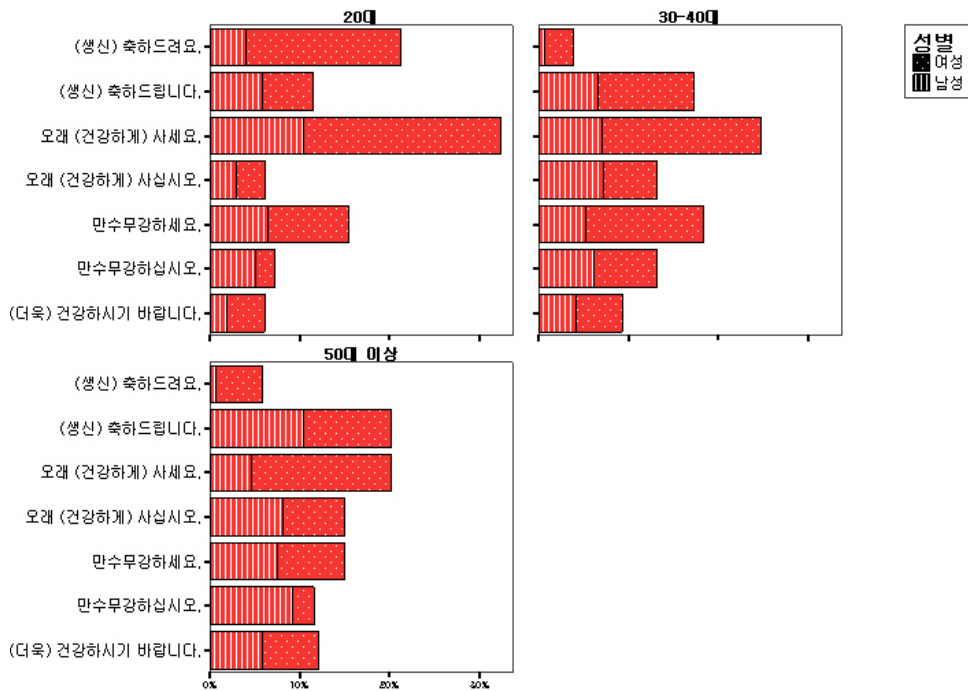
바. 회갑(칠순, 고회)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회갑(칠순, 고회)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은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26.2%)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만수무강하세요.’(16.9%), ‘(생신) 축하드립니다.’(16.1%),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11.4%), ‘만수무강하십시오.’(11.1%), ‘(생신) 축하드려요.’(9.4%),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8.9%)를 비교적 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7	45	21	35	48	83
만수무강하십시오.	6.1%	9.3%	12.1%	9.7%	8.3%	8.9%
(생신) 축하드립니다.	20	64	20	60	44	104
만수무강하십시오.	7.2%	13.2%	11.6%	16.7%	7.6%	11.1%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43	89	26	56	102	158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15.5%	18.4%	15.0%	15.6%	17.7%	16.9%
(생신) 축하드려요.	17	64	26	57	50	107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6.1%	13.2%	15.0%	15.8%	8.7%	11.4%
(생신) 축하드립니다.	90	120	35	71	174	245
(생신) 축하드려요.	32.4%	24.7%	20.2%	19.7%	30.2%	26.2%
합계	32	84	35	66	85	151
	11.5%	17.3%	20.2%	18.3%	14.8%	16.1%
	59	19	10	15	73	88
	21.2%	3.9%	5.8%	4.2%	12.7%	9.4%
	278	485	173	360	576	9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표 7> ‘회갑(칠순, 고회)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는 ‘오래(건강하게) 사세요.’가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았고(32.4% ← 24.7% ← 20.2%), ‘(생신) 축하드려요.’가 20대(21.2%)가 30-40대(3.9%)와 50대 이상(5.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6.1% → 9.3% → 12.1%)와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6.1% → 13.2% → 15.0%)이었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회갑(칠순, 고희)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성별로는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표현에서 남성(16.7%)이 여성(7.6%)보다 높았고,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도 남성(15.8%)이 여성(8.7%)보다 높았다. 반면에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는 여성(30.2%)이 남성(19.7%)보다 높았고, '(생신) 축하드려요.'도 여성(12.7%)이 남성(4.2%)보다 높았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생신)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만수무강하십시오.'는 현수할 때 하는 인사말로 제시하였다. 다른 인사말에서는 한문 투의 고전적인 인사말들이 많이 사라진 반면에 이 인사말에서는 여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나 아래 사람의 생일과 달리 '(생신)축하드려요.'가 비교적 덜 사용되고 있으며, 또 '합쇼체'와 '해요체'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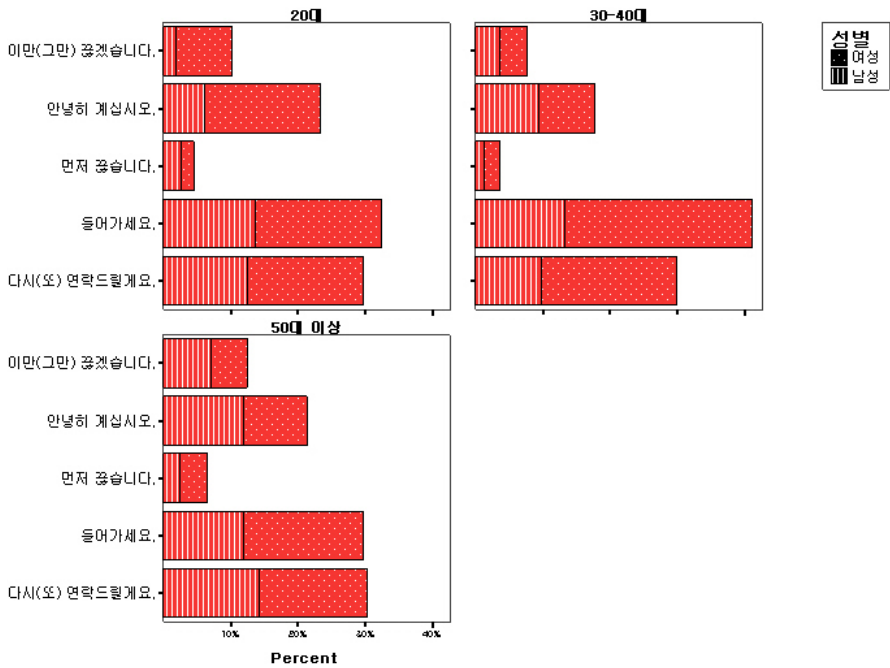
사.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에서는 '들어주세요.'(36.3%)가 가장 높았고, '다시(또) 연락드릴게요.'(29.9%), '안녕히 계십시오.'(20.0%)가 뒤를 이었으며,

‘이만(그만) 끊겠습니다.’(9.3%)와 ‘먼저 끊습니다.’(4.4%)가 낮았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다시(또) 연	79	140	51	103	167	270
락드릴게요.	29.7%	29.9%	30.2%	29.3%	30.3%	29.9%
들어가세요.	86	192	50	118	210	328
먼저 끊습	12	17	11	17	23	40
니다.	4.5%	3.6%	6.5%	4.8%	4.2%	4.4%
안녕히 계	62	83	36	80	101	181
십시오.	23.3%	17.7%	21.3%	22.7%	18.3%	20.0%
이만(그만)	27	36	21	34	50	84
끊겠습니다.	10.2%	7.7%	12.4%	9.7%	9.1%	9.3%
합계	266	468	169	352	551	9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표 8>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9>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안녕히 계십시오.’를 남성(22.7%)이 여성(18.3%)보다 많이 사용하는 반면, ‘들어주세요.’는 여성(38.1%)이 남성(33.5%)보다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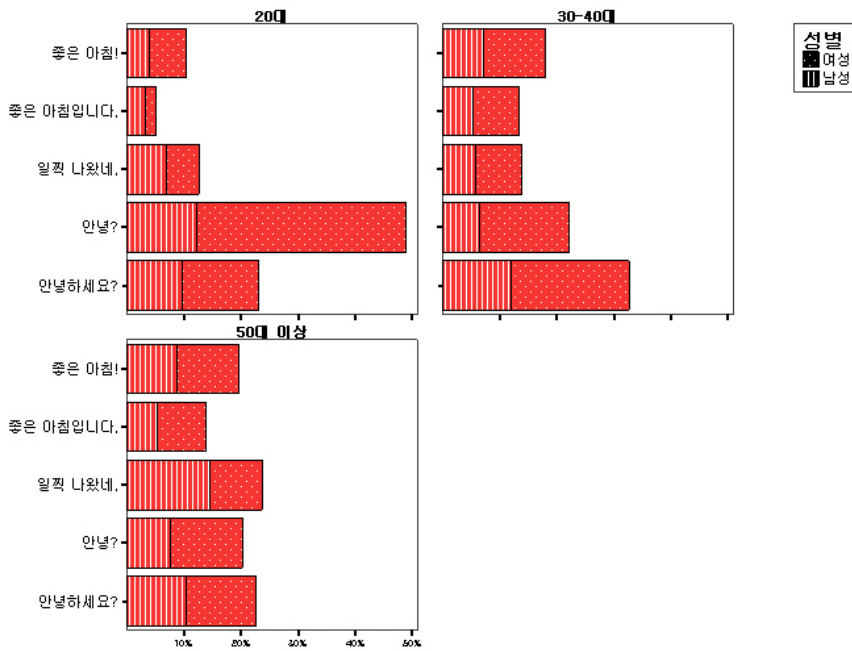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주세요.’라는 인사말에 대해서는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주로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들어주세요.’(36.3%)가 1위를 차지하여 이 표현이 전화를 끊을 때의 전형적인 인사말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서는 ‘안녕?’(29.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안녕하세요?’(27.9%), ‘좋은 아침!’(16.0%), ‘일찍 나왔네.’(15.3), ‘좋은 아침입니다.’(11.0%)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안녕하세요?	64 23.0%	158 32.6%	39 22.5%	103 28.8%	158 27.4%	261 27.9%
안녕?	136 48.9%	107 22.1%	35 20.2%	78 21.8%	200 34.7%	278 29.7%
일찍 나왔네.	35 12.6%	67 13.8%	41 23.7%	72 20.1%	71 12.3%	143 15.3%
좋은 아침입니다.	14 5.0%	65 13.4%	24 13.9%	44 12.3%	59 10.2%	103 11.0%
좋은 아침!	29 10.4%	87 18.0%	34 19.7%	61 17.0%	89 15.4%	150 16.0%
합계	278 100.0%	484 100.0%	173 100.0%	358 100.0%	577 100.0%	935 100.0%

<표 9>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0> ‘출근하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는 ‘안녕?’이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진(48.9% ← 22.1% ← 20.2%) 반면, ‘일찍 나왔네.’는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12.6% → 13.8% → 23.7%). ‘좋은 아침!’은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고(10.4% → 18.0 → 19.7%), ‘좋은 아침입니다.’의 경우도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5.0% → 13.4% → 13.9%).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안녕?’은 여성(34.7%)이 남성(21.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일찍 나왔네.’는 남성(20.1%)이 여성(12.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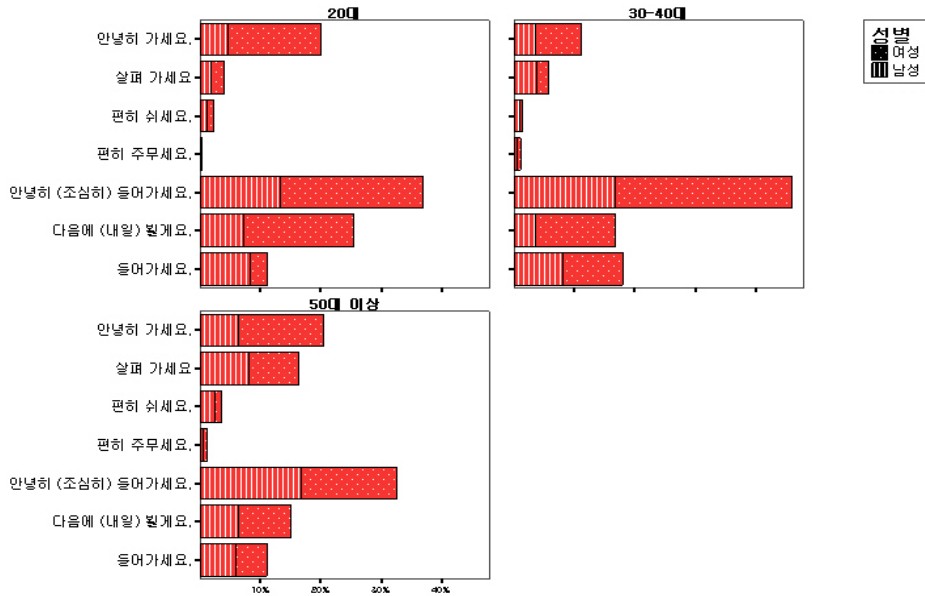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를, 아랫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나왔군.’, ‘나오나?’와 같은 완전한 문장 표현을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좋은 아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직역한 말이고, 이에 대한 전통적인 인사말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안녕?’과 ‘좋은 아침!’이라는 명사형 인사말이 합하여 45.7%를, 영어를 번역한 ‘좋은 아침!’과 ‘좋은 아침입니다.’가 합쳐 27.0%를 차지하였다.

자.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은 ‘안녕히(조심히) 들어가세요.’(40.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다음에 (내일) 뵙게요.’(19.0%), ‘안녕히 가세요.’(15.5%), ‘들어가세요.’(14.7%), ‘살펴 가세요.’(7.2%)의 순으로 나타났고, ‘편히 쉬세요.’(1.9%)와 ‘편히 주무세요.’(0.9%)가 적게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들어가세요.	31 11.1%	87 18.0%	19 11.0%	72 20.0%	65 11.3%	137 14.7%
다음에 (내일) 뵙게요.	71 25.4%	81 16.7%	26 15.1%	48 13.3%	130 22.6%	178 19.0%
안녕히 (조심히) 들어가세요.	103 36.9%	223 46.1%	56 32.6%	147 40.8%	235 40.9%	382 40.9%
편히 주무세요.	1 .4%	5 1.0%	2 1.2%	4 1.1%	4 .7%	8 .9%
편히 쉬세요.	6 2.2%	6 1.2%	6 3.5%	11 3.1%	7 1.2%	18 1.9%
살펴 가세요.	11 3.9%	28 5.8%	28 16.3%	37 10.3%	30 5.2%	67 7.2%
안녕히 가세요.	56 20.1%	54 11.2%	35 20.3%	41 11.4%	104 18.1%	145 15.5%
합계	279 100.0%	484 100.0%	172 100.0%	360 100.0%	575 100.0%	935 100.0%

<표 10>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1>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는 ‘다음에 (내일) 뵙게요.’가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25.4% ← 16.7% ← 15.1%)반면 ‘살펴 가세요.’는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3.9% → 5.8% → 16.3%).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들어가세요.’는 남성(20.0%)이 여성(11.3%)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안녕히 가세요.’는 여성(18.1%)이 남성(11.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살펴 가세요.’도 남성(10.3%)이 여성(5.2%)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2009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안녕히(조심히) 들어가세요.’와 ‘들어가세요.’가 합하여 5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가세요.’는 전화를 끊을 때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보듯이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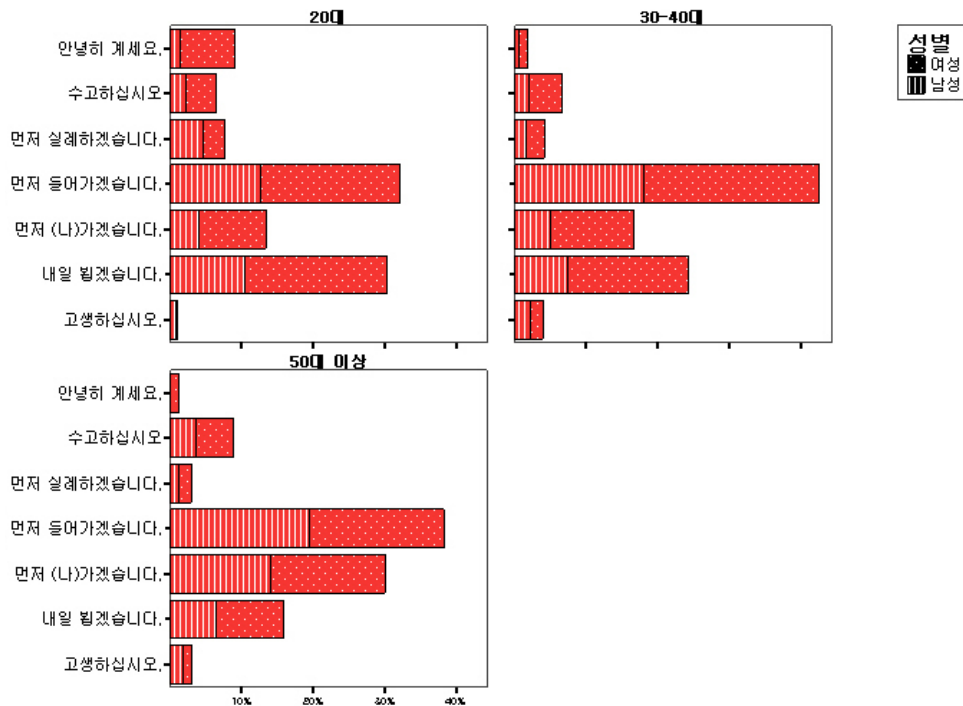
차.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38.7%)와 ‘내일 뵙겠습니다.’(24.5%), ‘먼저 (나)가겠습니다.’(18.1%)가 비율이 높았고, 뒤이어 ‘수고하십시오.’(7.0%), ‘먼저 실례하겠습니다.’(4.9%), ‘안녕히 계세요.’(3.9%),

‘고생하십시오.’(2.9%)의 순서였다. 먼저 나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전통적인 인사말인 ‘안녕히 계세요.’는 3.9%만 사용하고 있었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고생하십시오.	3 1.1%	19 3.9%	5 2.9%	16 4.5%	11 1.9%	27 2.9%
내일 뵙겠습니다.	84 30.3%	118 24.3%	27 15.9%	76 21.2%	153 26.7%	229 24.5%
먼저 (나)가겠습니다.	37 13.4%	81 16.7%	51 30.0%	59 16.4%	110 19.2%	169 18.1%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89 32.1%	207 42.6%	65 38.2%	156 43.5%	205 35.7%	361 38.7%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21 7.6%	20 4.1%	5 2.9%	23 6.4%	23 4.0%	46 4.9%
수고하십시오.	18 6.5%	32 6.6%	15 8.8%	22 6.1%	43 7.5%	65 7.0%
안녕히 계세요.	25 9.0%	9 1.9%	2 1.2%	7 1.9%	29 5.1%	36 3.9%
합계	277 100.0 %	486 100.0%	170 100.0%	359 100.0 %	574 100.0 %	933 100.0 %

<표 11>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2>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내일 뵙겠습니다.'(30.3% ← 24.3% ← 15.9%), '먼저 실례하겠습니다.'(7.6% ← 4.1% ← 2.9%), '안녕히 계세요.'(9.0% ← 1.9% ← 1.2%)이고,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먼저 (나)가겠습니다.'(13.4% → 16.7% → 30.0%)이었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표현은 '고생하십시오.'(4.5% : 1.9%), '먼저 들어가겠습니다.'(43.5% : 35.7%), '먼저 실례하겠습니다.'(6.4% : 4.0%)였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표현은 '내일 뵙겠습니다.'(26.7% : 21.2%), '먼저 (나)가겠습니다.'(19.2% : 16.4%), '수고하십시오.'(7.5% : 6.1%), '안녕히 계세요.'(5.1% : 1.9%)였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고서, '수고하십시오.'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그 사용을 금지하였다. <2009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화를 끊을 때와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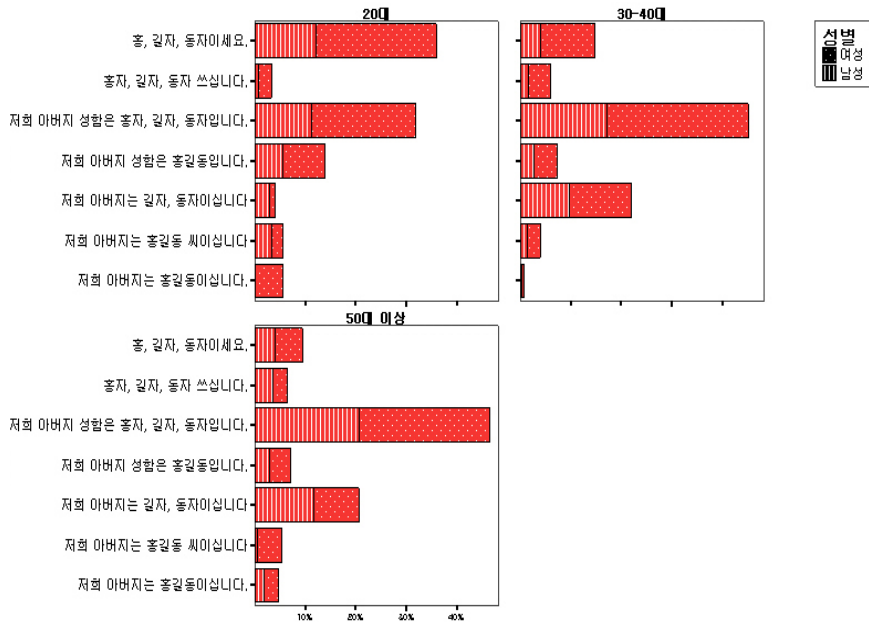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과 같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헤어질 때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고하십시오.’는 모든 세대가 골고루(20대 6.5%, 30-40대 6.6%, 50대 이상 8.8%) 사용하고 있으며, ‘고생하십시오.’도 마찬가지로(20대 1.1%, 30-40대 3.9%, 50대 이상 2.9%)여서, 윗사람에게 ‘수고하다, 고생하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인사말을 큰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에서는 각 글자마다 ‘자’를 붙인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41.5%)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홍, 길자, 동자이세요.’(20.0%), ‘저희 아버지는 길자, 동자이십니다.’(16.5%)로 나타났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입니다.’(9.2%),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5.3%),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씨이십니다.’(4.7%),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이십니다.’(2.9%)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이십니다.	15 5.5%	4 .8%	8 4.7%	4 1.1%	23 4.0%	27 2.9%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씨이십니다.	15 5.5%	19 4.0%	9 5.3%	17 4.8%	26 4.6%	43 4.7%
저희 아버지는 길자, 동자이십니다.	11 4.0%	106 22.0%	35 20.6%	75 21.2%	77 13.5%	152 16.5%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입니다.	38 13.9%	35 7.3%	12 7.1%	33 9.3%	52 9.1%	85 9.2%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87 31.9%	217 45.1%	79 46.5%	149 42.2%	234 41.0%	383 41.5%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9 3.3%	29 6.0%	11 6.5%	16 4.5%	33 5.8%	49 5.3%
홍, 길자, 동자이세요.	98 35.9%	71 14.8%	16 9.4%	59 16.7%	126 22.1%	185 20.0%
합계	273 100.0%	481 100.0%	170 100.0%	353 100.0%	571 100.0%	924 100.0%

<표 12>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3>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20대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표현은 '홍, 길자, 동자이세요.'(35.9%)였다.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입니다.'(13.9% ← 7.3% ← 7.1%), '홍, 길자, 동자이세요.'(35.9% ← 14.8% ← 9.4%)였다.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31.9% → 45.1% → 46.5%),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3.3% → 6.0% → 6.5%)였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저희 아버지는 길자, 동자입니다.'(21.2% : 13.5%)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입니다.'(4.0% : 1.1%), '홍, 길자, 동자이세요.'(22.1% : 16.7%)이었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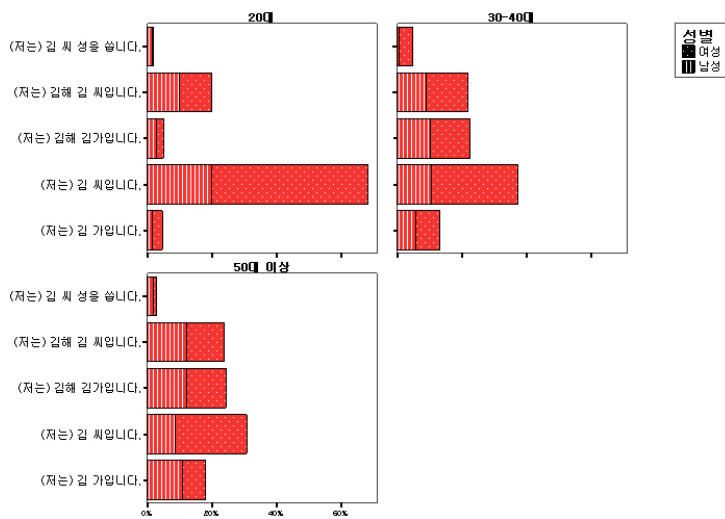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저희 아버지는(아버지의 함자는) ○자 ○자입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달리 글자 뒤에 '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16.8%이었고, 성(姓)씨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소개하는 경우가 16.5%로, 이 둘을 합하면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

자신의 성씨를 소개하는 말은 ‘(저는) 김 씨입니다.’(45.5%)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저는) 김해 김 씨입니다.’(21.7%),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17.7%), ‘(저는) 김 가입니다.’(11.6%)가 뒤를 이었다. ‘(저는) 김 씨 성을 씁니다.’(3.5%)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관을 붙여 소개하는 경우는 39.4%였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저는) 김 가입니다.	13 4.7%	64 13.3%	31 18.0%	51 14.4%	57 9.9%	108 11.6%
(저는) 김 씨입니다.	191 68.5%	180 37.4%	53 30.8%	122 34.4%	302 52.3%	424 45.5%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14 5.0%	109 22.7%	42 24.4%	79 22.3%	86 14.9%	165 17.7%
(저는) 김해 김 씨입니다.	56 20.1%	105 21.8%	41 23.8%	93 26.2%	109 18.9%	202 21.7%
(저는) 김 씨 성을 씁니다.	5 1.8%	23 4.8%	5 2.9%	10 2.8%	23 4.0%	33 3.5%
합계	279 100.0%	481 100.0%	172 100.0%	355 100.0%	577 100.0%	932 100.0%

<표 13>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4>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저는)김 씨입니다

다.’(685% ← 37.4% ← 30.8%)였다. 특히, 20대는 자신의 성에 ‘씨’를 붙여 소개하는 경우가 90.3%나 되었다.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저는) 김 가입니다.’(4.7% → 13.3% → 18.0%), ‘(저는)김해 김가입니다.’(5.0% → 22.7% → 24.4%)였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저는) 김 가입니다.’(14.4% : 9.9%), ‘(저는)김해 김가입니다.’(22.3% : 14.9%), ‘(저는) 김해 김 씨입니다.’(26.2% : 18.9%)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저는) 김 씨입니다.’(52.3% : 34.4%), ‘(저는) 김 씨 성을 씁니다.’(4.0% : 2.8%)였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자기 성씨에 ‘씨’를 붙이는 방법과 ‘가’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일관성 있게 자기 성씨에는 ‘가’를 붙이고 남의 성씨에는 ‘씨’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조사>를 살펴보면, 자신의 성에 ‘씨’를 붙여 소개하는 경우가 70.7%로 자신의 성을 소개할 때도 ‘씨’를 붙이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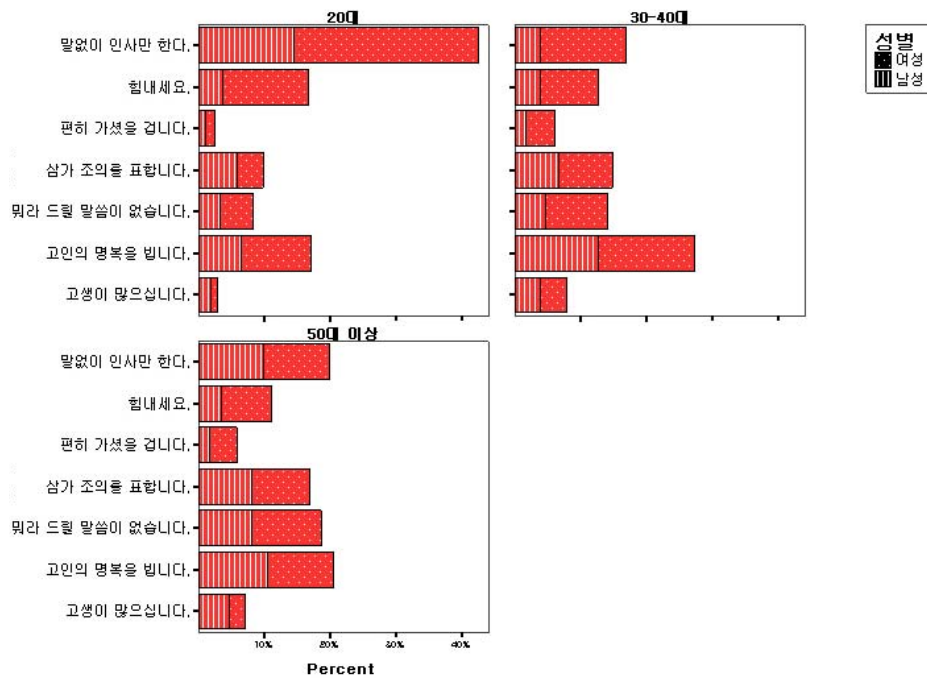
파.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은 ‘말없이 인사만 한다.’(25.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3.0%)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13.7%), ‘힘내세요.’(13.6%),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13.3%)가 뒤를 따랐다. ‘고생이 많으십니다.’(6.2%), ‘편히 가셨을 겁니다.’(5.0%)도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사용하고 있었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고생이 많으십니다.	8 2.9%	37 7.8%	12 7.0%	31 8.7%	26 4.6%	57 6.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7 17.1%	129 27.3%	35 20.5%	96 26.9%	115 20.5%	211 23.0%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3 8.4%	67 14.2%	32 18.7%	45 12.6%	77 13.7%	122 13.3%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7 9.8%	70 14.8%	29 17.0%	62 17.4%	64 11.4%	126 13.7%
편히 가셨을 겁니다.	7 2.5%	29 6.1%	10 5.8%	14 3.9%	32 5.7%	46 5.0%
힘내세요.	46 16.7%	60 12.7%	19 11.1%	34 9.5%	91 16.2%	125 13.6%
말없이 인사만 한다.	117 42.5%	80 16.9%	34 19.9%	75 21.0%	156 27.8%	231 25.2%
합계	275 100.0 %	472 100.0%	171 100.0%	357 100.0 %	561 100.0 %	918 100.0 %

<표 14>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5>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말없이 인사만 한다.’(42.5%)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50대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0.5%), 30-40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7.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힘내세요.’(16.7% ← 12.7% ← 11.1%)였다. 50대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표현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8.4% → 14.2% → 18.7%), ‘삼

가 조의를 표합니다.’(9.8% → 14.8% → 17.0%)였다. 세대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고생이 많으십니다.’(8.7% : 4.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26.9% : 20.5%),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17.4% : 11.4%)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인 표현은 ‘편히 가셨을 겁니다.’(5.7% : 3.9%), ‘힘내세요.’(16.2% : 9.5%), ‘말없이 인사만 한다.’(27.8% : 21.0%)였다. 성별 간 인사말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문상객의 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라고 한 뒤 만약 말을 해야 할 때의 표준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를 제시하였다. <2009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말없이 인사만 한다.’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문상의 예절에 맞지 않는 ‘고생이 많으십니다.’가 6.2%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인사말은 20대보다는 30-40대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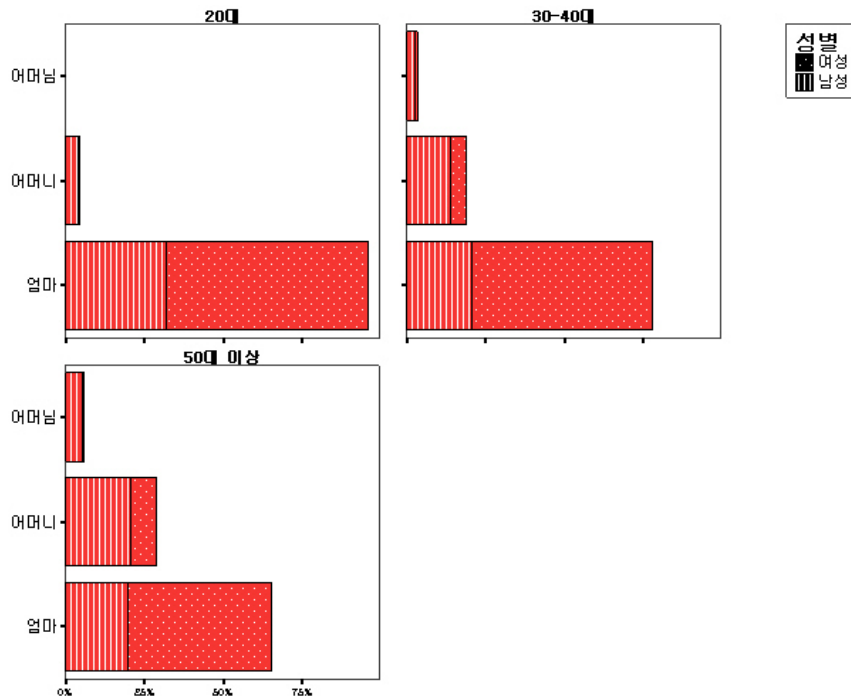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공통(남/여)]

가.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가정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대상이 바로 ‘모(母)’이다. ‘모(母)’에 대한 호칭은 ‘엄마’(81.0%)가 대부분이며, ‘어머니’(16.3%)와 ‘어머님’(2.8%) 순으로 그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엄마	267 95.7%	379 78.0%	111 65.3%	221 62.1%	536 92.6%	757 81.0%
어머니	12 4.3%	91 18.7%	49 28.8%	114 32.0%	38 6.6%	152 16.3%
어머님	0 .0%	16 3.3%	10 5.9%	21 5.9%	5 .9%	26 2.8%
합계	279 100.0%	486 100.0%	170 100.0%	356 100.0%	579 100.0%	935 100.0%

<표 15>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6>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엄마'(95.7%), '어머니'(4.3%) 순으로, 30-40대는 '엄마'(78.0%), '어머니'(18.7%), '어머님'(3.3%) 순으로, 50대 이상은 '엄마'(65.3%), '어머니'(28.8%), '어머님'(5.9%) 순으로 호칭의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92.6%)이 남성(62.1%)보다 '엄마'라고 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엄마'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62.1%)에 비해 여성(92.6%)이 월등히 높았으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32.0%)이 여성(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머님'이라는 부르는 비율은 그다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성별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어릴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장성해서는 '어머니'하고 고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엄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대는 다른 세대보다 '엄마'라고 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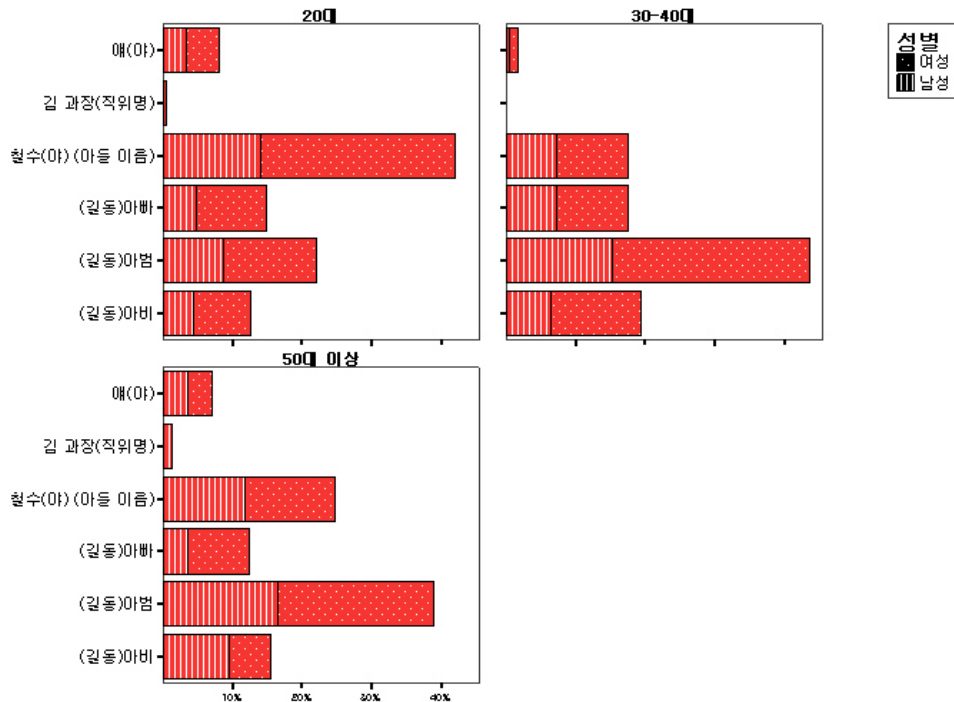
나.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이 혼인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한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만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길동) 아빤'(36.4%)이 가장 널리 쓰였으며, 아

들 이름을 부르는 ‘철수(야)’(26.3%), ‘(길동) 아버지’(16.6%), ‘(길동) 아빠’(15.8%) 순이며, 아들의 직위로 부르는 ‘김 과장’(0.3%)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보면, 손자나 손녀의 이름에 기대어 혼인한 아들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길동) 아버지	35 12.7%	91 19.3%	26 15.4%	58 16.7%	94 16.5%	152 16.6%
(길동) 아범	61 22.1%	206 43.7%	66 39.1%	124 35.6%	209 36.8%	333 36.4%
(길동) 아빠	41 14.9%	83 17.6%	21 12.4%	53 15.2%	92 16.2%	145 15.8%
철수(야) (아들 이름)	116 42.0%	83 17.6%	42 24.9%	93 26.7%	148 26.1%	241 26.3%
김 과장 (직위명)	1 .4%	0 .0%	2 1.2%	3 .9%	0 .0%	3 .3%
애(야)	22 8.0%	8 1.7%	12 7.1%	17 4.9%	25 4.4%	42 4.6%
합계	276 100.0%	471 100.0%	169 100.0%	348 100.0%	568 100.0%	916 100.0%

<표 16>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7>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철수(야)(아들 이름)’(42.0%), ‘(길동) 아범’(22.1%), ‘(길동) 아비’(12.7%) 순으로, 30-40대는 ‘(길동) 아범’(43.7%), ‘(길동) 아비’(19.3%), ‘(길동) 아빠’와 ‘철수(야)(아들 이름)’(모두 17.6%) 순으로, 50대 이상은 ‘(길동) 아범’(39.1%), ‘철수(야)(아들 이름)’(24.9%), ‘(길동) 아비’(15.4%) 순으로 호칭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길동) 아범’, ‘철수(야)(아들 이름)’, ‘(길동) 아비’, ‘애(야)’의 순으로 호칭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처럼 20대(42.0%)는 ‘철수(야)(아들 이름)’로, 30-40대(43.7%)와 50대 이상(39.1%)은 ‘(길동) 아범’으로 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20대는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녀가 결혼할 수도 없는 상태로, 부모가 20대인 자기 이름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30-40대와 50대 이상은 부모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보다는 손자·손녀에 기대어 자기를 불러주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길동)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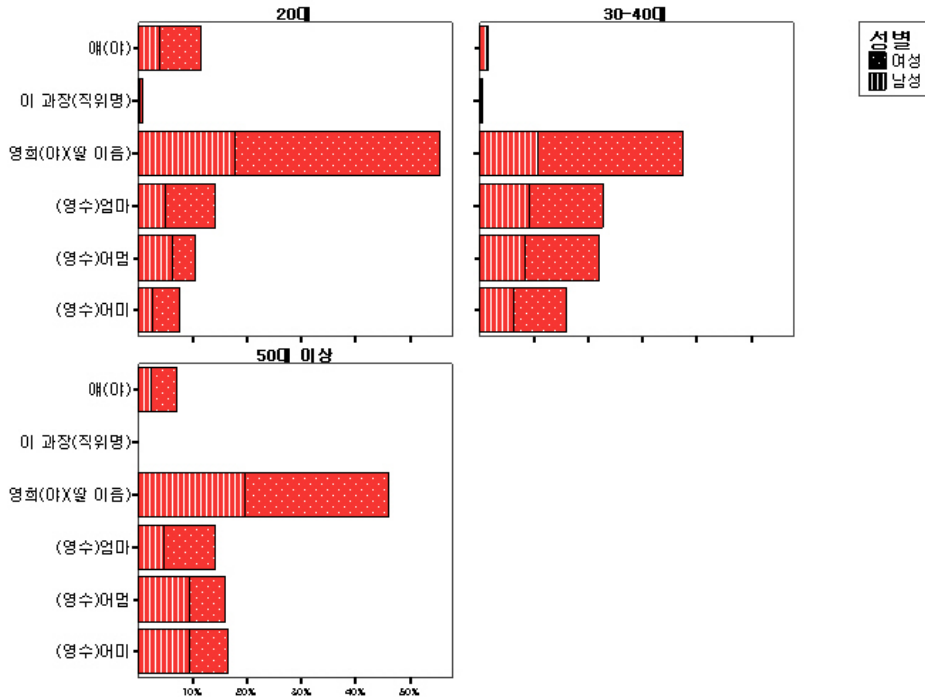
비'보다 약간 존대를 하는 표현인 '길동 아범'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혼인한 딸을 부를 때

혼인한 딸의 경우, 손자·손녀에 기대어 혼인한 아들을 부르는 것과는 달리, '영희(야)(딸 이름)'(44.5%)로 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영수)엄마'(18.5%), '(영수)어멈'(17.4%), '(영수)어미'(13.6%), '애(야)'(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의 직위로 부르는 '이 과장'(0.4%)은 혼인한 아들을 부르는 경우처럼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영수) 어미	21 7.6%	75 16.0%	28 16.6%	52 15.1%	72 12.6%	124 13.6%
(영수) 어멈	29 10.5%	103 22.0%	27 16.0%	72 20.9%	87 15.3%	159 17.4%
(영수) 엄마	39 14.1%	106 22.6%	24 14.2%	65 18.9%	104 18.2%	169 18.5%
영희(야) (딸 이름)	154 55.6%	175 37.4%	78 46.2%	132 38.4%	275 48.2%	407 44.5%
이 과장 (직위명)	2 .7%	2 .4%	0 .0%	2 .6%	2 .4%	4 .4%
애(야)	32 11.6%	7 1.5%	12 7.1%	21 6.1%	30 5.3%	51 5.6%
합계	277 100.0%	468 100.0%	169 100.0%	344 100.0%	570 100.0%	914 100.0%

<표 17> '혼인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8> '혼인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영희(야)(딸 이름)'(55.6%), '(영수) 엄마'(14.1%), '애(야)'(11.6%), '(영수) 어멈'(10.5%) 순으로, 30-40대는 '영희(야)(딸 이름)'(37.4%), '(영수) 엄마'(22.6%), '(영수) 어멈'(22.0%) 순으로, 50대 이상은 '영희(야)(딸 이름)'(46.2%), '(영수) 어멈'(16.0%), '(영수) 엄마'(14.2%) 순으로 호칭의 비율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은 혼인한 아들을 부르는 경우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딸 이름으로 부르는 '영희(야)' 호칭을 남성(38.4%)보다 여성(48.2%)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자·손녀에 기대어 '(OO)어미(어멈)'으로 부르거나 외손자·손녀를 보기 전에는 'OO[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대(55.6%), 30~40대(37.4%), 50대 이상(46.2%) 모두 '영희(야)(딸 이름)'을 부르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대(11.6%)와 50대 이상(7.1%)은 친한 친구나 편한 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애(야)'로도 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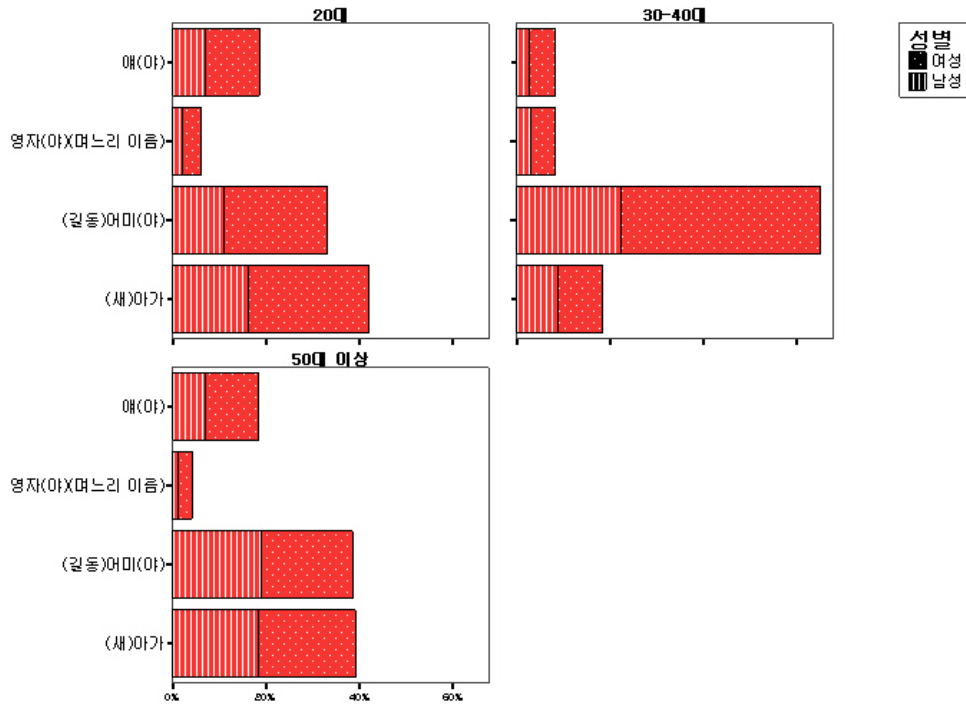
고 대답하였다. 이 점은 30-40대(1.5%)에서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가 된다.

라.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에 대한 호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자·손녀의 이름에 기대어 부르는 ‘(길동) 어미(야)’(50.7%)가 가장 높고, ‘(새)아가’(29.3%), ‘애(야)’(13.2%), 그리고 며느리 이름을 부르는 ‘영자(야)’(6.9%)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새)아가	115 42.0%	88 18.5%	66 39.1%	117 33.2%	152 26.8%	269 29.3%
(길동) 어미(야)	91 33.2%	310 65.1%	65 38.5%	168 47.7%	298 52.6%	466 50.7%
영자(야) (며느리 이름)	17 6.2%	39 8.2%	7 4.1%	23 6.5%	40 7.1%	63 6.9%
애(야)	51 18.6%	39 8.2%	31 18.3%	44 12.5%	77 13.6%	121 13.2%
합계	274 100.0 %	476 100.0%	169 100.0%	352 100.0 %	567 100.0 %	919 100.0 %

<표 18>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19>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새)아가’(42.0%), ‘(길동)어미(야)’(33.2%), ‘애(야)’(18.6%) 순으로, 30-40대는 ‘(길동)어미(야)’(65.1%), ‘(새)아가’(18.5%), ‘영자(야)(머느리 이름)’과 ‘애(야)’(모두 8.2%) 순으로, 50대 이상은 ‘(새)아가’(39.1%), ‘(길동)어미(야)’(38.5%), ‘애(야)’(18.3%) 순으로 호칭어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이 며느리를 부르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평균과 같은 비율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성별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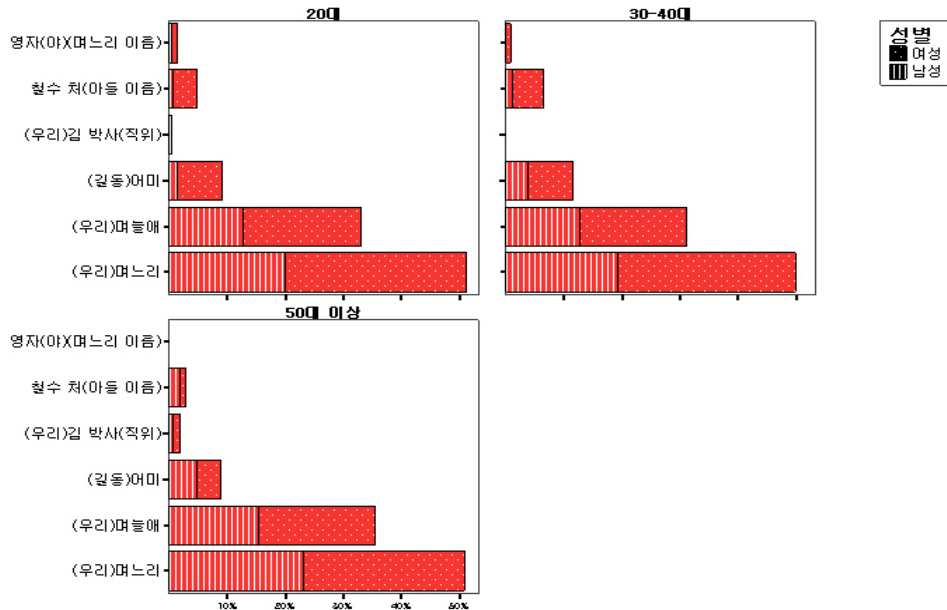
30-40대(65.1%)는 ‘(길동)어미(야)’로, 20대(42.0%)와 50대 이상(39.1%) 모두 ‘(새)아가’로 부르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20대(18.6%)와 50대 이상(18.3%)이 서로 간에 친밀하거나 친근한 관계에 사용한 가능한 ‘애(야)’로 부를 수 있다고 반응하였다. 하지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애야’는 어조에 따라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이라고 하였다.

마.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칭은 '(우리) 며느리'(50.5%)이며, 그 뒤를 이어 '(우리) 며늘애'(32.5%), '(길동) 어미'(10.3%), 아들 이름에 기대어 가리키는 '철수 처'(5.3%) 순으로 나타났다. 며느리 이름에 기대어 가리키는 '영자'(0.9%)나 직장의 직위에 기대어 가리키는 '(우리) 김 박사'(0.4%)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우리) 며느리	141 51.3%	237 49.9%	86 50.9%	185 52.9%	279 49.0%	464 50.5%
(우리) 며늘애	91 33.1%	148 31.2%	60 35.5%	122 34.9%	177 31.1%	299 32.5%
(길동) 어미	25 9.1%	55 11.6%	15 8.9%	30 8.6%	65 11.4%	95 10.3%
(우리) 김 박사(직위)	1 .4%	0 .0%	3 1.8%	2 .6%	2 .4%	4 .4%
철수 처(아들 이름)	13 4.7%	31 6.5%	5 3.0%	10 2.9%	39 6.9%	49 5.3%
영자(야)(며느리 이름)	4 1.5%	4 .8%	0 .0%	1 .3%	7 1.2%	8 .9%
합계	275 100.0%	475 100.0%	169 100.0%	350 100.0%	569 100.0%	919 100.0%

<표 19>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0>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51.3%와 33.1%), 30-40대(49.9%와 31.2%), 50대 이상(50.9%와 35.5%) 모두 '(우리)며느리'와 '(우리)며늘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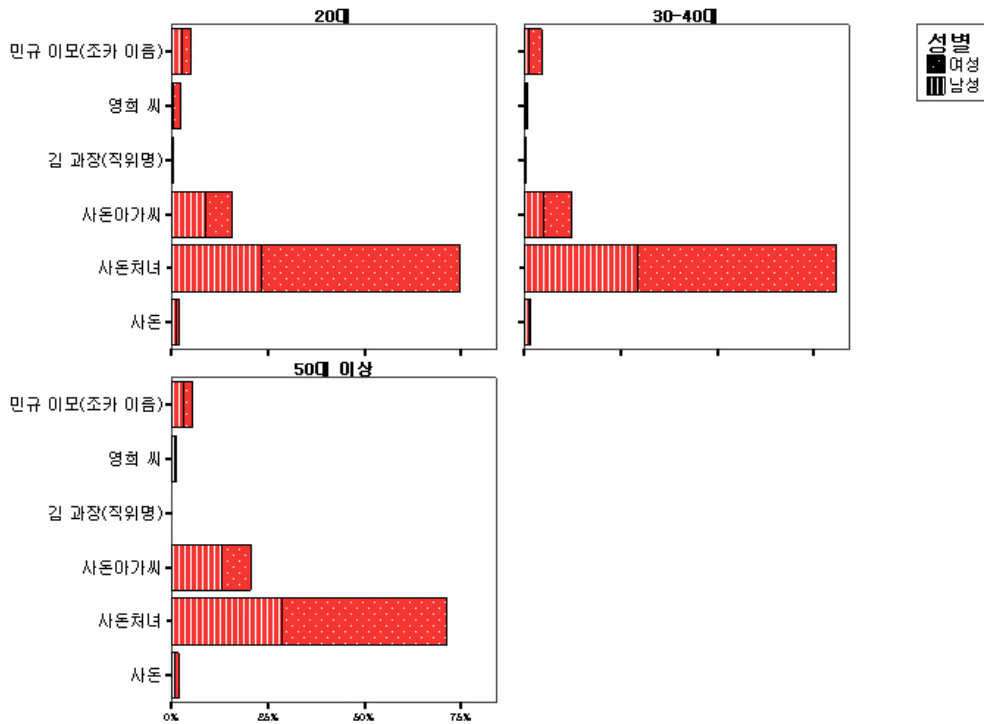
반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손자·손녀의 이름에 기댄 '(길동) 어미'(11.4%)와 아들 이름에 기댄 '철수 처'(6.9%)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각각 8.6%와 2.9%)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의 경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돈처녀'(77.4%)가 대부분이며, 그 뒤를 이어 '사돈아가씨'(14.8%), 조카 이름에 기댄 '민규 이모'(4.7%)이다. '사돈'(1.6%), 당사자 이름을 부르는 '영희 씨'(1.2%), 직장의 직위에 기댄 '김 과장'(0.3%)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사돈	5 1.8%	7 1.5%	3 1.8%	9 2.5%	6 1.0%	15 1.6%
사돈처녀	209 74.9%	387 81.0%	122 71.3%	254 71.8%	464 80.8%	718 77.4%
사돈아가씨	44 15.8%	58 12.1%	35 20.5%	69 19.5%	68 11.8%	137 14.8%
김 과장(직위명)	1 .4%	2 .4%	0 .0%	1 .3%	2 .3%	3 .3%
영희 씨	6 2.2%	3 .6%	2 1.2%	3 .8%	8 1.4%	11 1.2%
민규 이모 (조카 이름)	14 5.0%	21 4.4%	9 5.3%	18 5.1%	26 4.5%	44 4.7%
합계	279 100.0 %	478 100.0%	171 100.0%	354 100.0 %	574 100.0 %	928 100.0 %

<표 20>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1>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로 살펴보면, 20대, 30-40대, 50대 이상 대부분이 ‘사돈처녀’나 ‘사돈아가씨’로 부르고 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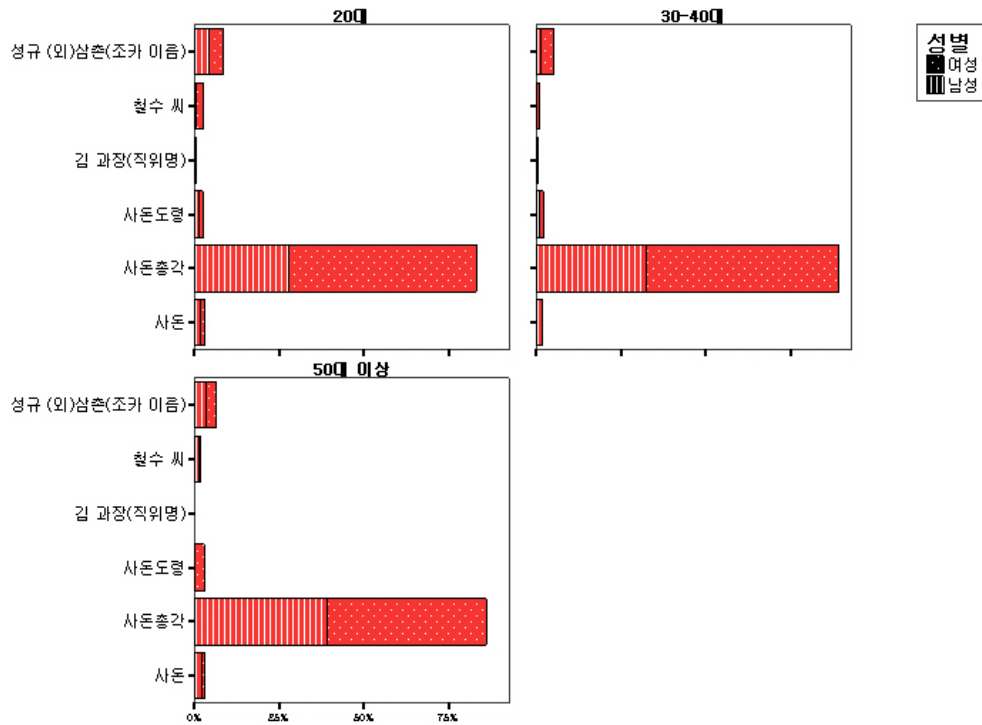
반면 성별로 비교해 보면, ‘사돈처녀’는 여성(80.8%)이 남성(71.8%)보다 약 10% 높았으며, ‘사돈아가씨’는 남성(19.5%)이 여성(11.8%)보다 약 8%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는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돈총각’(86.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조카 이름에 기댄 ‘성규(외)삼촌’(6.5%)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뒤를 이은 ‘사돈’(2.4%), ‘사돈도령’(2.4%), 당사자 이름을 부르는 ‘철수 씨’(1.5%), 직장의 직위에 기댄 ‘김 과장’(0.4%)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사돈	8 2.9%	9 1.9%	5 2.9%	17 4.8%	5 .9%	22 2.4%
사돈총각	233 83.2%	424 89.3%	148 86.0%	299 84.2%	506 88.5%	805 86.8%
사돈도령	7 2.5%	10 2.1%	5 2.9%	8 2.3%	14 2.4%	22 2.4%
김 과장(직위명)	1 .4%	3 .6%	0 .0%	2 .6%	2 .3%	4 .4%
철수 씨	7 2.5%	4 .8%	3 1.7%	4 1.1%	10 1.7%	14 1.5%
성규 (외)삼촌 (조카 이름)	24 8.6%	25 5.3%	11 6.4%	25 7.0%	35 6.1%	60 6.5%
합계	280 100.0 %	475 100.0%	172 100.0%	355 100.0 %	572 100.0 %	927 100.0 %

<표 21>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2>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이 경우 역시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돈총각’으로 부르고 있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로 비교해 보면, ‘사돈총각’은 여성(88.5%)이 남성(84.2%)보다 약 5% 높았으며, 남성(4.8%)은 여성(0.9%)에 비해 ‘사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성별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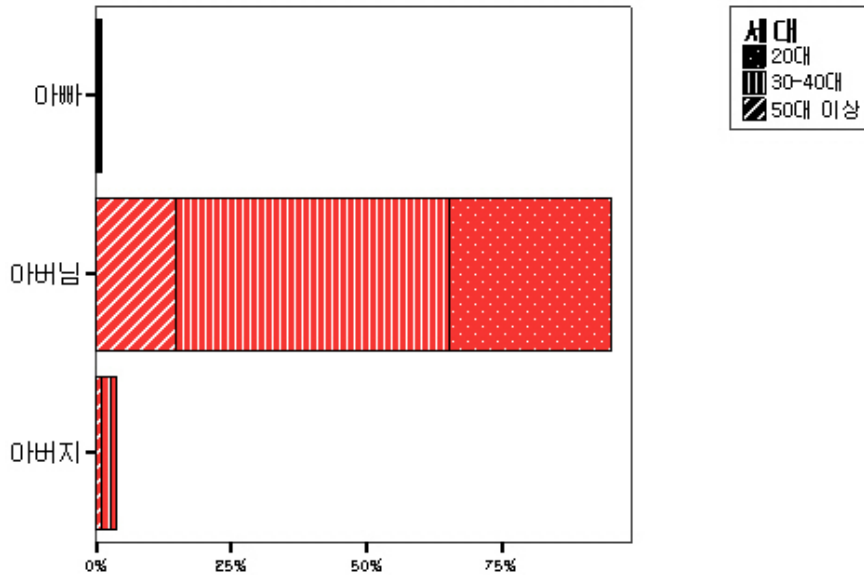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 여자]

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95.1%)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이 ‘아버지’(3.8%)라고 불렀고, 소수이긴 하지만 ‘아빠’(1.0%)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아버지	6 3.4%	10 3.3%	6 6.5%	22 3.8%
아버님	171 95.5%	291 95.7%	85 92.4%	547 95.1%
아빠	2 1.1%	3 1.0%	1 1.1%	6 1.0%
합계	179 100.0%	304 100.0%	92 100.0%	575 100.0%

<표 22>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3>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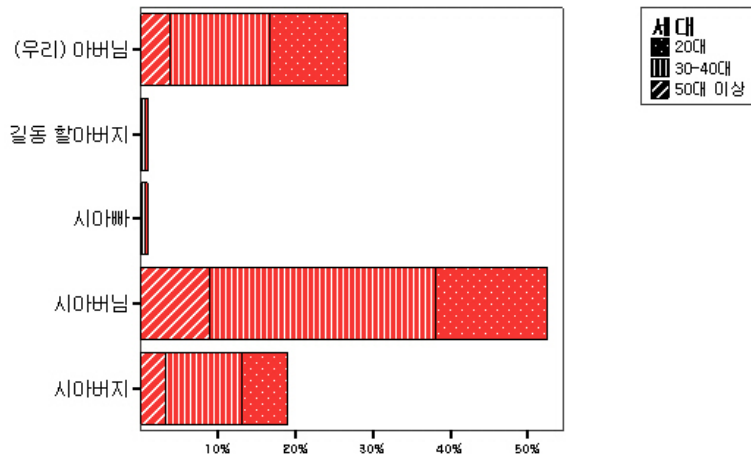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약 95% 정도가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가리키는 경우, ‘시아버님’(52.5%)이 과반수이나 ‘(우리) 아버님’(26.8%)과 ‘시아버지’(19.0%)도 상당한 비율을 보였다. 그밖에 ‘시아빠’(0.9%)와 ‘길동 할아버지’(0.9%)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시아버지	34 19.0%	57 18.8%	18 19.6%	109 19.0%
시아버님	83 46.4%	168 55.3%	51 55.4%	302 52.5%
시아빠	2 1.1%	2 .7%	1 1.1%	5 .9%
길동 할아버지	2 1.1%	2 .7%	1 1.1%	5 .9%
(우리) 아버님	58 32.4%	75 24.7%	21 22.8%	154 26.8%
합계	179 100.0%	304 100.0%	92 100.0%	575 100.0%

<표 23>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4>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약 50% 정도는 ‘시아버님’으로, 그리고 약 20% 정도는 ‘시아버지’로 지칭하고 있었다. 다만, 20대(32.4%)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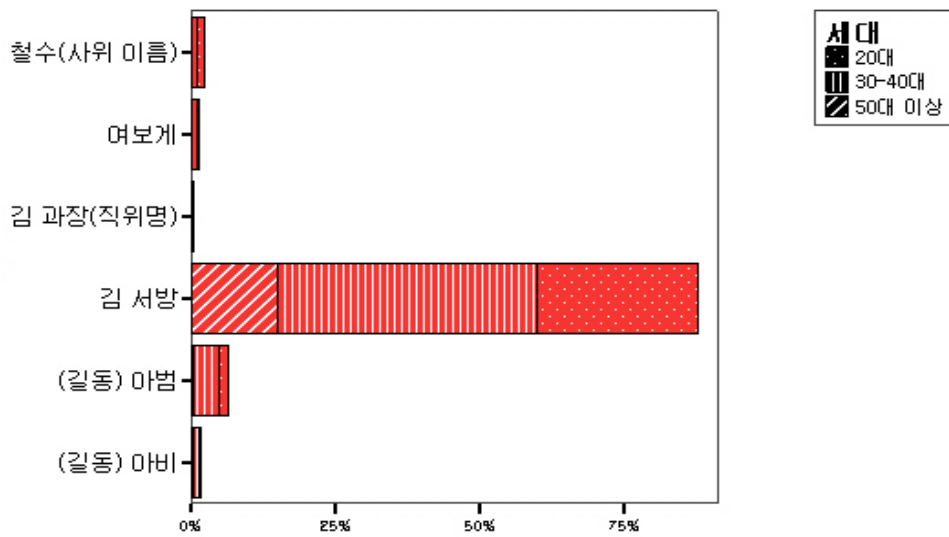
우, 다른 세대보다 ‘(우리)아버님’으로 지칭하는 비율이 약 10%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장모가 사위를 부르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서방’(87.7%)이 대부분이었다. 그 뒤를 이어 ‘(길동) 아범’(6.5%),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철수’(2.3%), ‘(길동) 아버지’(1.8%), ‘여보게’(1.4%), 직장의 직위에 기댄 ‘김 과장’(0.4%)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길동) 아버지	2 1.1%	6 2.0%	2 2.2%	10 1.8%
(길동) 아범	9 5.0%	25 8.4%	3 3.3%	37 6.5%
김 서방	158 88.3%	256 85.9%	85 92.4%	499 87.7%
김 과장(직위명)	1 .6%	1 .3%	0 .0%	2 .4%
여보게	2 1.1%	5 1.7%	1 1.1%	8 1.4%
철수(사위 이름)	7 3.9%	5 1.7%	1 1.1%	13 2.3%
합계	179 100.0%	298 100.0%	92 100.0%	569 100.0%

<표 24>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5>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85% 이상이 ‘김 서방’으로 부른다고 하였으나,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사위를 부르는 말이 세대와 지방의 차이가 크며,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반면에,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 서방’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위 이름을 부르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김 서방’으로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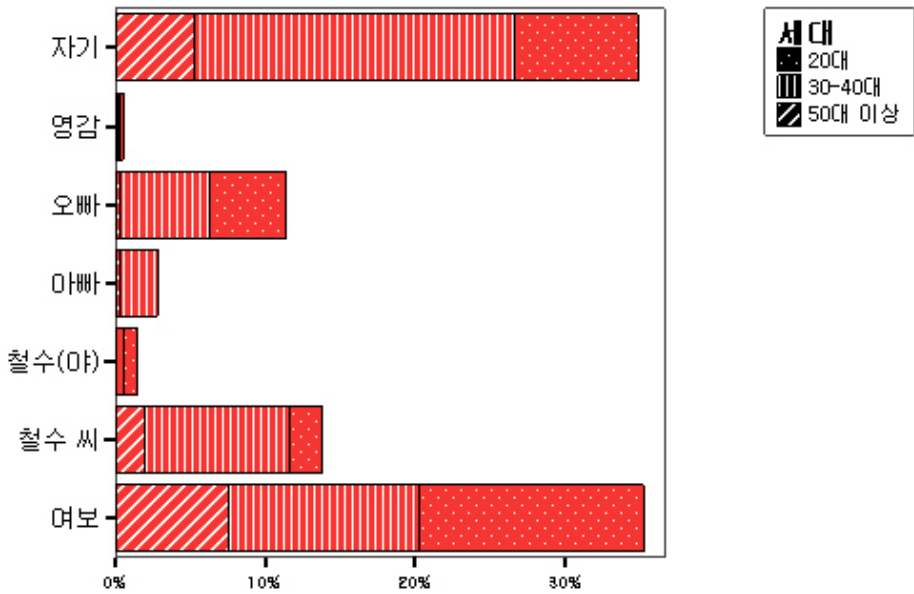
라.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

자녀가 아직 없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보’(35.2%)와 ‘자기’(34.9%)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남편의 이름에 ‘씨’를 붙인 ‘철수 씨’(13.8%), 결혼하기 전에 부르던 호칭인 ‘오빠’(11.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이름을 생략한 ‘아빠’(2.8%)와 남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철수(야)’(1.4%), ‘영감’(0.5%)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여보	85	73	43	201

	47.2%	24.2%	48.3%	35.2%
철수 씨	13 7.2%	55 18.2%	11 12.4%	79 13.8%
철수(야)	5 2.8%	3 1.0%	0 .0%	8 1.4%
아빠	0 .0%	14 4.6%	2 2.2%	16 2.8%
오빠	29 16.1%	34 11.3%	2 2.2%	65 11.4%
영감	1 .6%	1 .3%	1 1.1%	3 .5%
자기	47 26.1%	122 40.4%	30 33.7%	199 34.9%
합계	180 100.0%	302 100.0%	89 100.0%	571 100.0%

<표 25>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6>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여보’(47.2%), ‘자기’(26.1%), ‘오빠’(16.1%), ‘철수 씨’(7.2%) 순으로, 30-40대는 ‘자기’(40.4%), ‘여보’(24.2%), ‘철수 씨’(18.2%), ‘오빠’(11.3%) 순으로, 50대 이상은 ‘여보’(48.3%), ‘자기’(33.7%), ‘철수 씨’(12.4%) 순으로 호칭의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하여 ‘형’, ‘오빠’, ‘아저씨’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아 결코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씨’의 ‘씨’ 역시 영어의 미스터를 번역한 느낌을 주며, 부부 간의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인 인상을 주기에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역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빠’와 ‘철수 씨’도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때로 쓸 수 있다고 한 ‘영감’이라는 호칭은 <2009년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50대 이상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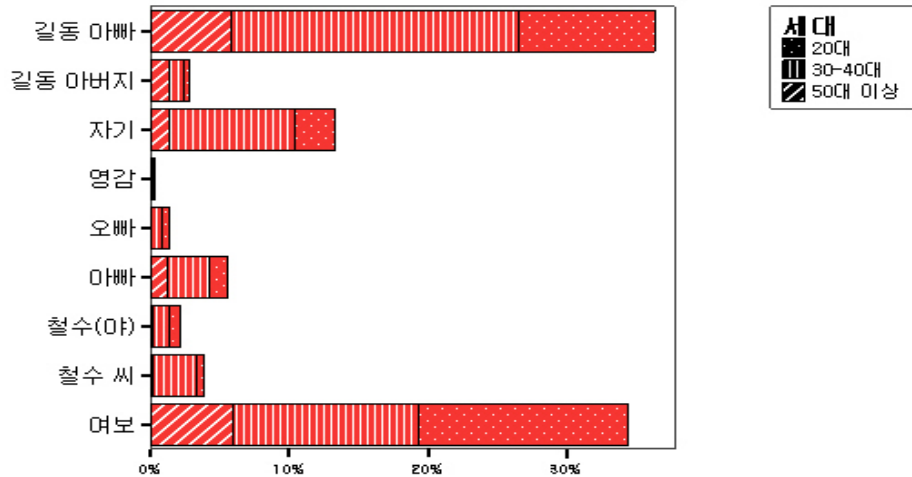
마.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달리 ‘길동 아빠’(36.3)가 ‘여보’(3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자기’(13.3%), ‘아빠’(5.6%), ‘철수 씨’(3.8%), ‘길동 아버지’(2.8%) 등이며, 나머지 ‘철수(야)’, ‘오빠’, ‘영감’ 등은 미미한 수준(모두 2% 이하)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여보	86 48.0%	77 25.5%	34 37.0%	197 34.4%
철수 씨	3 1.7%	18 6.0%	1 1.1%	22 3.8%
철수(야)	4 2.2%	7 2.3%	1 1.1%	12 2.1%
아빠	8 4.5%	17 5.6%	7 7.6%	32 5.6%
오빠	3 1.7%	5 1.7%	0 .0%	8 1.4%
영감	1 .6%	1 .3%	0 .0%	2 .3%
자기	16 8.9%	52 17.2%	8 8.7%	76 13.3%
길동 아버지	2 1.1%	6 2.0%	8 8.7%	16 2.8%
길동 아빠	56	119	33	208

	31.3%	39.4%	35.9%	36.3%
합계	179 100.0%	302 100.0%	92 100.0%	573 100.0%

<표 26>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7>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여보’(48.0%), ‘길동 아빠’(31.3%), ‘자기’(8.9%) 순이었다. 그리고 30-40대는 ‘길동 아빠’(39.4%), ‘여보’(25.5%), ‘자기’(17.2%) 순이었으며, 50대 이상은 ‘여보’(37.0%), ‘길동 아빠’(35.9%), ‘자기’(8.7%)와 ‘길동 아버지’(8.7%) 순으로 호칭의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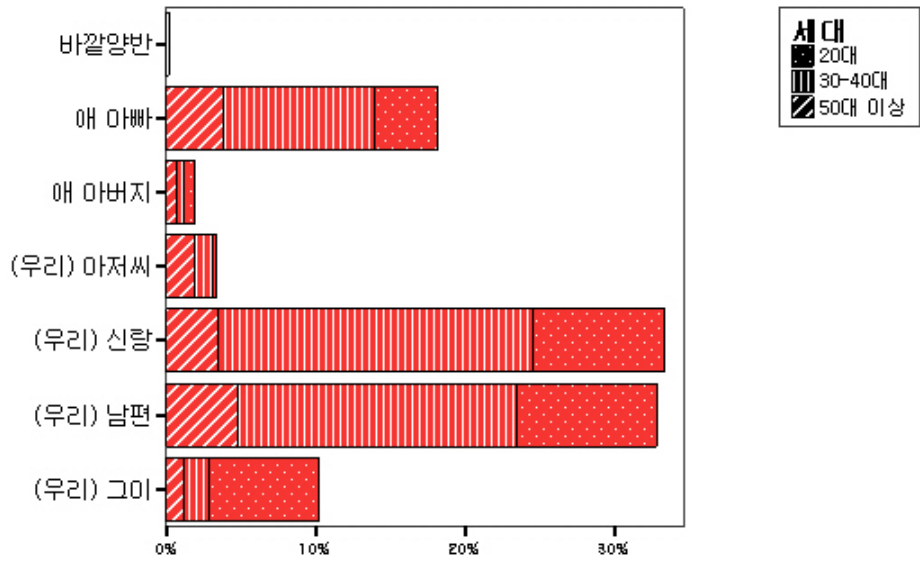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보’라고 남편을 부르고 또 아이에게 기대어 ‘○○ 아버지’, ‘○○ 아빠’라고 하는 경향은 <2009년 통계 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을 ‘자기’라고 하는 경우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 비율(13.3%)이 높은 편이다.

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가리키는 말을 살펴보면, ‘(우리)신랑’(33.3%)과 ‘(우리)남편’(32.8%)이 대등하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애 아빠’(18.2%), ‘(우리)그이’(10.2%), ‘(우리)아저씨’(3.4%) 순으로 나타났다. ‘애 아버지’(1.9%)와 ‘바깥양반’(0.2%)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우리) 그이	42 24.1%	9 3.0%	7 7.7%	58 10.2%
(우리) 남편	53 30.5%	106 35.1%	27 29.7%	186 32.8%
(우리) 신랑	50 28.7%	119 39.4%	20 22.0%	189 33.3%
(우리) 아저씨	1 .6%	7 2.3%	11 12.1%	19 3.4%
애 아버지	4 2.3%	3 1.0%	4 4.4%	11 1.9%
애 아빠	24 13.8%	57 18.9%	22 24.2%	103 18.2%
바깥양반	0 .0%	1 .3%	0 .0%	1 .2%
합계	174 100.0%	302 100.0%	91 100.0%	567 100.0%

<표 27>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8>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우리) 남편’(30.5%), ‘(우리) 신랑’(28.7%), ‘(우리) 그이’(24.1%), ‘애 아빠’(13.8%) 순이었다. 그리고 30-40대는 ‘(우리) 신

랑’(39.4%), ‘(우리) 남편’(35.1%), ‘애 아빠’(18.9%) 순이었으며, 50대 이상은 ‘(우리) 남편’(29.7%), ‘애 아빠’(24.2%), ‘(우리) 신랑’(22.0%) 순으로 지칭의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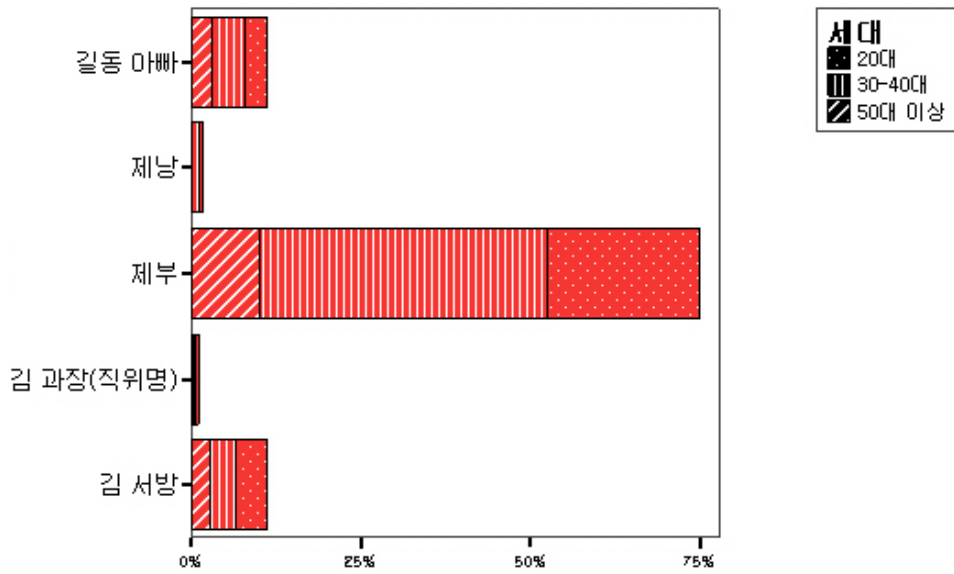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남편의 친구들이나 서로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가능하다고 한 ‘바깥양반’은,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50대 이상에서조차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사.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여동생의 남편의 경우, ‘제부’(74.8%)가 대부분이며, ‘김 서방’(11.2%)과 자녀의 이름에 기댄 ‘길동 아빠’(11.2%)가 동등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제낭’(1.8%)과 직장의 직위에 기댄 ‘김 과장’(1.1%)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김 서방	26 14.9%	22 7.4%	15 16.5%	63 11.2%
김 과장(직위명)	2 1.1%	2 .7%	2 2.2%	6 1.1%
제부	126 72.0%	239 80.5%	56 61.5%	421 74.8%
제낭	3 1.7%	6 2.0%	1 1.1%	10 1.8%
길동 아빠	18 10.3%	28 9.4%	17 18.7%	63 11.2%
합계	175 100.0%	297 100.0%	91 100.0%	563 100.0%

<표 28>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29>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로 살펴보면, 20대는 ‘제부’(72.0%), ‘김 서방’(14.9%), ‘길동 아빠’(10.3%) 순으로, 30-40대는 ‘제부’(80.5%), ‘길동 아빠’(9.4%), ‘김 서방’(7.4%) 순으로, 50대 이상은 ‘제부’(61.5%), ‘길동 아빠’(18.7%), ‘김 서방’(16.5%) 순으로 호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서방’, ‘○○ 서방님’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2009 통계 자료>에서는 ‘제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길동 아빠’와 같이 자녀에 기대어 부르는 비율도 2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남’은 전 세대에 걸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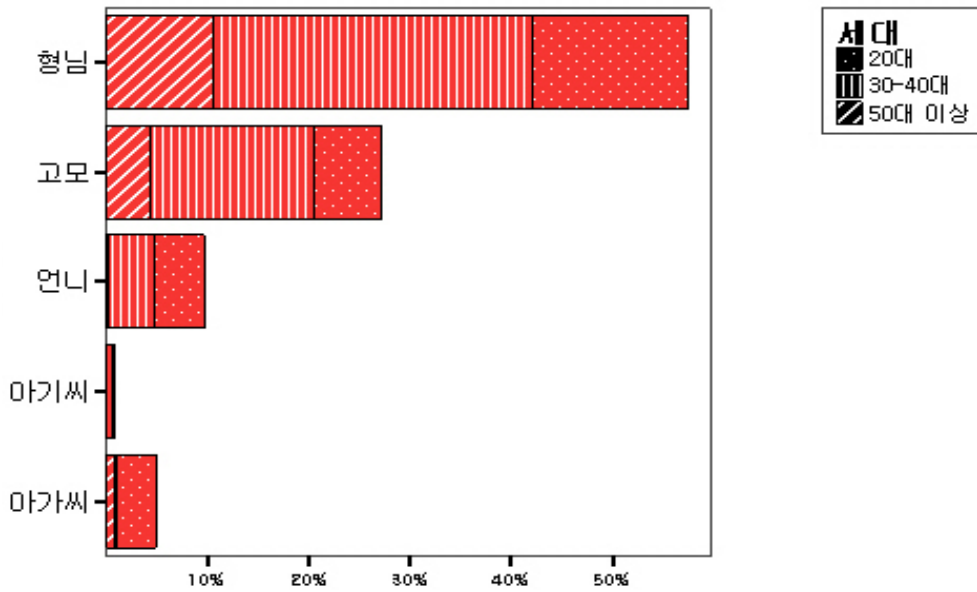
아.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는 ‘형님’(57.4%)이 과반수였으며, ‘고모’(27.1%)와 ‘언니’(9.6%), ‘아가씨’(4.9%)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씨’(0.9%)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대별	합계
-----	----

	20대	30-40대	50대 이상	
아가씨	22 12.4%	1 .3%	5 5.5%	28 4.9%
아기씨	2 1.1%	3 1.0%	0 .0%	5 .9%
언니	28 15.7%	26 8.6%	1 1.1%	55 9.6%
고모	38 21.3%	92 30.5%	25 27.5%	155 27.1%
형님	88 49.4%	180 59.6%	60 65.9%	328 57.4%
합계	178 100.0%	302 100.0%	91 100.0%	571 100.0%

<표 29>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0>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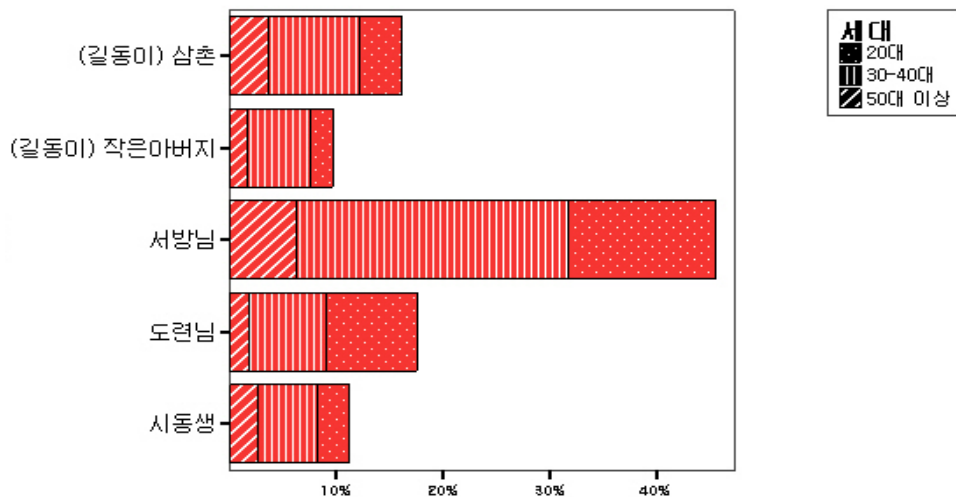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형님', '고모' 등이 주된 호칭이나, '아가씨'의 경우, 20대(12.4%)가 30-40대(0.3%)와 50대 이상(5.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 특이하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가리키는 경우, ‘서방님’(45.5%)이 과반수 정도였으며, ‘도련님’(17.5%)과 당사자 이름에 기댄 ‘(길동이)삼촌’(16.1%)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시동생’(11.2%)과 ‘(길동이)작은 아버지’(9.6%)가 그 뒤를 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시동생	17 9.5%	32 10.6%	15 16.5%	64 11.2%
도련님	48 26.8%	42 14.0%	10 11.0%	100 17.5%
서방님	79 44.1%	145 48.2%	36 39.6%	260 45.5%
(길동이) 작은 아버지	12 6.7%	34 11.3%	9 9.9%	55 9.6%
(길동이) 삼촌	23 12.8%	48 15.9%	21 23.1%	92 16.1%
합계	179 100.0%	301 100.0%	91 100.0%	571 100.0%

<표 30>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1>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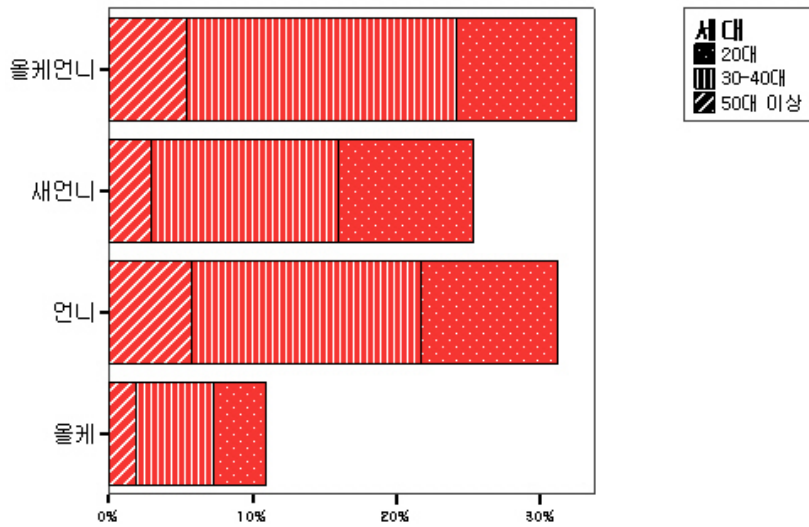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서방님’, ‘(길동이) 삼촌’, ‘도련님’이 주된 지칭어나, ‘시동생’의 경우, 50대 이상(16.5%)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 특이하다.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오빠의 아내는 ‘올케언니’(32.5%), ‘언니’(31.3%), ‘새언니’(25.3%)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며, ‘올케’(10.9%)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올케	21 11.8%	31 10.1%	11 12.0%	63 10.9%
언니	55 30.9%	92 30.1%	33 35.9%	180 31.3%
새언니	54 30.3%	75 24.5%	17 18.5%	146 25.3%
올케언니	48 27.0%	108 35.3%	31 33.7%	187 32.5%
합계	178 100.0%	306 100.0%	92 100.0%	576 100.0%

<표 31>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2>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올케언니’(32.5%), ‘언니’(31.3%), ‘새언니’(25.3%)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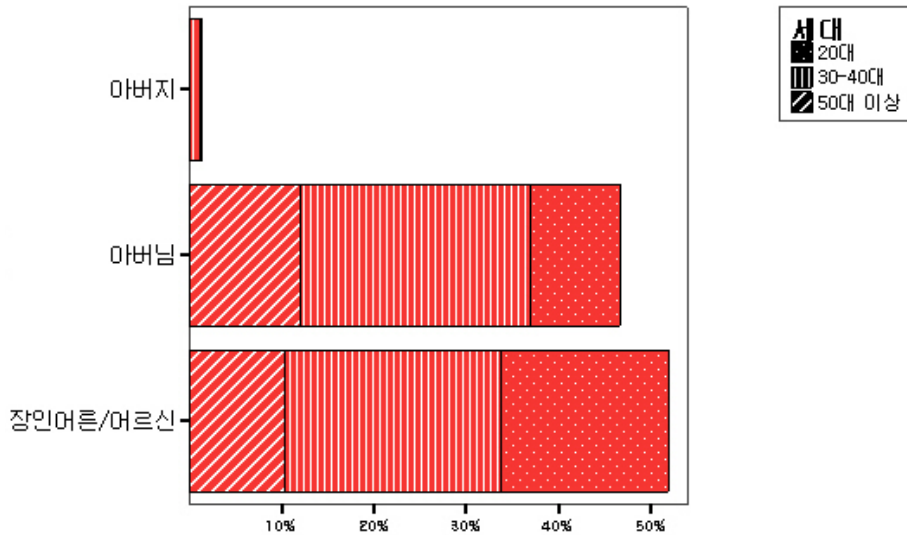
가.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사위가 장인을 부르는 경우, ‘장인어른/어르신’(52%), ‘아버님’(46.6%)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이긴 하지만 ‘아버지’(1.4%)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장인어른/어르신	65 64.4%	84 47.5%	37 46.3%	186 52.0%
아버님	35 34.7%	89 50.3%	43 53.8%	167 46.6%

아버지	1 1.0%	4 2.3%	0 .0%	5 1.4%
합계	101 100.0%	177 100.0%	80 100.0%	358 100.0%

<표 32>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3>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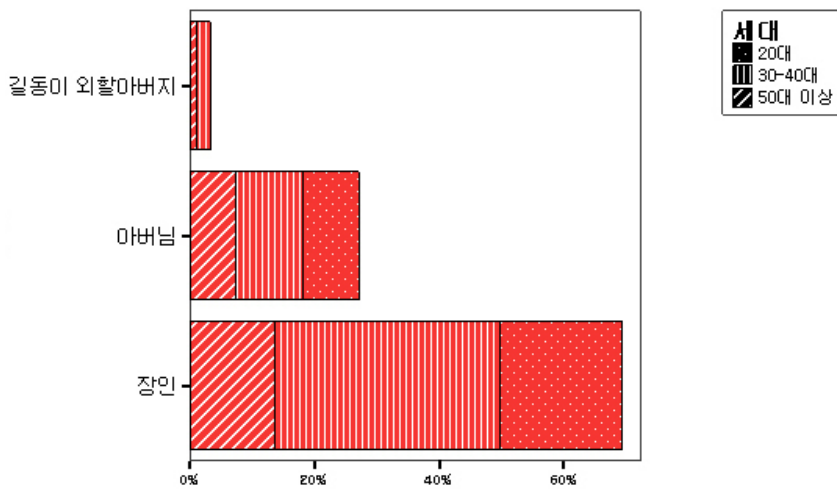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장인어른/어르신'(64.4%), '아버님'(34.7%) 순이나, 30-40대와 50대 이상은 '아버님', '장인어른/어르신' 순으로 그 호칭의 비율이 역전된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사위가 장인을 가리킬 때는 '장인'(69.5%)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버님'(27.2%)이라고 지칭하거나 '길동이 외할아버지'(3.4%)처럼 아들 이름을 넣어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장인	70 68.6%	129 73.3%	49 62.0%	248 69.5%
아버님	32 31.4%	39 22.2%	26 32.9%	97 27.2%
길동이 외할아버지	0 .0%	8 4.5%	4 5.1%	12 3.4%
합계	102 100.0%	176 100.0%	79 100.0%	357 100.0%

<표 33>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4>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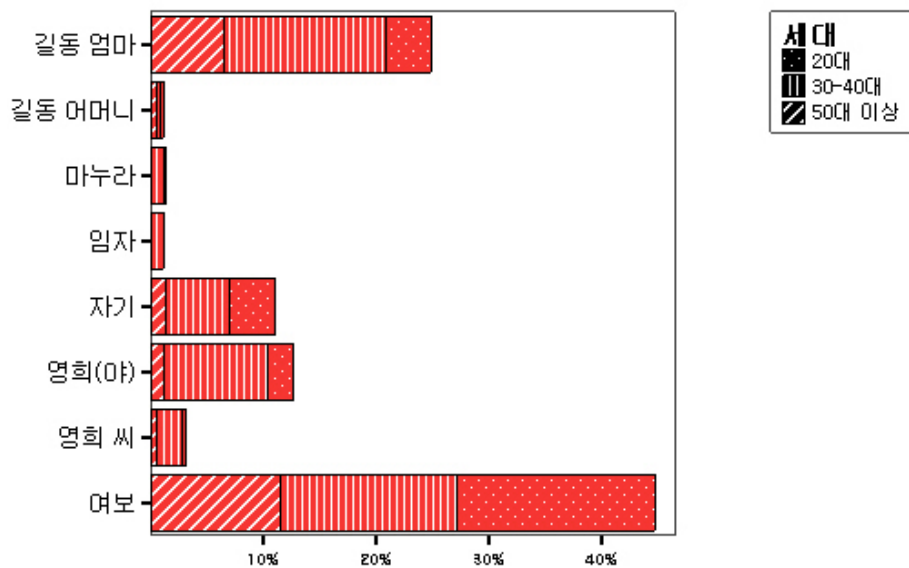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장인'(평균 70%), '아버님'(평균 27.2%) 비율로,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내에 대한 호칭은 다음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여보'(44.6%)가 과반수 정도였으며, 자녀의 이름에 기댄 '길동 엄마'(24.9%), 아내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영희(야)'(12.7%), '자기'(11.0%)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희 씨'(3.1%), '마누라'(1.4%), '임자'(1.1%), '길동 어머니'(1.1%)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여보	62 61.4%	55 31.3%	41 53.2%	158 44.6%
영희 씨	1 1.0%	8 4.5%	2 2.6%	11 3.1%
영희(야)	8 7.9%	33 18.8%	4 5.2%	45 12.7%
자기	14 13.9%	20 11.4%	5 6.5%	39 11.0%
임자	0 .0%	4 2.3%	0 .0%	4 1.1%
마누라	1 1.0%	4 2.3%	0 .0%	5 1.4%
길동 어머니	1 1.0%	1 .6%	2 2.6%	4 1.1%
길동 엄마	14 13.9%	51 29.0%	23 29.9%	88 24.9%
합계	101 100.0%	176 100.0%	77 100.0%	354 100.0%

<표 34>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5>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여보’(평균 44.6%), ‘길동 엄마’(평균 24.9%)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영희(야)’(평균 12.7%), ‘자기’(평균 11.0%) 등으로 부르는 비율도 상당하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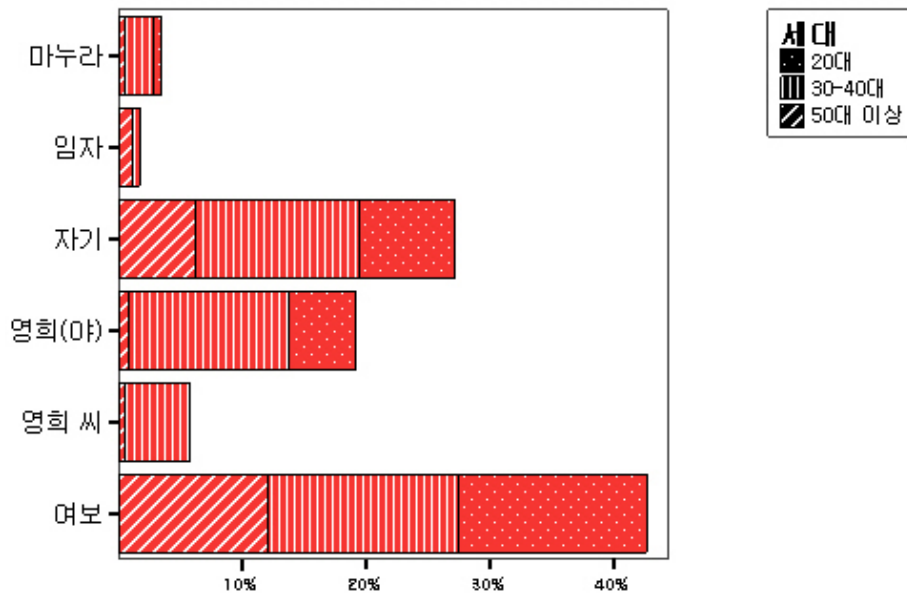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보’, ‘○○ 엄마’, ‘○○ 어머니’, ‘임자’, ‘○○ 할머니’ 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내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영희 씨’(평균 3.1%)와 ‘영희(야)’(평균 12.7%)처럼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합치면 15% 정도 된다.

라.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아직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보’(42.7%)가 과반수 정도이며, ‘자기’(27.2%)가 그 뒤를 이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영희(야)’(19.2%)와 ‘영희 씨’(5.7%)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마누라’(3.4%)와 ‘임자’(1.7%)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여보	53 52.5%	54 31.2%	42 56.0%	149 42.7%
영희 씨	0 .0%	18 10.4%	2 2.7%	20 5.7%
영희(야)	19 18.8%	45 26.0%	3 4.0%	67 19.2%
자기	27 26.7%	46 26.6%	22 29.3%	95 27.2%
임자	0 .0%	2 1.2%	4 5.3%	6 1.7%
마누라	2 2.0%	8 4.6%	2 2.7%	12 3.4%
합계	101 100.0%	173 100.0%	75 100.0%	349 100.0%

<표 35>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6>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여보’(평균 42.7%), ‘자기’(평균 27.2%), ‘영희(야)’(19.2%) 순으로 호칭의 비율을 나타냈다. ‘임자’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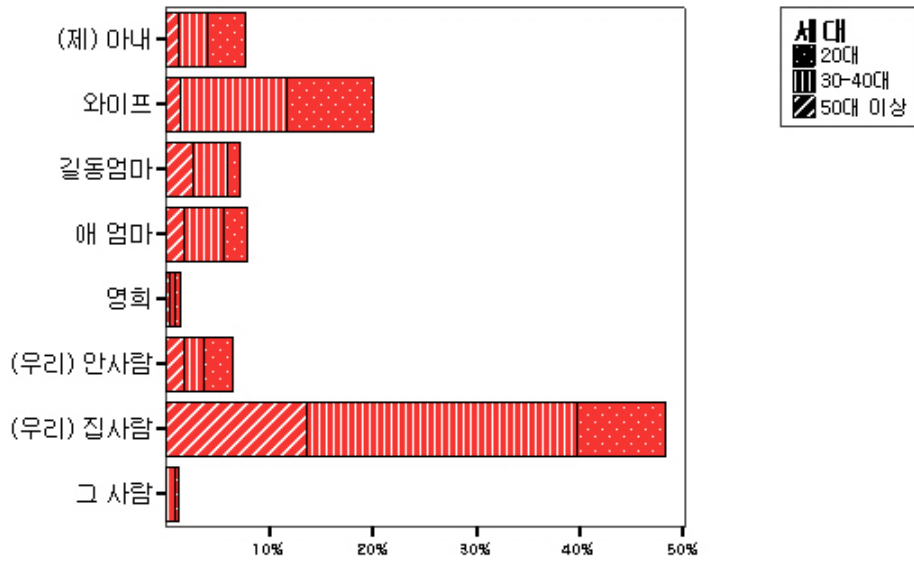
은 호칭은 다른 세대와는 달리 50대 이상(5.3%)에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집사람’(48.3%)이 과반수 정도였으며, 그 다음은 외국어인 ‘와이프’(20.1%) 순이었다. ‘애 엄마’(7.9%), ‘(제) 아내’(7.6%), 자녀의 이름에 기댄 ‘길동 엄마’(7.1%)가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 안사람’(6.5%)을 제외한 나머지 ‘영희’와 ‘그 사람’은 미미한 수준(1% 정도)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그 사람	1 1.0%	3 1.7%	0 .0%	4 1.1%
(우리) 집사람	30 30.6%	93 52.5%	48 60.8%	171 48.3%
(우리) 안사람	10 10.2%	7 4.0%	6 7.6%	23 6.5%
영희	2 2.0%	2 1.1%	1 1.3%	5 1.4%
애 엄마	8 8.2%	14 7.9%	6 7.6%	28 7.9%
길동엄마	4 4.1%	12 6.8%	9 11.4%	25 7.1%
와이프	30 30.6%	36 20.3%	5 6.3%	71 20.1%
(제)아내	13 13.3%	10 5.6%	4 5.1%	27 7.6%
합계	98 100.0%	177 100.0%	79 100.0%	354 100.0%

<표 36>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7>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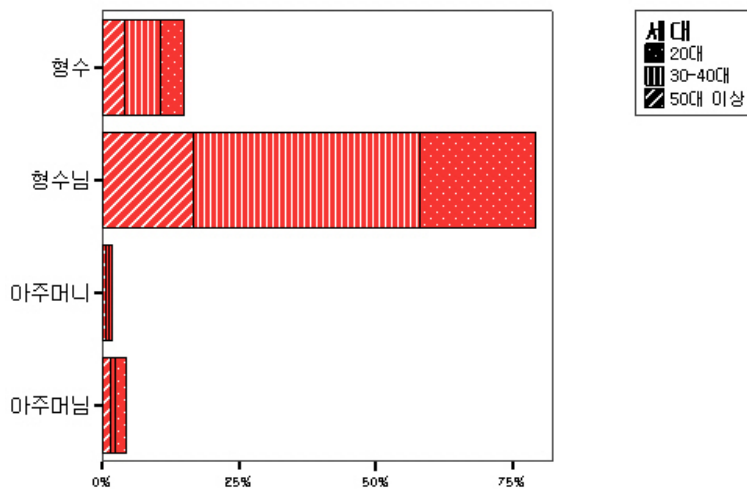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우리) 집사람’과 ‘와이프’(모두 30.6%), ‘(제) 아내’(13.3%), ‘(우리) 안사람’(10.2%), ‘애 엄마’(8.2%) 순으로, 30-40대는 ‘(우리) 집사람’(52.5%), ‘와이프’(20.3%), ‘애 엄마’(7.9%) 순으로, 50대 이상은 ‘(우리) 집사람’(60.8%), ‘길동 엄마’(11.4%), ‘(우리) 안사람’과 ‘애 엄마’(모두 7.6%) 순으로 세대 간 지칭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wife)’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2009년 통계 자료>에도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와이프(wife)’의 경우, 20대의 경우 ‘(우리) 집사람’과 동일한 비율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30-40대의 경우도 ‘와이프’로 지칭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하였다.

바.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형의 아내를 부르는 경우, ‘형수님’(79.1%)이 대부분이고, ‘형수’(14.9%)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주머님’(4.3%), ‘아주머니’(1.7%)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사용되고 있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아주머님	7 7.1%	3 1.7%	5 6.3%	15 4.3%
아주머니	2 2.0%	2 1.2%	2 2.5%	6 1.7%
형수님	74 75.5%	145 83.8%	58 73.4%	277 79.1%
형수	15 15.3%	23 13.3%	14 17.7%	52 14.9%
합계	98 100.0%	173 100.0%	79 100.0%	350 100.0%

<표 37> '형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8> '형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형수님'(평균 약 80%), '형수'(평균 약 15%) 순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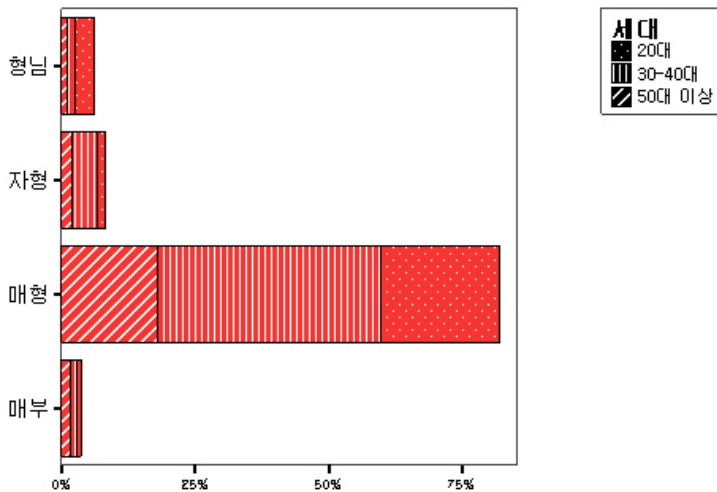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아주머님', '아주머니'가 전통적인 호칭이고, 그 당시 많이 쓰이는 '형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제는 '형수님'과 '형수'가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머님', '아주머니'는 미미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누나 남편의 호칭은 ‘매형’(82.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자형’(8.1%), ‘형님’(6.1%), ‘매부’(3.6%)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매부	3 3.0%	4 2.3%	6 7.4%	13 3.6%
매형	80 79.2%	150 85.2%	64 79.0%	294 82.1%
자형	5 5.0%	17 9.7%	7 8.6%	29 8.1%
형님	13 12.9%	5 2.8%	4 4.9%	22 6.1%
합계	101 100.0%	176 100.0%	81 100.0%	358 100.0%

<표 38>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9>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매형’(79.2%), ‘형님’(12.9%), ‘자형’(5.0%) 순으로, 30~40대는 ‘매형’(85.2%), ‘자형’(9.7%), ‘형님’(2.8%) 순으로, 50대 이상은 ‘매형’(79.0%), ‘자형’(8.6%), ‘형님’(4.9%) 순으로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일찍부터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

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는 ‘매부’가 대세이고, ‘매형’과 ‘자형’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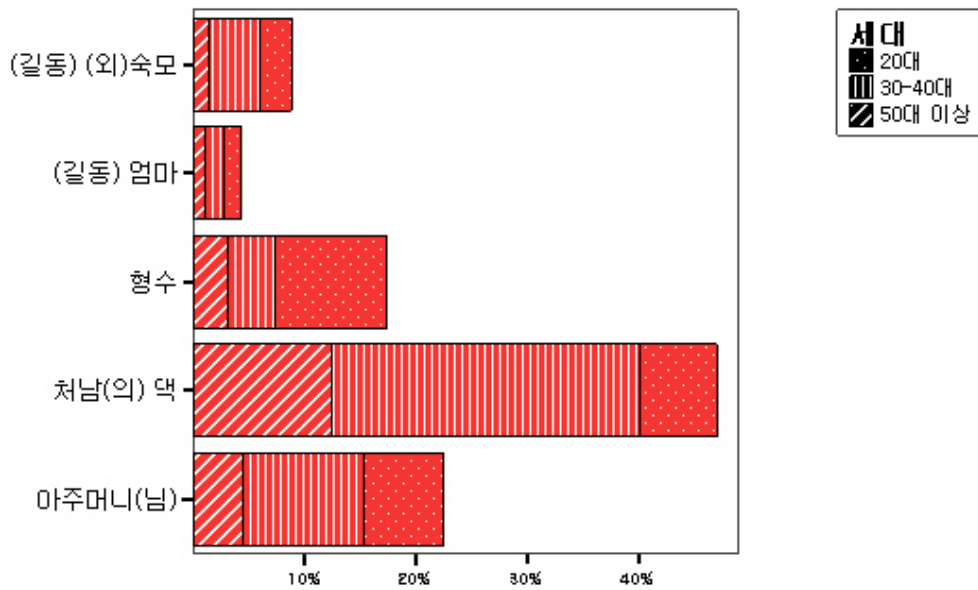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부’보다는 ‘매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형님’으로 호칭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형’이라는 호칭은 20대에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아.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

아내 오빠의 부인도 이제 명절에 자주 만나게 되니 다양한 호칭이 생겨났다. 그 중 ‘처남의 댁’(47.0%)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주머니(님)’(22.5%)과 ‘형수’(17.4%)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의 이름에 기댄 ‘(길동) (외)숙모’(8.8%)와 ‘(길동) 엄마’(4.3%)가 그 뒤를 이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아주머니(님)	25 25.3%	38 22.1%	16 20.0%	79 22.5%
처남(의) 댁	24 24.2%	97 56.4%	44 55.0%	165 47.0%
형수	35 35.4%	15 8.7%	11 13.8%	61 17.4%
(길동) 엄마	5 5.1%	6 3.5%	4 5.0%	15 4.3%
(길동) (외)숙모	10 10.1%	16 9.3%	5 6.3%	31 8.8%
합계	99 100.0%	172 100.0%	80 100.0%	351 100.0%

<표 39>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0>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형수’(35.4%), ‘아주머니(님)’(25.3%), ‘처남(의) 댁’(24.2%) 순으로, 30~40대는 ‘처남(의) 댁’(56.4%), ‘아주머니(님)’(22.1%), ‘(길동) (외)숙모’(9.3%) 순으로, 50대 이상은 ‘처남(의) 댁’(55.0%), ‘아주머니(님)’(20.0%), ‘형수’(13.8%) 순이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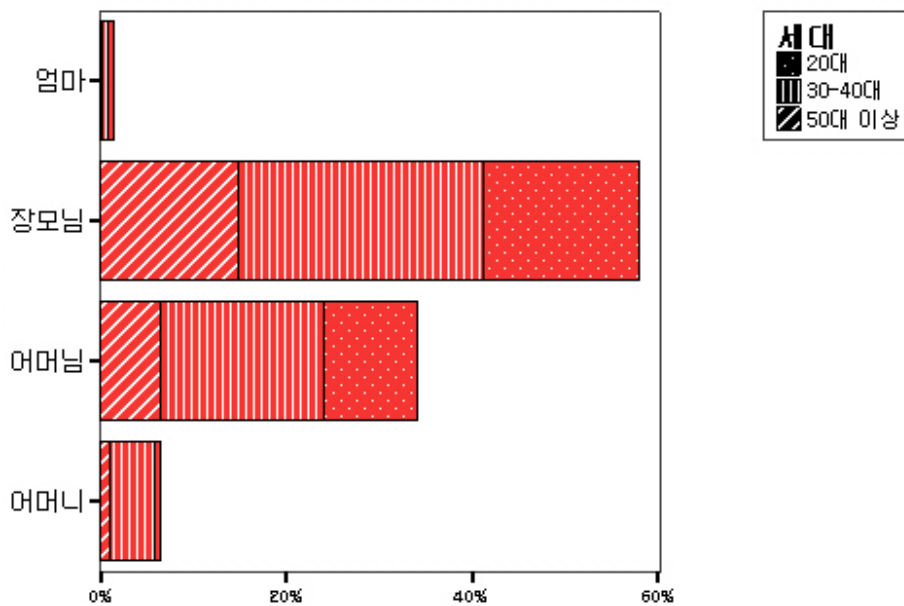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많은 고민을 거친 뒤, 순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아주머니’로 정하고, 손아래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처남의 댁’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형수’가 20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높은 비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장모를 부를 때

장모를 부르는 경우, ‘장모님’(58%)이 대부분이었고, ‘어머님’(34.2%)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6.4%)라고 부르는 경우와 소수이긴 하지만 ‘엄마’(1.4%)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세대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어머니	2 2.0%	17 9.7%	4 4.9%	23 6.4%
어머님	36 36.0%	63 35.8%	23 28.4%	122 34.2%
장모님	60 60.0%	94 53.4%	53 65.4%	207 58.0%
엄마	2 2.0%	2 1.1%	1 1.2%	5 1.4%
합계	100 100.0%	176 100.0%	81 100.0%	357 100.0%

<표 40> '장모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1> '장모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장모님'(평균 58%), '어머님'(평균 34.2%), '어머니'(평균 6.4%) 순으로 부르고 있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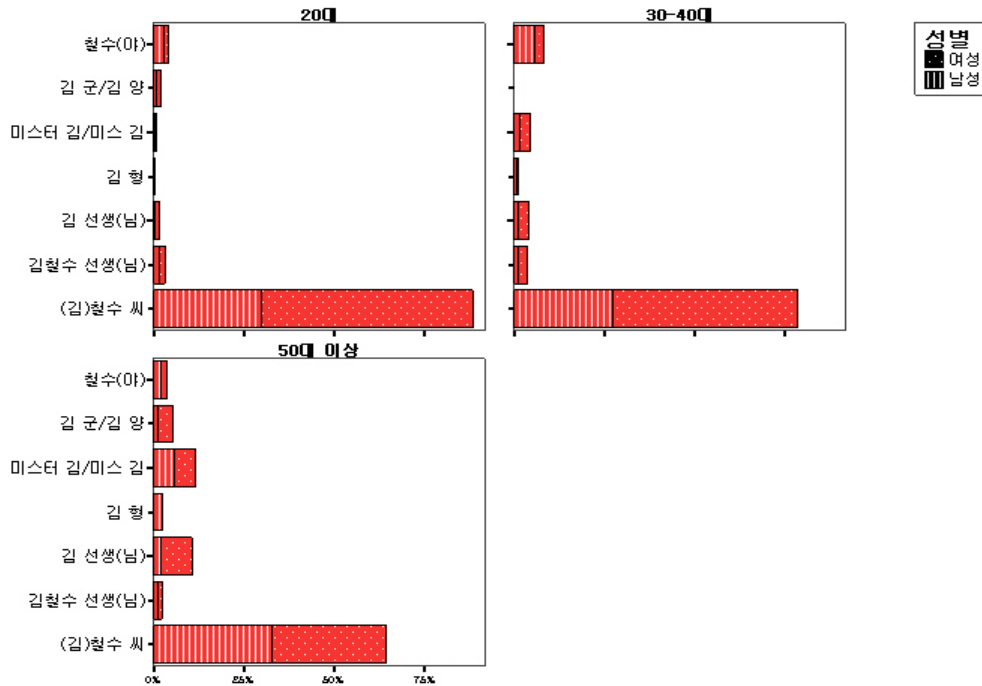
3.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가.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에는 '(김)철수 씨'와 같이 이름에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씨'를 써서 부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철수(야)'와 같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6.2%), '미스터 김/미스 김'과 같이 영어 호칭을 쓰는 경우(4.7%), '김 선생님'과 같이 성(姓)에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높여 부르는 경우(4.4%), '김철수 선생님'과 같이 성명(姓名)에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높여 부르는 경우(3.3%) 등이 뒤를 이었다.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두 가지 경우를 합하면 7.7%로 '씨'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군'이나 '양'(1.5%), '형'(1.1%)을 쓰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김)철수 씨	250 88.3%	381 78.6%	110 64.3%	273 75.4%	468 81.1%	741 78.9%
김철수 선생님(님)	9 3.2%	18 3.7%	4 2.3%	12 3.3%	19 3.3%	31 3.3%
김 선생님(님)	4 1.4%	19 3.9%	18 10.5%	9 2.5%	32 5.5%	41 4.4%
김 형	1 .4%	5 1.0%	4 2.3%	8 2.2%	2 .3%	10 1.1%
미스터 김 /미스 김	2 .7%	22 4.5%	20 11.7%	18 5.0%	26 4.5%	44 4.7%
김 군/김 양	5 1.8%	0 .0%	9 5.3%	4 1.1%	10 1.7%	14 1.5%
철수(야)	12 4.2%	40 8.2%	6 3.5%	38 10.5%	20 3.5%	58 6.2%
합계	283 100.0%	485 100.0%	171 100.0%	362 100.0%	577 100.0%	939 100.0%

<표 41>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직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2>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직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씨’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비해 (88.3%), 30-40대는 ‘씨’(78.6%) 외에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8.2%)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씨’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64.3%), ‘미스터 김/미스 김’이나(11.7%) ‘김 선생님(님)’을 쓴다고 응답한 경우(10.5%)도 적지 않아, 나이가 많을수록 호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씨’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매우 높았으나(각각 75.4%, 81.1%), 남성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10.5%에 이르는 데 비해, 여성은 3.5%에 불과해 호칭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형’과 같이 성(姓)에 ‘형’을 붙여 부르는 경우는 여성의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0.2%) 나타났다. 성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 선생님(님)’, ‘○○○ 선생님(님)’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이 외에 남자 직원에게는 ‘○ 형’할 수도 있고 나이 든 기혼의 여

자 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 여사’할 수 있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는 ‘○ 군’ 또는 ‘○ 양’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어로 ‘○○○ 씨, ○ 형, ○ 선생(님), ○(○○) 여사, ○ 군, ○ 양’을 제시하였다.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이름에 의존명사 ‘씨’를 붙여 쓰는 호칭어가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여사’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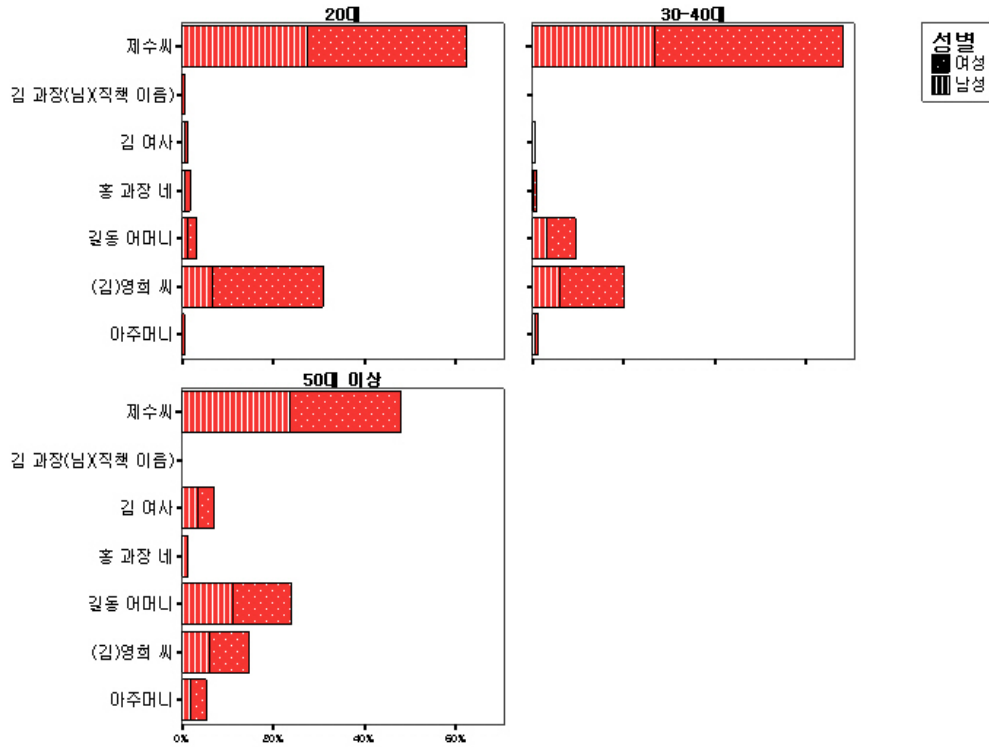
나.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제수씨’라고 부른다는 응답 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김)영희 씨’와 같이 (성)명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경우(22.3%), ‘길동 어머니’와 같이 아이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10.2%)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김 여사’와 같이 성에 ‘여사’를 붙여 부르는 경우(1.9%),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경우(1.7%), ‘홍 과장네’와 같이 남편의 성과 직함에 접사 ‘-네’를 붙여 부르는 경우(1.2%)는 비율이 매우 낮았고, ‘김 과장님’과 같이 직함을 써서 부르는 경우는(0.1%) 거의 없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길동 엄마’(30-40대, 1명)가 있었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아주머니	1 .4%	6 1.3%	9 5.3%	5 1.4%	11 1.9%	16 1.7%
(김)영희 씨	87 30.9%	96 20.0%	25 14.6%	57 15.9%	151 26.3%	208 22.3%
길동 어머니	9 3.2%	45 9.4%	41 24.0%	37 10.3%	58 10.1%	95 10.2%
홍 과장네	5 1.8%	4 .8%	2 1.2%	4 1.1%	7 1.2%	11 1.2%
김 여사	3 1.1%	3 .6%	12 7.0%	9 2.5%	9 1.6%	18 1.9%
김 과장(님) (직책 이름)	1 .4%	0 .0%	0 .0%	0 .0%	1 .2%	1 .1%
제수씨	176 62.4%	326 67.9%	82 48.0%	246 68.7%	338 58.8%	584 62.6%
합계	282 100.0	480 100.0	171 100.0%	358 100.0	575 100.0	933 100.0

	%	%	%	%	%
--	---	---	---	---	---

<표 42>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3>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제수씨’(62.4%)와 ‘(김)영희 씨’와 같이 (성)명에 ‘씨’를 붙여 쓰는 경우(30%)가 대부분이었음에 비해, 30-40대에서는 이 외에 ‘길동 어머니’와 같이 아이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도 9.4%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50대 이상에서는 ‘제수씨’의 비율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48%), 20대나 30-40대와 달리 ‘길동 어머니’를 ‘제수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쓰고(24%), 그 다음으로 ‘(김)영희 씨’(14.6%), ‘김 여사’(7.0%), ‘아주머니’(5.3%) 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 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호칭어 사용의 순위가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지만, ‘제수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68.7%) 여성의 응답비율보다(58.8%) 더 높았고, ‘(김)영희 씨’의 경우 여성의 응답 비율이(26.3%) 남성의 응답 비율보다(15.9%)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으로 선정한 ‘아주머니, (○)○○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과장(님)’을 제시하고,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 통계 자료>를 보면, <표준 화법 해설>(1992)에 없던 ‘제수씨’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점, ‘부인’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점, ‘○ 여사, ○ 과장(님)’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원래 ‘제수씨(弟嫂-)’는 ‘계수씨(季嫂-)’와 함께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다가 의미가 확장되어 ‘남남의 남자끼리 동생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의미를 따르자면 동생뻘 되는 친구의 경우라면 몰라도 비슷한 나이 또래인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올바른 호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언어생활에서 이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부인(夫人)’은 다음 인용과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지칭어만 간주하고 호칭어로서는 뜻풀이나 용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문 항목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기타’ 의견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인(夫人) ①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현합. ♣부인은 안녕하시지요?/저분이부장님 부인이십니다. ②고대 중국에서, 천자의 비(妃) 또는 제후의 아내를 이르던 말. ③예전에, 사대부 집안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르던 말. ④『역사』 고려 시대의 왕녀의 칭호 가운데 하나. 공주, 궁주(宮主),택주(宅主) 등과 함께 쓰다가 공양왕 3년(1391)에 관제를 정하여 궁주로 하였다. ⑤『역사』 고려·조선 시대의 외명부의 봉작 가운데 하나. 고려 시대에는 남편이나 아들의 품계에 따라 그 아내와 어머니를 봉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대군(大君)·군(君)·공신·문무관의 품계에 따라 봉하였다. ⑥『북』 남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⑦『북』 공식 석상이나 공식 서한 따위에서,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이르는 말. 내자02(內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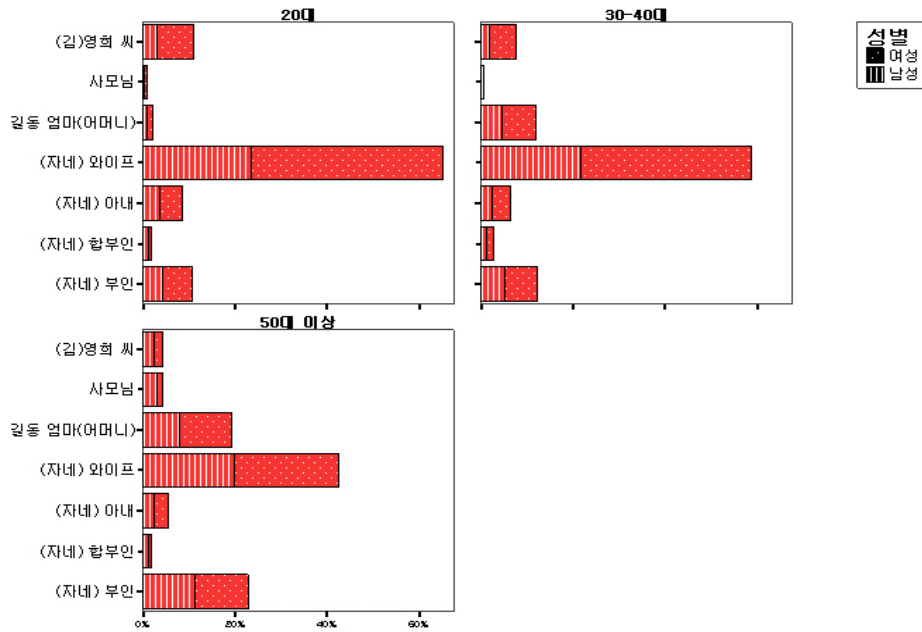
다.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 쓰는 표현으로는 ‘자네 와이프(wife)’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57.7%). 그 다음으로는 ‘(자네) 부인’(13.6%), ‘길동엄마(어머니)’(10.3%), ‘(김)영희 씨’(8.0%), ‘(자네) 아내’(6.8%)의 순이었다. ‘(자네) 합부인’이나(2.3%) ‘사모님’(1.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수씨(20대, 30-40대 각 1명), 집사람(30-40대, 50대 이상 각 1

명)'이 있었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자네) 부인	30 10.7%	58 12.2%	38 22.8%	56 15.6%	70 12.4%	126 13.6%
(자네) 합부인	5 1.8%	13 2.7%	3 1.8%	10 2.8%	11 1.9%	21 2.3%
(자네) 아내	24 8.6%	30 6.3%	9 5.4%	26 7.2%	37 6.5%	63 6.8%
(자네) 와이프	182 65.0%	280 58.7%	71 42.5%	203 56.5%	330 58.4%	533 57.7%
길동 엄마 (어머니)	6 2.1%	57 11.9%	32 19.2%	36 10.0%	59 10.4%	95 10.3%
사모님	2 .7%	3 .6%	7 4.2%	8 2.2%	4 .7%	12 1.3%
(김)영희 씨	31 11.1%	36 7.5%	7 4.2%	20 5.6%	54 9.6%	74 8.0%
합계	280 100.0%	477 100.0%	167 100.0%	359 100.0%	565 100.0%	924 100.0%

<표 43>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4>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가장 높은 '(자네) 와이프(wife)'가 20대는 65.0%, 30-40대는 58.7%, 50대 이상은 42.5%로 나이가 높을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점이 주목된다. 20대에서 '(자네) 와이프(wife)' 다음으로 많이 쓴다고 응답한 '(김)영희 씨'의 경우(11.1%)도 30-40대는 7.5%, 50대 이상은 4.2%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20대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인 '(자네) 부인'은 30-40대와(12.2%) 50대 이상에서(22.8%)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와 50대는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하는 표현을 20대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지칭어 사용의 순위가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지만, '(자네) 부인'의 비율은 남성이(15.6%) 여성보다(12.4%) 상대적으로 더 높고, '(김)영희 씨'의 비율은 여성이(9.6%) 남성보다(5.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아내를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자네) (합)부인, ○○ 어머니'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표준 화법 해설>(1992) 목록에 없었던 '(자네) 와이프'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자네) 부인'이나 '○○ 어머니'를 쓰는 비율은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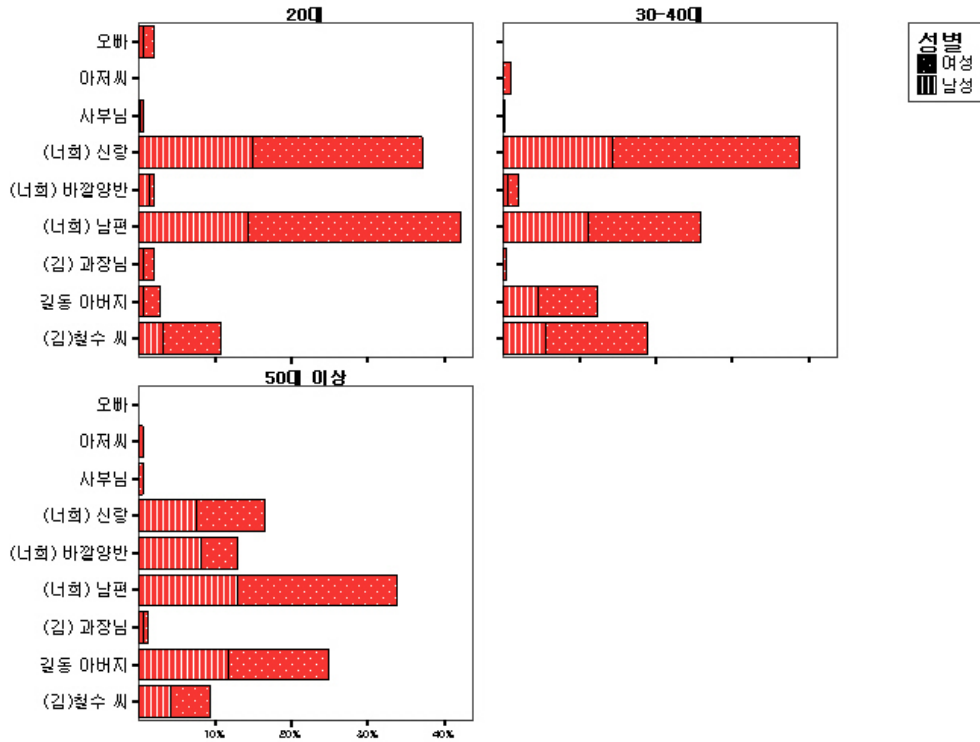
적으로 낮았으며, ‘(자네) 합부인’을 쓰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외래어인 ‘와이프(wife)’를 ‘부인’, ‘아내’, ‘안사람’, ‘집사람’, ‘처’로 순화해야 할 말로 기술하고 있다.

라.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쓰는 표현으로는 ‘(너희) 신랑’(34.2%)과 ‘(너희) 바깥양반’(32.4%)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김)철수 씨’(14.7%), ‘길동 아버지’(11.8%)가 많이 쓰이고 있고, ‘(너희) 바깥양반’은 5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쓰이는 비율이 낮았으며(4.1%), ‘(김) 과장님’(1.1%), ‘아저씨’(0.7%), ‘오빠’(0.7%), ‘사부님’(0.4%)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길동 아빠’(30-40대 2명, 50대 이상 1명), ‘남군’(30-40대 1명)’이 있었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김)철수 씨	30 10.7%	90 19.0%	16 9.5%	43 12.2%	93 16.3%	136 14.7%
길동 아버지	8 2.9%	59 12.4%	42 24.9%	44 12.5%	65 11.4%	109 11.8%
(김) 과장님	6 2.1%	2 .4%	2 1.2%	3 .8%	7 1.2%	10 1.1%
(너희) 남편	118 42.1%	123 25.9%	57 33.7%	115 32.6%	183 32.1%	298 32.3%
(너희) 바깥양반	6 2.1%	10 2.1%	22 13.0%	21 5.9%	17 3.0%	38 4.1%
(너희) 신랑	104 37.1%	184 38.8%	28 16.6%	123 34.8%	193 33.9%	316 34.2%
사부님	2 .7%	1 .2%	1 .6%	1 .3%	3 .5%	4 .4%
아저씨	0 .0%	5 1.1%	1 .6%	1 .3%	5 .9%	6 .7%
오빠	6 2.1%	0 .0%	0 .0%	2 .6%	4 .7%	6 .7%
합계	280 100.0%	474 100.0%	169 100.0%	353 100.0%	570 100.0%	923 100.0%

<표 44>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5>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너희) 남편'(42.1%), '너희) 신랑'(37.1%), '(김)철수 씨'(10.7%)의 순이었으며, 이 세 가지 지칭어가 전체의 89.9%를 차지하였다. 30-40대의 경우에는 '너희) 신랑'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38.8%), 그 다음으로 '너희) 남편'(25.9%), '(김)철수 씨'(19.0%), '길동 아버지'(12.4%)의 순이었으며, 이 네 가지 지칭어가 전체의 96.1%를 차지하였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너희) 남편'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7%), 그 다음으로는 '길동 아버지'(24.9%)로 20대나 30-40대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으며, '너희) 신랑'(16.6%), '너희) 바깥양반'(13.0%), '(김)철수 씨'(9.5%) 등 더 젊은 세대에 비해 사용하는 호칭어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남편에 대한 성별 지칭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해당 친구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다른 친구에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해당 친구에게	(○)○○ 씨, ○○ 아버지, (○) 과장님, 너희 남편(바깥양반)
남편에게	○○ 남편(바깥양반), (○) 과장님
자녀에게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 남편(바깥양반)

<2009년 통계 자료>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너희 신랑’이라는 지칭어가 선정되지 않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신랑(新郎)’은 ‘신혼 초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지만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어의(語義)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자녀에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기존에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대부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부님(師夫-)’, ‘오빠’ 같은 표현은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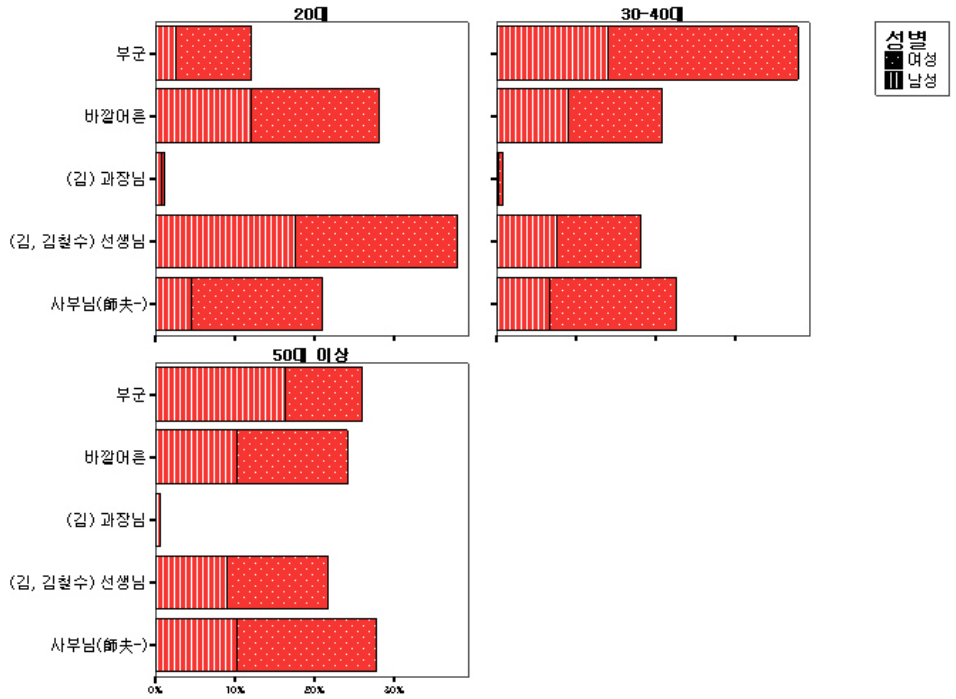
마.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부군(夫君)’(27.9%), ‘(김, 김철수) 선생님’(24.6%), ‘바깥어른’(23.6%), ‘사부님(師夫-)’(23.0%)이 두루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님’처럼 직함을 사용하여 지칭하는 경우(0.9%)는 매우 적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선생님) 남편(분/되는 분)’(20대 4명, 50대 이상 1명), ‘바깥분’(20대 1명, 50대 이상 1명)이 있었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사부님(師夫-)	56 21.0%	105 22.5%	46 27.7%	60 17.1%	147 26.8%	207 23.0%
(김, 김철수) 선생님	101 37.8%	84 18.0%	36 21.7%	97 27.6%	124 22.6%	221 24.6%
(김) 과장님	3 1.1%	4 .9%	1 .6%	4 1.1%	4 .7%	8 .9%
바깥어른	75 28.1%	97 20.8%	40 24.1%	91 25.9%	121 22.1%	212 23.6%

부군	32 12.0%	176 37.8%	43 25.9%	99 28.2%	152 27.7%	251 27.9%
합계	267 100.0 %	466 100.0%	166 100.0%	351 100.0%	548 100.0%	899 100.0%

<표 45>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6>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전체 응답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20대와 30-40대의 경우 선호하는 지칭어의 비율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김, 김철수) 선생님’(37.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군’(12.0%)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30-40대는 ‘부군’(37.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김, 김철수) 선생님’(18.0%)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대 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부님’에 응답한 비율에서 남성은 17.1%, 여성은 26.8%로 상대적으로 성별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성별 지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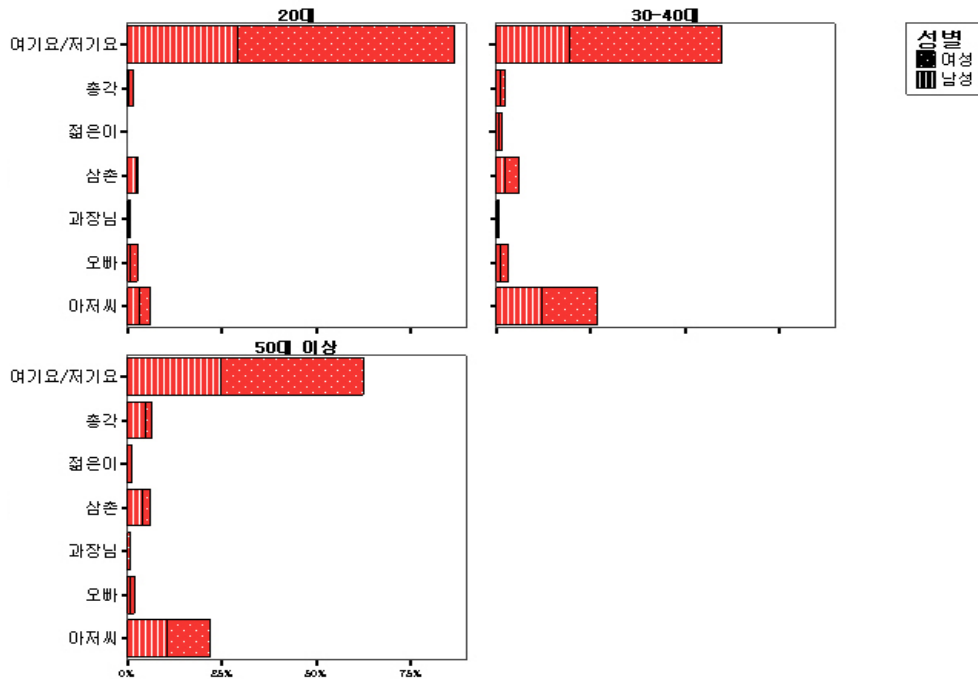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을 지칭하는 말로 ‘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 바깥어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인 ‘부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설문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타 의견으로 나온 ‘(선생님) 남편(분)’이나 ‘바깥분’과 같이 일반 지칭어에 의존명사 ‘분’을 붙여 쓰는 경우도 어느 정도 쓰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는 ‘여기요/저기요’라고 한다는 비율이 6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저씨’가 19.7%로 뒤를 이었고, ‘삼촌’(4.8%), ‘총각’(2.9%), ‘오빠’(2.7%), ‘젊은이’(1.1%) 등도 어느 정도 쓰임이 있었고, ‘과장님’과 같이 직함을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0.6%). 기타 의견으로는 ‘사장님’(20대 1명), ‘웨이터’(30-40대 1명)가 있었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아저씨	17 6.1%	129 26.8%	37 21.8%	85 23.9%	98 17.0%	183 19.7%
오빠	7 2.5%	15 3.1%	3 1.8%	9 2.5%	16 2.8%	25 2.7%
과장님	2 .7%	3 .6%	1 .6%	2 .6%	4 .7%	6 .6%
삼촌	8 2.9%	28 5.8%	10 5.9%	24 6.7%	22 3.8%	46 4.9%
젊은이	0 .0%	8 1.7%	2 1.2%	5 1.4%	5 .9%	10 1.1%
총각	4 1.4%	12 2.5%	11 6.5%	15 4.2%	12 2.1%	27 2.9%
여기요/저기요	241 86.4%	287 59.5%	106 62.4%	216 60.7%	418 72.7%	634 68.1%
합계	279 100.0%	482 100.0%	170 100.0%	356 100.0%	575 100.0%	931 100.0%

<표 46>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7>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이상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여기요/저기요’라고 한다는 응답이 86%나 되었고, ‘아저씨’는 6.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0-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여기요/저기요’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5%, 62.4%로 20대에 비해 낮은 데 비해, ‘아저씨’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26.8%, 21.8%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20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삼촌’의 경우도 5% 이상의 비율이 있었고, ‘총각’은 50대 이상에서 응답한 비율이 6.5%였다. 세대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호칭어 사용 순위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여기요/저기요’는 남성보다(60.7%) 여성이(72.7%) 더 선호하였으며, ‘아저씨’는 여성보다(17.0%) 남성이(23.9%)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촌’의 경우에도 비율은 높지 않지만 여성보다(3.8%) 남성이(6.7%) 더 선호하는 호칭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호칭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식당 등의 남자 종업원을 부르는 말로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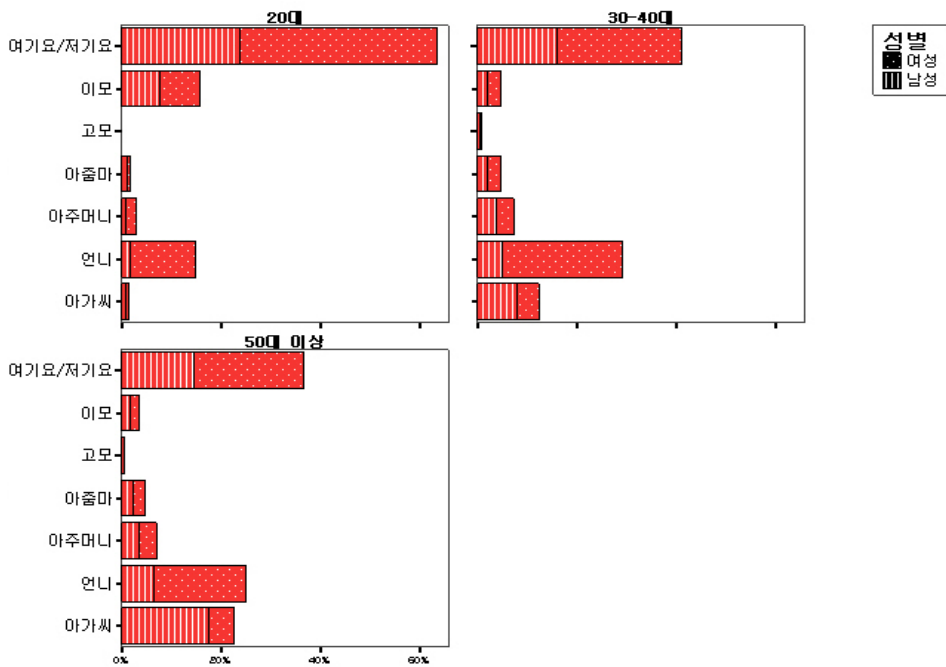
는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지만(2순위), ‘젊은이, 총각’ 등의 쓰임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목록에 없었던 ‘여기요/저기요’를 활발하게 쓰고 있어(1순위)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 대한 표준 호칭어 목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는 ‘여기요/저기요’라고 한다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언니’(19.7%), 아가씨(11.0%), 이모(7.6%), 아주머니(5.9%), 아줌마(3.8%)가 뒤를 이었고, ‘고모’(0.5%)의 쓰임은 매우 낮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장님’(20대, 1명)이 있었다. 남자 종업원에 대한 호칭어는 ‘여기요/저기요’와 ‘아저씨’ 정도가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음에 비해, 여자 종업원에 대한 호칭어는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니’나 ‘이모’와 같은 가족 관계 호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아가씨	4 1.4%	60 12.4%	39 22.7%	71 19.8%	32 5.6%	103 11.0%
언니	41 14.9%	142 29.3%	43 25.0%	40 11.1%	186 32.4%	226 24.2%
아주머니	8 2.9%	35 7.2%	12 7.0%	26 7.2%	29 5.1%	55 5.9%
아줌마	5 1.8%	22 4.5%	8 4.7%	17 4.7%	18 3.1%	35 3.8%
고모	0 .0%	4 .8%	1 .6%	3 .8%	2 .3%	5 .5%
이모	43 15.6%	22 4.5%	6 3.5%	34 9.5%	37 6.4%	71 7.6%
여기요/저기요	175 63.4%	200 41.2%	63 36.6%	168 46.8%	270 47.0%	438 46.9%
합계	276 100.0%	485 100.0%	172 100.0%	359 100.0%	574 100.0%	933 100.0%

<표 47>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8>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이상의 경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여기요/저기요'의 경우 20대는 63.4%의 높은 비율을 보인 데 비해, 30-40대는 41.2%, 50대 이상은 36.6%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모'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 20대와(15.6%) 30대 이상(5% 미만)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아가씨, 언니, 아주머니, 아줌마'의 경우에는 20대보다는 30-40대와 5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다. '아가씨'는 20대에서 1.4%에 불과한 반면, 30-40대는 12.4%, 50대 이상은 22.7%로 윗세대일수록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니'는 20대에서 14.9%가 사용한 데 비해 30-40대에서는 29.3%, 50대 이상에서는 25%가 사용하였다. '아주머니'는 20대에서 2.9%가 사용한 데 비해 30대 이상에서는 7%대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아줌마'는 20대에서 1.8%가 사용한 데 비해 30대 이상에서는 4%대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세대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여기요/저기요'의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남성 46.8%, 여성 47.0%), '아가씨'는 여성보다(5.6%) 남성이 (19.8%), '언니'는 남성보다(11.1%) 여성이(32.4%)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호칭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이 ‘여기요/저기요’ 외에는 ‘언니’라는 호칭어를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데 비해, 남성은 ‘아가씨, 언니, 이모’ 등을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호칭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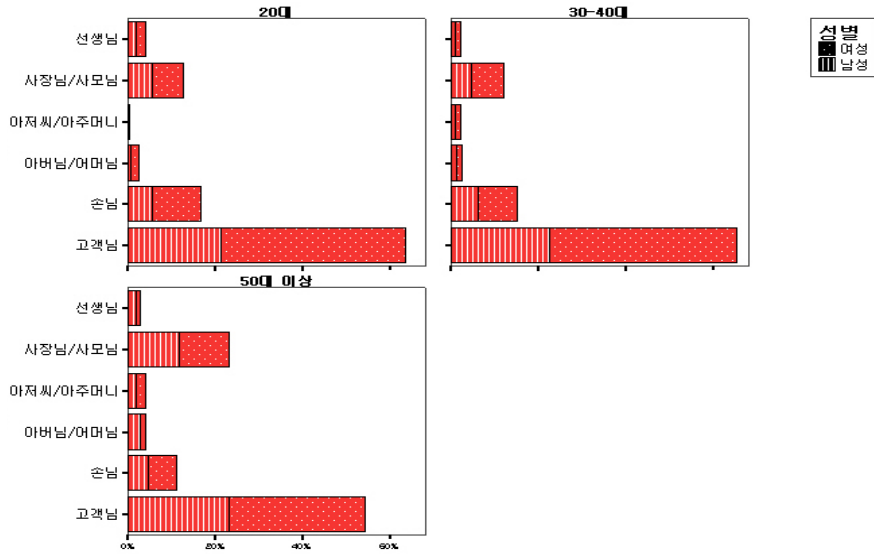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식당 등의 남자 종업원을 부르는 말로 ‘아주머니, 아가씨’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주머니’(5.9%)나 ‘아가씨’(11.0%)의 사용 비율은 낮은 편이고, 목록에 없었던 ‘여기요/저기요’(46.9%)와 ‘언니’(24.2%)의 쓰임이 매우 생산적이고, ‘이모’도(7.6%)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식당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표준 호칭어 목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는 ‘고객님’(63.0%)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손님’(15.0%)과 ‘사장님/사모님’(14.4%)의 비율이 높았고, ‘선생님’(2.9%), ‘아버님/어머님’(2.8%), ‘아저씨/아주머니’(1.9%)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고객님	178 63.6%	313 65.6%	92 54.4%	207 58.5%	376 65.7%	583 63.0%
손님	47 16.8%	73 15.3%	19 11.2%	54 15.3%	85 14.9%	139 15.0%
아버님/어머님	7 2.5%	12 2.5%	7 4.1%	13 3.7%	13 2.3%	26 2.8%
아저씨/아주머니	1 .4%	10 2.1%	7 4.1%	9 2.5%	9 1.6%	18 1.9%
사장님/사모님	36 12.9%	58 12.2%	39 23.1%	59 16.7%	74 12.9%	133 14.4%
선생님	11 3.9%	11 2.3%	5 3.0%	12 3.4%	15 2.6%	27 2.9%
합계	280 100.0 %	477 100.0 %	169 100.0 %	354 100.0 %	572 100.0 %	926 100.0 %

<표 48>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49>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 이하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호칭어에서, 20대와 30-40대는 ‘고객님, 손님, 사장님/사모님’의 순인데 비해, 50대는 ‘고객님, 사장님/사모님, 손님’의 순이었다. 50대 이상에서는 ‘손님’보다 ‘사장님/사모님’이라는 호칭을 더 생산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고객님’을 남성보다(58.5%) 여성이(65.7%)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손님’보다(15.3%) ‘사장님/사모님’을(16.7%), 여성은 ‘사장님/사모님’보다는(12.9%) ‘손님’을(14.9%)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호칭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중년 고객에 대한 호칭어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소나 대상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호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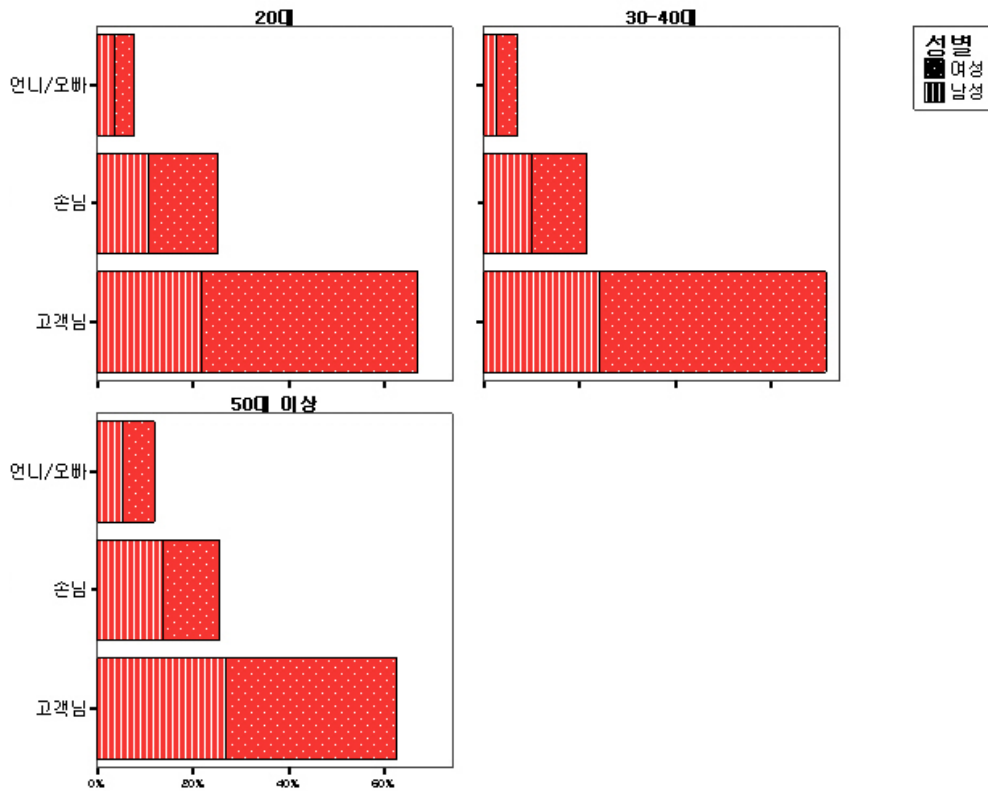
자.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에는 ‘고객님’(68.5%)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손님’(23.3%), ‘언니/오빠’(8.2%)의 순이었다.

젊은 손님을 ‘고객님’이나 ‘손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언니/오빠’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대			성별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남성	여성	
고객님	188 66.9%	341 71.5%	105 62.5%	222 62.5%	412 72.2%	634 68.5%
손님	71 25.3%	102 21.4%	43 25.6%	101 28.5%	115 20.1%	216 23.3%
언니/오빠	22 7.8%	34 7.1%	20 11.9%	32 9.0%	44 7.7%	76 8.2%
합계	281 100.0%	477 100.0%	168 100.0%	355 100.0%	571 100.0%	926 100.0%

<표 49>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0>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별로 살펴보면, 세대별 호칭어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고객님’의 경우 남성보다(62.5%) 여성이(72.2%)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님’과 ‘언니/오빠’는 여정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호칭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젊은 고객에 대한 호칭어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소나 대상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호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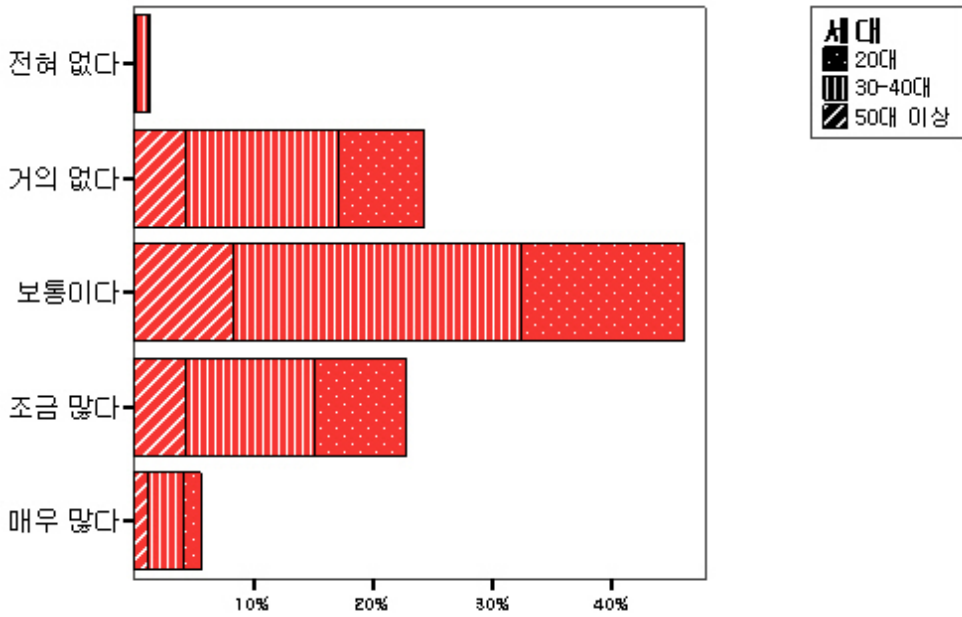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을 사용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혼란 정도, 표준 화법 정비의 필요성,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표준 화법의 홍보 기관,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수용성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가.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의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의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5.6%가 ‘매우 많다’, 22.8%가 ‘조금 많다’, 46.0%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이는 74%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4.3%이고,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에 불과하였다.

	세대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매우 많다	14 5.0%	27 5.6%	11 6.4%	52 5.6%
조금 많다	72 25.6%	100 20.9%	40 23.4%	212 22.8%
보통이다	127 45.2%	223 46.6%	78 45.6%	428 46.0%
거의 없다	66 23.5%	119 24.8%	41 24.0%	226 24.3%
전혀 없다	2 .7%	10 2.1%	1 .6%	13 1.4%
합계	281 100.0%	479 100.0%	171 100.0%	931 100.0%

<표 50> ‘표준 화법의 사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1> '표준 화법의 사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그런데 모든 세대가 표준 화법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세대별로 어려움의 유형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대의 경우는 '호칭·지칭어가 너무 복잡하다. 정확한 호칭·지칭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다.'는 등 복잡한 호칭·지칭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30-40대의 경우는 '4촌을 넘는 친인척 호칭·지칭어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50대의 경우는 '젊은 학생들이 호칭·지칭을 잘못 사용하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언니, 오빠 등과 같은 직계 가족의 호칭·지칭을 남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정식 호칭은 ○○이지만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와 같은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통신언어를 쓰지 않게 교육해야 한다.', '호칭·지칭어를 쉽게 정비하고 교육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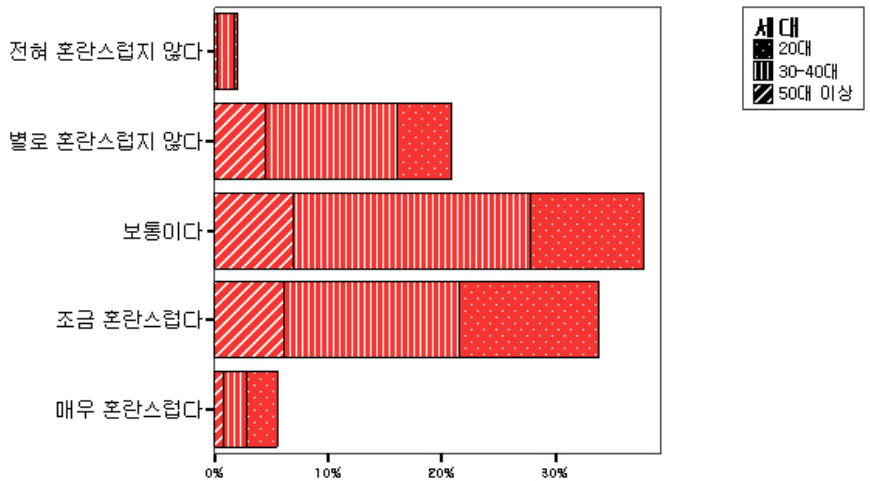
나. 표준 화법의 혼란

조사 대상의 5.5%는 인사말이나 호칭·지칭어, 경어법이 '매우 혼란스럽다.', 33.8%가 '조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는 20.8%,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는 2.0%로 나타났다.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정도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40.9%가 ‘조금 혼란스럽다’, 8.9%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응답해, 50% 정도가 인사말이나 호칭·지칭어, 경어법의 사용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50대(37.4%), 30-40대(33.9%)순으로 나타났다.

	세대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매우 혼란스럽다	25 8.9%	19 4.0%	7 4.1%	51 5.5%
조금 혼란스럽다	115 40.9%	143 29.9%	57 33.3%	315 33.8%
보통이다	93 33.1%	195 40.7%	64 37.4%	352 37.8%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45 16.0%	108 22.5%	41 24.0%	194 20.8%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3 1.1%	14 2.9%	2 1.2%	19 2.0%
합계	281 100.0%	479 100.0%	171 100.0%	931 100.0%

<표 51> ‘표준 화법의 혼란’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2> ‘표준 화법의 혼란’에 대한 응답 결과

20대의 경우는 특히 ‘호칭·지칭어가 혼란스럽다.’, ‘호칭·지칭어를 좀 더 단순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30-40대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제가’라고 써야할 상황에 ‘내가’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에서 ‘내가’라고 쓰는 것이 좋은지 몰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30-40대에서 ‘500원이세요.’와 같이 ‘사물에 대해 높임말을 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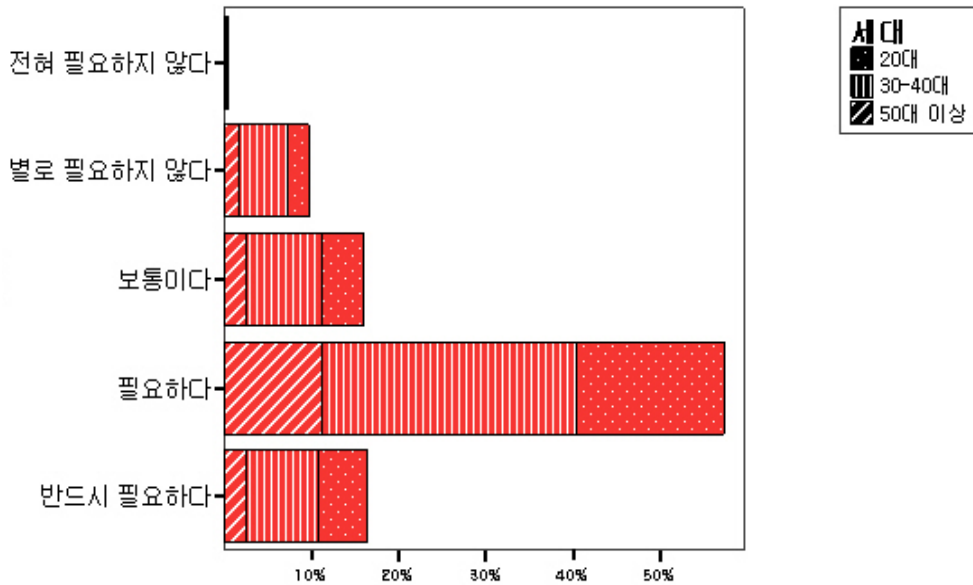
것이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50대의 경우 젊은 사람들의 통신 언어와 줄임말의 사용이 문제라는 의견을 보였다.

다.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6.5%가 ‘반드시 필요하다.’, 5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73%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에 대해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반드시 필요하다	53 18.9%	76 15.9%	24 14.1%	153 16.5%
필요하다	158 56.2%	270 56.4%	105 61.8%	533 57.3%
보통이다	44 15.7%	81 16.9%	24 14.1%	149 16.0%
별로 필요하지 않다	23 8.2%	51 10.6%	16 9.4%	90 9.7%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1.1%	1 .2%	1 .6%	5 .5%
합계	281 100.0%	479 100.0%	170 100.0%	930 100.0%

<표 52>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3>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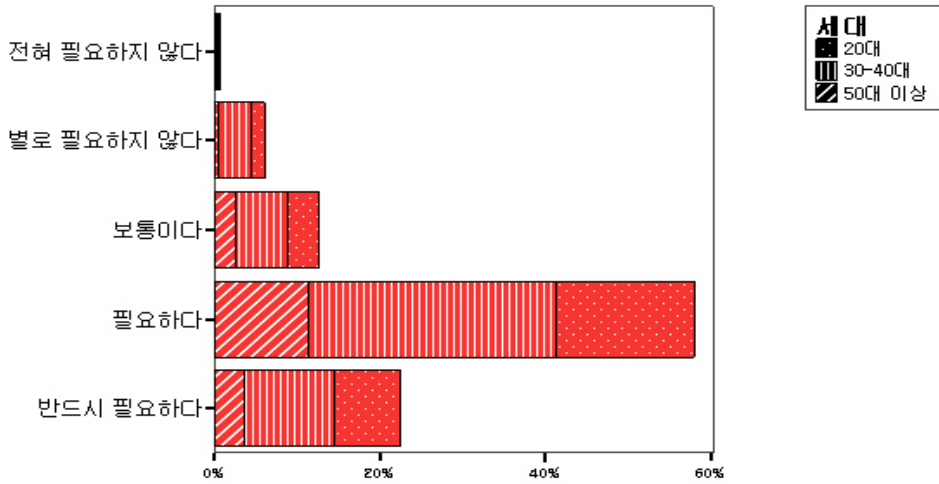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대가 모두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30-40대의 경우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말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세대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인사말과 달리 호칭·지칭어의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혼란스러운 표준 화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22.6%가 '반드시 필요하다', 58%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80%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의 필요성은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81.5% ← 81.2% ← 79.8%)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반드시 필요하다	75 26.7%	99 21.0%	34 20.0%	208 22.6%
필요하다	154 54.8%	277 58.8%	104 61.2%	535 58.0%
보통이다	35 12.5%	58 12.3%	24 14.1%	117 12.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 5.3%	36 7.6%	5 2.9%	56 6.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7%	1 .2%	3 1.8%	6 .7%
합계	281 100.0%	471 100.0%	170 100.0%	922 100.0%

<표 53>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4>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종합된 의견의 대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을 제정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세대별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현실에 맞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의 경우는 호칭·지칭어를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쉬운 우리말로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20대에게 기존의 호칭·지칭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40대의 경우 현실에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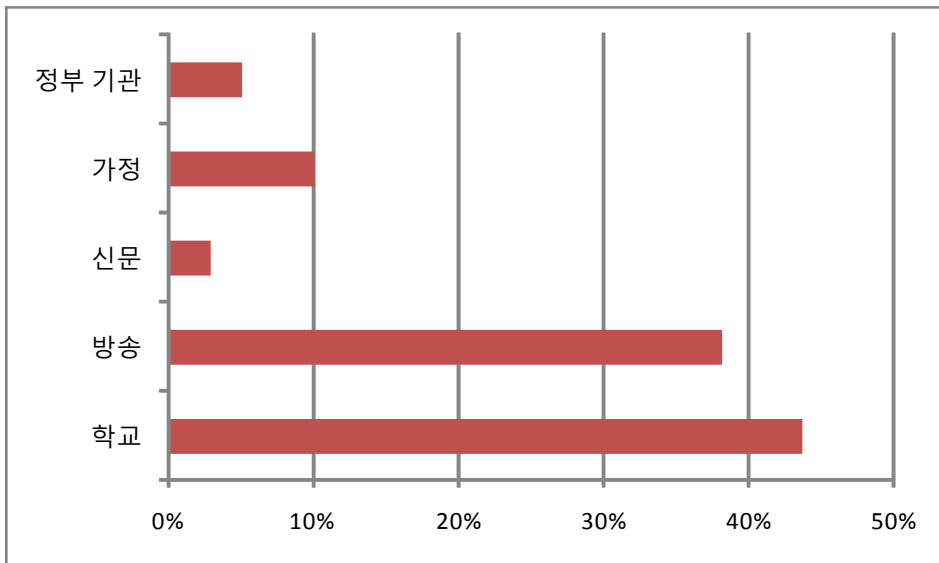
게 경어법을 쉽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홍보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

표준 화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기관으로 43.6%가 학교를, 38.2%가 방송을, 10.1%가 가정을, 5.1%가 정부 기관을, 3.0%가 신문을 들었다.

	응답 결과	
	응답 수	비율
학교	641	43.6%
방송	561	38.2%
신문	44	3.0%
가정	149	10.1%
정부 기관	75	5.1%
합계	1470	100.0%

<표 54>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5>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

수합된 의견 중에는 표준 화법에 대한 안내문을 가정에 보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부에서 전체 틀을 만들고 학교와 가정, 방송이 함께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대의 경우는 학교에

서 화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자신들이 쓰는 말과 어른들이 쓰는 말이 달라 어려운데 부모님께 물어도 잘 알지 못한다며 학교에서 배우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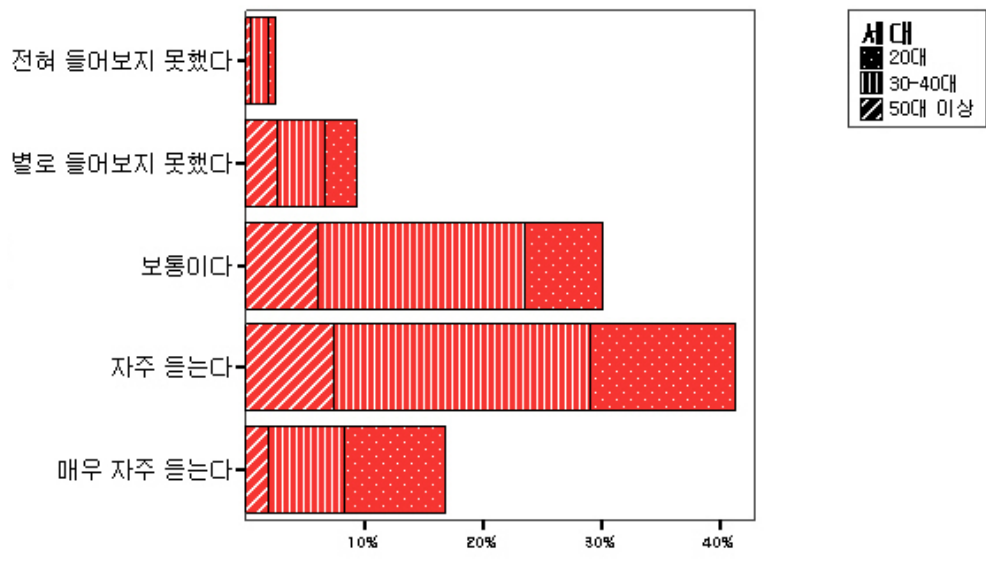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의 언어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자막은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호칭·지칭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육 방법으로 20대의 경우는 공익 광고를, 30-40대의 경우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듣기 경험과 수용성

‘즐거운 쇼핑 되세요.’라는 말은 16.8%가 ‘매우 자주 듣는다.’, 41.3%는 ‘자주 듣는다.’, 30.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88% 이상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부담이세요.’라는 표현은 7.2%가 ‘매우 자주 듣는다.’, 24.1%가 ‘자주 듣는다.’, 29.5%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61% 정도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매우 자주 듣는다	78 27.8%	59 12.5%	18 10.6%	155 16.8%
자주 듣는다	113 40.2%	201 42.5%	68 40.0%	382 41.3%
보통이다	60 21.4%	162 34.2%	56 32.9%	278 30.1%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24 8.5%	38 8.0%	24 14.1%	86 9.3%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6 2.1%	13 2.7%	4 2.4%	23 2.5%
합계	281 100.0%	473 100.0%	170 100.0%	9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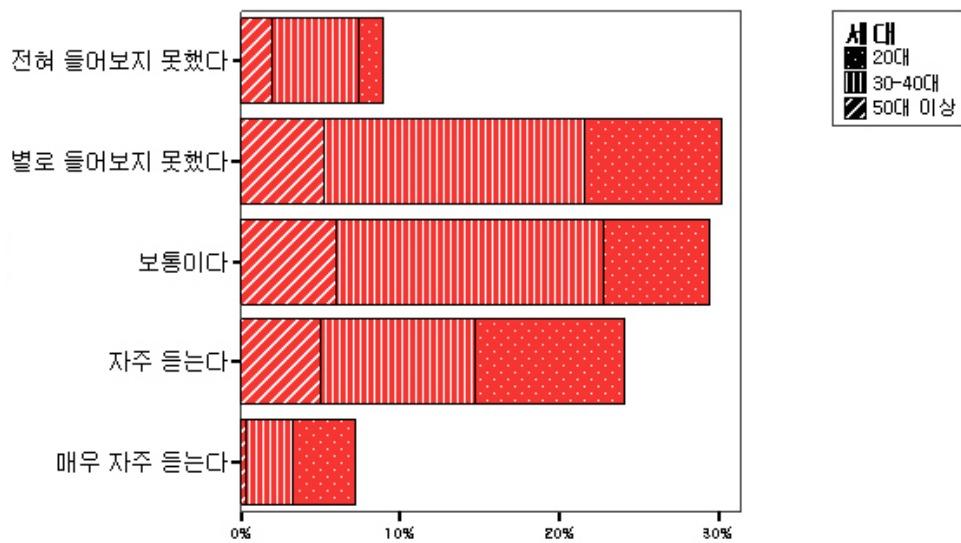
<표 55> ‘즐거운 쇼핑되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6> '즐거운 쇼핑되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세대			합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매우 자주 듣는다	37 13.2%	27 5.6%	3 1.8%	67 7.2%
자주 듣는다	87 31.0%	91 19.0%	46 27.1%	224 24.1%
보통이다	62 22.1%	157 32.8%	55 32.4%	274 29.5%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81 28.8%	152 31.8%	48 28.2%	281 30.2%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14 5.0%	51 10.7%	18 10.6%	83 8.9%
합계	281 100.0%	478 100.0%	170 100.0%	929 100.0%

<표 56>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57>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에 대한 응답 결과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수용성은 표현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에 대해 24.9%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24.9%가 ‘자연스럽다.’고 응답해 50% 정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12%정도만이 어색하거나(8.6%) 아주 어색하다(3.6%)고 응답했다. 반면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에 대해서는 20.8%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쓸 수 있다.’고 응답했고, 6.1%만이 ‘자연스럽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30.4%는 ‘조금 어색하다.’, 16.3%는 ‘아주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문법적 표현의 수용성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즐거운 쇼핑되세요.’에 대해 30-40대의 경우 ‘자연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로 50대(21.1%)와 20대(18.5%)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가 ‘자연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도 30-40대가 7.5%로 50대(5.9%)와 20대(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즐거운 쇼핑되세요.’에 대해 20대의 경우 ‘매우 자주 듣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7.8%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자연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20대의 경우 최근에 이 표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문법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의견 중 ‘많이 사용한다면 현 상태를 인정해야 한

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중이 많이 사용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1992년 발간된 <표준 화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한 화법 실태가 어떠한지, 최근 화법 사용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가 차원의 표준 화법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법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이전에 수도권 화자들을 중심으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화법 실태와 표준화법 규정으로 보아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서울·경기 지역의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 30-40대, 50대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인사말과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실태, 그리고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대별로 심층 면담,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표준 화법 점검을 위한 기초 설문을 만들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 설문지를 다듬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에 발표한 <표준 화법 해설>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의미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화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실제 사용이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국민이 40%나 되었다. 이는 20대 젊은 층일수록 혼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실제 화법에서 상황맥락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화자나 청자가 이들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혼란스러운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화법의 사용 실태와 화법에 대한 인식이 1992년 발간된 <표준 화법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 호칭과 지칭어, 경어법 사용에서 실태와 인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의 부인을 ‘제수씨’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았고, ‘아내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처남(의)댁’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존대를 나타내는 ‘-시-’의 경우 ‘즐거운 쇼핑 되세요.’라는 표현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자연스럽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이나 되었다. 또, 많은 가정에서의 아침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새로운 매체

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용어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좋은 아침’이나 ‘와이프’ 등 영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영어식 표현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어법에 어긋난 ‘즐거운 쇼핑 되세요!’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다거나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 적절한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 종업원을 ‘여기요!/저기요!’하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사회에서 살아온 토박이들도 표준 화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 다매체 사회에서 표준화법을 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시사한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 규정을 정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국가차원의 표준 화법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 언어생활 개선을 위해 화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조사와 연구, 학교와 방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합리성을 인정하는 표준 화법 체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차원의 전국적 화법 실태와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 현대 표준 화법’ 규정을 만들고, 각 급 학교와 방송 등 공공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편하고 미래지향적인 표준 화법 설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가. 인사말

(1) 집안에서 인사말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 ①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경우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18.9%(20대의 42.1%)이고, 어머니에게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18.0%(20대는 37.6%)로 나타났다.

(2) '해요'체와 '해'체가 '합쇼'체와 '해라'체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 ① 집안에서 아침에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말은 40.7%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를 쓰는 반면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를 쓰는 경우는 7.5%에 불과했다. 이런 경향은 세대와 무관한 것으로, 30-40대의 45.7%, 50대 이상의 47.6%가 '합쇼'체 대신에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어머니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서는 2.0%가 '잘 잤어?'라는 반말 체를 사용한다.

(3) '나' 중심 표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 ① 집안에서 아침 인사의 경우 어머니께 4.0%가 '저 일어났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20대는 7.6%), 아버지께 1.9%(20대는 3.3%) 사용한다.
- ② 자기의 성씨를 소개하는 경우에 45.5%가 '(저는) 김 씨입니다.'를, 21.7%가 '(저는) 김해 김 씨입니다.'를, 11.6%가 '(저는) 김 가입니다.'를, 17.7%가 '(저는) 김해 김 가입니다.'를 사용한다.
- ③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서는 38.7%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를, 18.1%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를 사용하고, 4.9%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를, 3.9%는 '안녕히 계세요'를 사용한다.
- ④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은 83.5%가 성씨를 포함하여 '홍자, 길자, 동자이세요.'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명사형 인사말과 인터넷 용어의 인사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①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10.3%(20대의 10.5%, 30-40대의 10.8%, 50대 이상의 8.7%)가 '축하축하(추카추카)'를, 2.3%가 '(생일) 축하!'를 사용한다.
- ②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로는 29.7%(20대의 48.9%, 30-40대의 22.1%, 50대 이상의 20.2%)가 '안녕?'을, 16.0%(20대의 10.4%, 30-40대의 18.0%, 50대 이상의 19.7%)가 '좋은 아침!'을 사용한다. 그리고 11.0%(20대의 5.0%, 30-40대의 13.4%, 50대 이상의 13.9%)가 '중

은 아침입니다.’를 사용한다.

(5) 형식보다는 내용, 즉 인사말의 의미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 ①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로 13.6%가 ‘힘내세요.’라는 말을 한다.

(6) 여성이 남성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20대 여성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 ① 20대의 42.1%, 30-40대의 9.5%, 50대의 8.3%가 집안에서 아침에 아버지께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
- ②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 인사말로 여성의 5.4%, 남성의 1.7%가 ‘저 일어났어요.’를 사용하고, 남성의 4.6%, 여성의 7.0%가 반말체인 ‘잘 잤어?’를 사용한다.
- ③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로 여성의 52.2%, 남성의 35.3%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사용하고, 여성의 14.6% 남성의 28.9%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사용한다.
- ④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남성의 46.4%와 여성의 18.7%가 ‘생일 축하한다.’를, 남성의 39.4%와 여성의 64.9%는 ‘(생일) 축하해.’를, 여성의 12.7%, 남성의 6.4%가 ‘축하축하(추카추카)’를 사용한다.
- ⑤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로 여성의 34.7%와 남성의 21.8%가 ‘안녕?’을 사용한다.
- ⑥ 자신의 성씨를 소개하는 말로 여성의 52.3%와 남성의 34.4%가 ‘(저는) 김 씨입니다.’를, 남성의 14.4%와 여성의 9.9%는 ‘(저는) 김 가입니다.’를 사용한다.
- ⑦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로 남성의 9.5%와 여성 16.2%가 ‘힘내세요.’라는 말을 한다.

(7) 새해 인사나 생일 인사말(회갑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의 경우만 예외)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인사말의 비중이 줄고 복과 관련된 인사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 ①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3.0%가 ‘건강해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②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로 45.7%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0.1%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19.3%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를, 14.8%가 ‘건강하세요.’를 사용한다.
- ③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로 59.7%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8.7%가 ‘건강하세요.’를 사용한다.

(8) 다음과 같은 말들은 사회적 인사말로 자리를 잡았다.

① 헤어질 때 : ‘들어가요.’

-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40.9%가 ‘안녕히 (조심히) 들어가요.’를 사용한다.
-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로 36.3%(20대의 32.3%, 30-40대의 41.0%, 50대 이상의 29.6%)가 ‘들어가요.’를 사용한다.
-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38.7%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를 사용한다.

② 뒷사람에게 : ‘고생하다.’, ‘수고하다.’ 등

-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7.0%(20대의 6.5%, 30-40대의 6.6%, 50대 이상의 8.8%)가 ‘수고하십시오.’를, 2.9%가 ‘고생하십시오.’를 사용한다.
-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로 6.2%(20대의 2.9%, 30-40대의 7.8%, 50대 이상의 7.0%)가 ‘고생이 많으십니다.’를 사용한다.
- 직장 뒷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로 16.5%(20대의 13.7%, 30-40대의 18.6%, 50대 이상의 15.3%)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를 사용한다.

나.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호칭·지칭어의 변화 비교⁵⁾]

(1) <표준 화법 해설>(1992)이 <2009년 통계 자료> 결과와 거의 변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

- ①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처럼 20대(42.0%)는 ‘철수(야) (아들 이름)’로, 30-40대(43.7%)와 50대 이상(39.1%)은 ‘(길동)아범’으로 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②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30-40대(65.1%)는 ‘(길동)어미(야)’로, 20대(42.0%)와 50대 이상(39.1%)은 모두 ‘(새)아가’로 부르는 비율이 높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는 20대(51.3%와 33.1%), 30-40대(49.9%와 31.2%), 50대 이상(50.9%와 35.5%) 모두 ‘(우리) 며느리’와 ‘(우

5) 1992년 국립국어원의 <표준 화법 해설>과 2009년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통계 자료(<2009년 통계 자료>) 결과를 비교하여 약 20여 년 사이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도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 리) 며느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④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는 20대, 30-40대, 50대 이상 대부분이 '사돈처녀'나 '사돈아가씨'로 부르며,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는 '사돈총각(8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는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약 95% 정도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는 52.5%가 '시아버님'을, 26.8%가 '(우리) 아버님'을, 19.0%가 '시아버지'라는 지칭을 사용한다.
 - ⑥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는 87.7%가 '김 서방'이라고 부르며, 장모를 부를 때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장모님'(58%), '어머님'(34.2%), '어머니'(6.4%) 순으로 부르고 있다.
 - ⑦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는 과반수가 '형님'(57.4%)이라고 부르며, '고모'(27.1%), '언니'(9.6%), '아가씨'(4.9%)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⑧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는 45.5%가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도련님'(17.5%)과 당사자 이름에 기댄 '(길동이) 삼촌'(16.1%)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 ⑨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는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32.5%가 '올케언니', 31.3%가 '언니', 25.3%가 '새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⑩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20대는 64.4%가 '장인어른/어르신', 34.7%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30-40대와 50대 이상은 '아버님', '장인어른/어르신' 순으로 그 호칭의 비율이 역전된다.
 - ⑪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는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70% 이상이 '장인'을, 27.2%가 '아버님'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표준 화법 해설>(1992)이 <2009년 통계 자료> 결과에서 조금 다른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①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장성해서는 '어머니'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엄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 ② 혼인한 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자·손녀에 기대어 '(○○)어미(어멈)'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런데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55.6%, 30-40대의 37.4%, 50대 이상의 46.2%가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영희(야)’가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 ③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보’, ‘○○ 엄마’, ‘○○ 어머니’, ‘임자’, ‘○○ 할머니’ 등을 인정하였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아내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영희 씨’(3.1%), ‘영희(야)’(12.7%)처럼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15% 정도 된다. 반면 자녀가 아직 없을 때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보’(42.7%)가 과반수 정도이며, ‘자기’(27.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영희(야)’(19.2%)와 ‘영희 씨’(5.7%)는 24.9%로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④ 자녀가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말은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마찬가지로 ‘여보’라고 부르거나 아이에게 기대어 ‘○○ 아버지’, ‘○○ 아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남편을 ‘자기’라고 부른 비율이 13.3%나 된다.
- ⑤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33.3%가 ‘(우리) 신랑’을, 32.8%가 ‘(우리) 남편’을 사용한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남편의 친구들이나 서로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가능하다고 한 ‘바깥양반’은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50대 이상에서조차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⑥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매부’가 대세이고, ‘매형’과 ‘자형’은 그 뒤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매부’보다는 ‘매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형님’으로 호칭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⑦ 아내의 오빠를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순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아주머니’로 정하고, 손아래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처남의 댁’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20대의 경우 다른 세대와는 달리 ‘형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표준 화법 해설>(1992)과 <2009년 통계 자료> 결과가 전혀 다른 즉, 상당히 다르게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아직 없을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하여 ‘형’, ‘오빠’, ‘아저씨’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아 결코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 씨’의 ‘씨’ 역시 영어의 미스터를 번역한 느낌을 주며, 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인 인상을 주기에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역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자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빠’와 ‘철수 씨’도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때로 쓸 수 있다고 한 ‘영감’이라는 호칭은 ‘2009년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50대 이상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여동생이 남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 서방’, ‘○ 서방님’으로 정하였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제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길동 아빠’와 같이 자녀에 기대어 부르는 비율도 2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낭’은 전 세대에 걸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③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아주머님’, ‘아주머니’가 전통적인 호칭이고, 그 당시 많이 쓰이는 ‘형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 통계 자료>의 결과는 ‘형수님’과 ‘형수’가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wife)’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2009년 통계 자료>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와이프(wife)’의 경우, 20대의 경우 ‘(우리) 집사람’과 동일한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의 경우도 ‘와이프(wife)’로 지칭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 간 호칭·지칭어의 특징 비교]

(1) 20대는 친근감이 있는 호칭을 선호한다.

- ①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20대는 다른 세대보다 ‘엄마’라고 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격식과 거리감이 있는 ‘어머니’, ‘어머님’이라는 호칭보다 ‘엄마’가 친근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②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비율이 20대(16.1%)가 30-40대(11.3%)와 50대 이상(2.2%)보다 높다.
- ③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20대의 경우, ‘형님’으로 호칭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④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 20대의 경우 ‘형수’라고 부르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대는 자신의 형뿐만 아니라 아내의 오빠도 ‘형(님)’에 해당하기에 아내 오빠의 부인을 ‘형수’로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2) 20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①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20대는 ‘철수(야)(아들 이름)’(42.0%), ‘(길동)아범’(22.1%), ‘(길동)아비’(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한 딸을 부를 때도 20대는 ‘영희(야)(딸 이름)’(55.6%), ‘(영수)엄마’(14.1%), ‘애(야)’(11.6%), ‘(영수)어멈’(10.5%) 순으로 나타났다.
- ②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20대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인 ‘철수’로 불리는 비율이 3.9%로, 30-40대(1.7%)와 50대 이상(1.1%)보다 높다.
- ③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도 20대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인 ‘영희 씨’로 불리는 비율이 2.2%로, 30-40대(0.6%)와 50대 이상(1.2%)보다 높다.

(3) 20대와 50대 이상이 선호하는 호칭이 같은 경우가 있다.

- ①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20대는 본인이 신혼 무렵이고 50대 이상은 자녀가 막 결혼한 시기에 해당하는데, ‘(새)아가’는 이 무렵에 서로가 선호하는 적절한 호칭으로 보인다. 20대(18.6%)와 50대 이상(18.3%)이 서로 간에 친밀하거나 친근한 관계에 사용한 가능한 ‘애(야)’로 부를 수 있다고 반응한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4)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새롭게 널리 퍼지는 호칭이 있다.

- ① 자녀가 아직 없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 ‘자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빠’와 ‘철수 씨’도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②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 서방’, ‘○ 서방님’으로 정하였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서는 ‘제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20대의 경우는 ‘와이프(wife)’, ‘(우리) 집사람’ 등이 동일한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의 경우도 ‘와이프’로 지칭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④ 형의 아내를 부를 때는 20대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80% 이상이 ‘형수님’, 15% 정도가 ‘형수’ 순으로 나타났다.

(5) 50대 이상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2009년 통계 자료>에서 자녀가 아직 없을 때 아내가 남편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이번 조사 결과 이제 50대 이상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 ②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남편의 친구들이나 서로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가능하다고 한 ‘바깥양반’은, 이번 조사 결과 50대 이상에서조차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③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한다는 ‘제냥’은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남녀 간 호칭·지칭어의 특징 비교]

(1) 남성은 격식을 갖춘 호칭을, 여성은 친근감이 있는 호칭을 선호한다.

- ① 나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비율은 여성이 92.6%, 남성은 61.2%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이 32.0%, 여성은 6.6%로 나타났다.

(2) 남성보다 여성이 이름 부르기를 선호한다.

- ① 혼인한 딸을 부를 때, 딸을 이름으로 부르는 ‘영희(야)’는 남성(38.4%)보다 여성(48.2%)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도 ‘영희 씨’라고 이름을 부르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남성(0.8%)보다 여성(1.4%)이 높으며,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도 ‘철수 씨’라고 이름을 부르는 비율이 남성(1.1%)보다 여성(1.7%)이 조금 더 높다.

(3) 30-40대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다.

- 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30-40대(23.3%)가 20대(약 8.9%)와 50대 이상(7.8%)보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아직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30-40대(36.4%)가 20대(약 18.8%)와 50대 이상(6.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4) 가정 내의 여성의 위치나 관계 변화를 알 수 있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일찍부터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매부’가 대세이고, ‘매형’과 ‘자형’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부’보다는 ‘매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형님’으로 호칭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② 아내의 오빠를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손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아주머니’로 정하고, 손아래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처남의 닻’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200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형수’라는 호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③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도 20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형수’라고 부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자신의 형뿐만 아니라 아내의 오빠도 ‘형(님)’에 해당하기에 아내 오빠의 부인을 ‘형수’로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 ①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는 ‘사돈처녀’라고 부르는 비율이 여성(80.8%)이 남성(71.8%)보다 약 10% 높으며, ‘사돈아가씨’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19.5%)이 여성(11.8%)보다 약 8% 높게 나타났다.
- ②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는 ‘사돈총각’은 여성(88.5%)이 남성(84.2%)보다 약 5% 높으며, ‘사돈’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4.8%)은 여성(0.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호칭·지칭어의 변화 비교]

(1)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권장하는 표현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즉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①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 선생님’, ‘○○○ 선생(님)’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이 외에 남자 직원에게는 ‘○ 형’할 수도 있고, 나이 든 기혼의 여자 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 여사’라고 할 수 있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는 ‘○ 군’ 또는 ‘○ 양’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2009년 통계 자료>에서도 ‘(김)철수 씨’와 같이 부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권장하는 표현이 쓰이기는 하지만,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즉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①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남편을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 ‘(○)○○ 씨, ○○ 아버지, (○) 과장님, 너희 남편(바깥양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2009년 통계 자료>에서도 ‘(너희) 바깥양반’(32.4%), ‘(김)철수 씨’(14.7%), ‘길동 아버지’(11.8%) 등이 생산적으로 쓰였으나, 권장하는 지칭어에 없었던 ‘(너희) 신랑’의 빈도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②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 바깥어른’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 통계 자료>에서도 ‘(김, 김철수) 선생님’(24.6%), ‘바깥양반’(23.6%), ‘사부님(師夫-)’(23.0%)이 두루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과장님’(0.9%)의 쓰임도 있었다. 그러나 <표준 화법 해설>(1992)에는 없었던 ‘남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인 ‘부군(夫君)’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27.9%)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3)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언급하거나 권장하지 않은 표현이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즉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①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로 ‘아주머니, (○)○○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과장(님)’

을 선정하고,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 통계 자료>에서도 ‘(김)영희 씨’(22.3%), ‘길동 어머니’(10.2%), ‘김 여사’(1.9%), ‘아주머니’(1.7%), ‘홍 과장네’(1.2%), ‘김 과장님’(0.1%) 등이 두루 쓰이지만, ‘제수씨’라고 부른다는 응답 비율이 62.6%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점, ‘부인’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점, ‘○ 여사, ○ 과장(님)’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점 등 상당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 ②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자네) (합)부인, ○○ 어머니’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목록에 없었던 ‘(자네) 와이프(wife)’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57.7%), ‘(자네) 부인’(13.6%)이나 ‘○○ 어머니’(10.3%)를 쓰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네) 합부인’(2.3%)을 쓰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식당 등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르는 말로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저씨’는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지만(19.7%), ‘젊은이’(1.1%), ‘총각’(2.9%) 등의 쓰임은 매우 낮고, 오히려 목록에 없었던 ‘여기요/저기요’가 68.1%로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삼촌’(4.8%), ‘오빠’(2.7%) 등의 쓰임도 주목할 만하다.
- ④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쓰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주머니’(5.9%)나 ‘아가씨’(11.0%)의 사용 비율은 낮은 편이고, 목록에 없었던 ‘여기요/저기요’(46.9%)와 ‘언니’(24.2%)의 쓰임이 매우 생산적이었다. 또 ‘이모’도(7.6%)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⑤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식당, 은행, 관공서’ 등의 손님을 ‘손님’ 또는 ‘(○○○) 손님’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식당’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중년 고객에 대한 호칭어로, ‘고객님’(63.0%)이 가장 널리 쓰이고, 그 다음으로 ‘손님’(15.0%), ‘사장님/사모님’(14.4%) 등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소나 상황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호칭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중년 손님’과 마찬가지로 ‘고객님’(68.5%)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손

남'(23.3%), '언니/오빠'(8.2%)의 순이었다. 젊은 손님을 '고객님'이나 '손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언니/오빠'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대 간 호칭·지칭어의 특징 비교]

(1) 윗세대일수록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20대는 '○○○ 씨'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비해(88.3%), 30-40대는 '씨'(78.6%) 외에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8.2%)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씨'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64.3%), '미스터 김/미스 김'이나(11.7%) '김 선생님(님)'을 쓴다고 응답한 경우(10.5%)도 적지 않았다.
- ②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20대는 '제수씨'(62.4%)와 '(김)영희 씨'와 같이 (성)명에 '씨'를 붙여 쓰는 경우(30%)가 대부분이었음에 비해, 30-40대에서는 이 외에 '길동 어머니'와 같이 아이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도 9.4%에 이르며, 50대 이상에서는 '제수씨'의 비율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48%), 20대나 30-40대와 달리 '길동 어머니'(24%), '(김)영희 씨'(14.6%), '김 여사'(7.0%), '아주머니'(5.3%) 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
- ③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20대에서는 '(너희) 남편'과 '(너희) 신랑', '(김)철수 씨' 등 세 가지 지칭이 89.9%에 이르는 반면, 30-40대는 이 세 가지 지칭이 64.7%로 낮아지고 대신에 '길동 아버지'가 12.4% 사용되며, 50대 이상은 이 네 가지 호칭 외에도 '너희 바깥양반'을 13.0%나 사용한다.

(2) 20대와 30-40대 이상 세대 간에 차이가 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20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길동 엄마(어머니)'(2.1%)를, 30-40대는 11.9%, 50대 이상은 19.2% 사용하였다. 이는 20대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 ②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20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길동 아버지'(2.1%)를, 30-40대는 12.4%, 50대 이상은 24.9% 사용하였다. 이는 20대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 ③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20대는 '여기요/저기요'라고 한다는 응답이 86%나 되었고, '아저씨'는 6.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0-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여기요/저기요'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5%, 62.4%로 20대에 비해 낮은 데 비해, '아저씨'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26.8%, 21.8%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④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의 경우 20대는 63.4%의 높은 비율을 보인 데 비해, 30-40대는 41.2%, 50대 이상은 36.6%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모’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 20대와(15.6%) 30대 이상(5% 미만)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아가씨, 언니, 아주머니, 아줌마’의 경우에는 20대보다는 30-40대와 5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다.

(3) 30-40대 이하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 사이에 차이가 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호칭어가, 20대와 30-40대는 ‘고객님, 손님, 사장님/사모님’의 순인데 비해, 50대는 ‘고객님, 사장님/사모님, 손님’의 순이었다. 50대 이상에서는 ‘손님’보다 ‘사장님/사모님’이라는 호칭을 더 생산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4) 20대와 30-40대 사이에만 차이가 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50대 이상은 전체 응답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20대와 30-40대의 경우 선호하는 지칭어가 달랐다. 20대는 ‘(김, 김철수) 선생님’(37.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군’(12.0%)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30-40대는 ‘부군’(37.8%)의 비율이 가장 높고, ‘(김, 김철수) 선생님’(18.0%)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5) 세대별로 차이가 없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각 세대의 사용 빈도가 모두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의 순서로 세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간 호칭·지칭어의 특징 비교]

(1)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씨’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매우 높았으나(각각 75.4%, 81.1%), 남성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10.5%에 이르는 데 비해, 여성은 3.5%에 불과해 호칭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형’과 같이 성(姓) 씨에 ‘형’을 붙여 부르는 경우는 여성의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0.2%) 나타났다.

- ②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68.7%) 여성의 응답 비율보다(58.8%) 더 높았고, ‘(김)영희 씨’의 경우 여성의 응답 비율이(26.3%) 남성의 응답 비율보다(15.9%) 더 높게 나타났다.
- ③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는 남성보다(60.7%) 여성이(72.7%) 더 선호하였으며, ‘아저씨’는 여성보다(17.0%) 남성이(23.9%)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촌’의 경우에도 비율은 높지 않지만 여성보다 (3.8%) 남성이(6.7%) 더 선호하는 호칭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④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여기요/저기요’의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남성 46.8%, 여성 47.0%), ‘아가씨’는 여성보다 (5.6%) 남성이(19.8%), ‘언니’는 남성보다(11.1%) 여성이(32.4%)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호칭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이 ‘여기요/저기요’ 외에는 ‘언니’라는 호칭어를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데 비해, 남성은 ‘아가씨, 언니, 이모’ 등을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성별로는 ‘고객님’의 경우 남성보다 (62.5%) 여성이(72.2%)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님’과 ‘언니/오빠’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자네) 부인’의 비율은 남성이(15.6%) 여성보다(12.4%) 상대적으로 더 높고, ‘(김)영희 씨’의 비율은 여성이(9.6%) 남성보다(5.6%)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②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너희) 신랑’, ‘(너희) 남편’, ‘(김)철수 씨’, ‘길동 아버지’ 등을 선호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부님’에 응답한 비율에서 남성은 17.1%, 여성은 26.8%로 상대적으로 성별 선호도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 ④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고객님’은 남성보다(58.5%) 여성이 (65.7%)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손님’보다(15.3%) ‘사장님/사모님’을(16.7%), 여성은 ‘사장님/사모님’보다는(12.9%) ‘손님’을 (14.9%)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라.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1)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및 경어법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①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74%나 되며,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4.3%,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2) 표준 화법에 대한 어려움을 넘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① 표준 화법에 대해 5.5%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응답했으며, 33.8%가 ‘조금 혼란스럽다’고 응답해 40%가량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50%가 정도가 ‘혼란스럽다’고 응답해 50대(37.4%)와 30-40대(33.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다.

- ①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73%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호칭·지칭어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4) 표준 화법에 대한 조사 및 정비 후에 국가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①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에 대해 홍보 및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세대별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호칭·지칭어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한 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5) 표준 화법의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①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으로 학교(43.6%)와 방송(38.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한편 세대에 따라 20대의 경우는 광고를 통해, 30-40대의 경우는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준 화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6) 비문법적 표현에 대해서는 각각의 표현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① ‘즐거운 쇼핑되세요.’는 88%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는 61% 정도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 ② ‘즐거운 쇼핑되세요.’에 대해서는 24.9%가 ‘자연스럽다.’고 응답했으며, 24.9%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에 대해서는 20.8%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쓸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6.1%만이 ‘자연스럽다.’고 응답했다.

2. 제언

가. 표준 화법 개선을 위한 제언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조사 영역별로 구체적인 제안을 정리하도록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표준 화법 규정을 만들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표준 화법을 제대로 배운 경험이 없으며, 실제 화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혼란스러운 경험이 있다는 것은 학교나 방송에서 꾸준히 화법 기준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화법 현실을 반영하고, 전 국민이 지지하는 미래지향적 표준 화법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화법 사용 실태와 화법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 유교 중심 사회의 기준이나 일부 학자들의 주장만으로 표준화법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언어생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표준화법 내용을 범주별로 묶어 구체적 교육 자료를 만들고,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그 내용을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 유래나 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체계적 교육과 홍보의 부족 탓으로 본다.

(1) 인사말

첫째, 다음과 같이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한 인사말이나 국어의 품위와 관련될 수 있는 인사말은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수고하십시오.’(7.0%), ‘고생하십시오.’(2.9%)
② 헤어질 때와 전화를 끊을 때 하는 인사말 : ‘들어가요.’(36.3%)

- ③ 자신의 성(姓) 씨를 소개하는 말: ‘김 씨입니다.’(45.5%)
- ④ 영어 번역 인사말: ‘좋은 아침!’(16.0%), ‘좋은 아침입니다.’(11.0%)
- ⑤ 인터넷 투의 인사말: ‘축하축하(추카추카)’(10.3%)
- ⑥ 명사형 인사말: ‘안녕?’(29.7%), ‘좋은 아침!’(16.0%), ‘(생일) 축하!’(2.3%), ‘축하축하(추카추카)’(10.3%)
- ⑦ 자기중심의 인사말: ‘저 일어났어요.’(1.9%/4.0%) 등

여기에서 ①의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②의 ‘들어주세요.’, ③의 ‘김 씨입니다.’, ④의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했던 인사말이다. 그리고 ④의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⑤의 ‘축하축하(추카추카)’, ⑥의 ‘안녕?’, ‘좋은 아침!’, ‘(생일) 축하!’, ‘축하축하(추카추카)’, ⑦의 ‘저 일어났어요.’와 같은 경우는 국어의 품위와 관련되는 인사말이다. 이러한 인사말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와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인사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인사말을 해야 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써야 할 인사말도 달라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가 집안에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의 경우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말과 어머니에게 하는 인사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잤어?’는 아버지의 경우 2.6%에 불과하지만 어머니는 12.5%이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42.1%, 37.6%이었다. 집안에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도 대상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방문한 친척의 경우라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는 인사말과 다를 것이다. 각 상황을 친소(親疎), 공사(公私) 장면 등 몇 가지 변인들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조사를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인사말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도록 한 잘못된 인사말인 ‘수고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의 경우 ‘수고하십시오.’가 7.0%, ‘고생하십시오.’가 2.9%에 이른다. 더구나 20대의 경우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42.1%나 되는데, 이는 현재의 가족 구조와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방문한 친척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 또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의 경우 20대는 말없이 인사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5%였는데 이는 말없이 인사만 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문 경우이다. 따라서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표준 화법체계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우리 사회의 다민족 공동체화에 따른 사회적 예절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2)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첫째,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달리 변화의 조짐을 보이거나 상당히 다르게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호칭·지칭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달리 현재 변화의 조짐을 보이거나 변화한 표현으로 표준 화법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 ①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81.0%)
- ②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야’(44.5%)
- ③ 남편을 지칭할 때: ‘우리 남편’(32.8%), ‘우리 신랑’(33.3%), ‘바깥양반’(0.2%)
- ④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매형(82.1%), 자형(8.1%), 매부(3.6%)
- ⑤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 (20대) ‘형수’(35.4%)
- ⑥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 無): ‘여보’(35.2%), ‘○○ 씨’(13.8%), ‘오빠’(11.4%)
- ⑦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제부’(74.8%), ‘제남’(1.8%)
- ⑧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형수님(79.1%), 형수(14.9%)
- ⑨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20대)와이프(30.6%), (전체)와이프(20.1%)

여기에서 ③, ④는 표준 호칭·지칭어로 정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①, ②의 경우는 적절한 호칭어를 발굴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①의 경우는 원래 ‘어머니’라는 말이 엄연하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태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논의 후에 적절한 홍보나 계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⑤의 경우, 부적절한 사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⑦, ⑧의 경우, 시대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 호칭·지칭어로 제시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⑥의 경우, ‘오빠’와 같은 호칭은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도 ‘극히 예외적일 뿐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아 결코 써서는 안 된다.’고 한 표현이다. 반드시 순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⑨는 이전부터 우려하고 있던 풍조인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집사람’(48.3%)이란 표현이 많이 쓰이고는 있으나, 실제 20대에서는 와이프(wife)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말이 널리 쓰일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외국어를 남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어로 된 호칭·지칭어로 쓰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2009년 통계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대의 경우 ‘와이프’가 ‘(우리) 집사람’과 동일한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0-40대의 경우도 아내를 ‘와이프’로 지칭하는 비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어가 표준 화법의 호칭어·지칭어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세대별, 성별 표준 호칭·지칭어 항목을 정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1절 ‘요약’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일한 호칭·지칭어 항목도 세대별, 성별 선호도가 다른 것이 있는 반면,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에서 선호도가 같은 것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① 동일 세대용 호칭·지칭어 교육 자료와 지도 지침: 20대 남녀용/30-40대 남녀용/50대 이상 남녀용
- ② 세대 가로지르기 호칭·지칭어 교육 자료와 지도 지침: 20대 며느리와 50대 시어머니의 만남/ 20대 사위와 50대 이상 장모의 만남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호칭·지칭어에 대한 세대별 성별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직장·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첫째,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달리 널리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호칭·지칭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언급하거나 권장하지 않았으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로 표준 화법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 ①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너희) 신랑’(34.2%)
- ②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부군(夫君)’(27.9%)
- ③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62.6%)
- ④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자네) 와이프’(57.7%)
- ⑤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68.1%)
- ⑥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46.9%), ‘언니’(24.2%), ‘이모’(7.6%)
- ⑦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고객님’(63.3%), ‘사장님/사모님’(14.4%)
- ⑧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고객님’(68.5%), ‘언니/오빠’(8.2%)
- ⑨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부인’(미조사), ‘김 과장(님)’(0.1%), ‘아주머니’(1.7%)

여기에서 ①의 ‘(너희) 신랑’, ②의 ‘부군’, ⑦과 ⑧의 ‘고객님’은 표준 호칭·지칭어로 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⑤와 ⑥의 ‘여기요/저기요’는 적절한 호칭어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③의 ‘제수씨’와 ④의 ‘(자네) 와이프’, ⑥의 ‘언니’, ‘이모’, ⑦의 ‘사장님/사모님’, ⑧의 ‘언니/오빠’ 따위는 부적절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다. ⑨의 ‘김 과장(님)’, ‘아주머니’와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들이다. 이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와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직장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별 호칭·지칭어의 조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직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호칭·지칭어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사회 조직의 세분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연공 서열보다 성과 위주의 인사 제도 정착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호칭·지칭어의 다양화 및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사용 실태의 변화를 좀 더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직장 사람들에 대하여 직함이 있고 없음에 따라 ‘동료, 상사,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두 사람 이상의 직장인이 함께 의사소통하는 상황이나 직장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의 호칭·지칭어나 경어법 사용 실태를 상황별로 자세하게 조사함으로써 직장인들이 효율적이고도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대별로/성별로 선호하는 호칭·지칭어를 고려하여 표준 화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먼저, 사회·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윗세대일수록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세대별로 선호하는 표현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를 제시할 때에는 세대별로 선호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를 성별로 살펴보면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식당에서 남자/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에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직장에서의 호칭·지칭어를 제시할 때에는 성별로 선호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정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 화법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즐거운 쇼핑 되세요.’나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와 같은 비문법적 표현(경어법 오류)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우리말 표준 화법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말 문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표준 화법 개선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이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는 첫째, 표준 화법 사용 실태에 대한 확대 조사 연구, 둘째,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셋째, 표준 화법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 표준 화법 사용 실태에 대한 확대 조사 연구

본 연구는 1992년에 제정된 ‘표준 화법’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의 이번 표준 화법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하고 이를 다시 세대별, 성별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달라진 표준 화법이 상당히 많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 화법’ 개념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준 화법’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표준 화법’이란 일종의 ‘언어 예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호칭·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편지 쓰는 법’과 같이 ‘화법’이라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회의’나 ‘토론’의 진행법, ‘발표(프레젠테이션)’ 등 사회생활에서 표준 화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표준화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먼저 표준 화법의 개념을 언어 예절의 개념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 및 사회·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화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표준 화법 실태 조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표집 대상 인원 및 지역, 조사 항목, 조사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 인원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100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표준 화법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표집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탈북자 및 조선족 포함) 표집 대상 인원도 전국 단위 조사에 필요한 5,000명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배경 변인도 본 성별, 나이뿐만 아니라 학력, 지역(출신 지역, 거주 지역 구분) 등 인구·사회학적 요소로 확대하여야 한다. 조사 항목도 호칭·지칭어, 경어법, 인사말뿐만 아니라 ‘표준 화법’에 대한 확장된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담화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조사 자료에는 국민의 화법 사용 실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과서, 문학 작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태 조사 방법을 정교화 및 다양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표준 화법 사용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심층 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표준 화법 사용 ‘실태’를 충실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장면이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통계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의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구안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설문 조사에서도 표준 화법 사용 상황을 다양하고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상황에 따른 표준 화법 사용 실태를 충실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바람직한 표준 화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표준 화법의 사용 ‘실태’를 구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묻는 방식도 최선 답만 요구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매기게 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표준 화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 방법을 지필 검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으로 확대하고, 검사 문항도 단순 물음보다는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상황 구성을 통하여 묻도록 구성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피험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렬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표집 대상 인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는 것은 표준 화법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와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표준 화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절차는 <표준 화법 시안>(1991)을 제정할 때 조선일보사와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을 참조할 만하다. 표준 화법의 설문 항목에 대한 기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의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화법 표준화 자문 위원회의 협의와 결정 및 국립 국어원의 표준 화법 시안 제정 등 일련의 과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 화법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문 위원회’의 연령층이 다소 높았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안의 내용에서도 권장하는 표준 화법을 상황별로 충실히 구분하였으나 세대별, 성별로 상세화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 화법 개선 시안 마련을 위한 자문 위원회’(가칭)를 좀 더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문 위원회는 표준 화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성별, 세대별, 직종별 표준 화법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표준 화법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자문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자문 위원회에서는 표준 화법을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별 항목들을 판단하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구 집단과 자문 위원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표준 화법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연구

표준 화법을 개정한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여야 한다. 이와 관

런한 후속 연구 및 실천 과업으로는 첫째, 교육용 자료 및 프로그램 제작, 둘째, 방송 및 교육을 통한 계도, 셋째, 교사 및 관련직 종사자 연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교육용 자료 및 프로그램은 사용자 요구에 맞는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우선 <표준 화법 해설>(1992)과 같이 <개정 표준 화법 해설>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소책자는 언어 사용자가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 잘 모르거나 혼동하기 쉬운 것 중심으로 표준 화법 전체를 요약한 것, (2)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기타와 같이 표준 화법의 내용별로 별도로 분책한 것, (3) 성별, 세대별, 상황별로 분책한 것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 '표준 화법 강의' 비디오테이프나 CD-ROM, (2) '표준 화법 학습'을 위한 교재 등을 제작하거나, (3) '표준 화법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 및 방송을 통하여 표준 화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 화법 교육 기관으로 학교(43.6%)와 방송(38.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듣기·말하기 영역 및 문법 영역)과 국어과 교과서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표준 화법을 쉽고 어려운 정도와 필요한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학년별로 위계화하여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및 직장 생활에서도 표준 화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선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각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다면 국립국어원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나 관련직 종사자에게는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나 방송·언론사 직원 및 직장 홍보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어 문화학교나 직무 연수 과정 등을 개설·운영한다면 표준 화법을 효과적으로 홍보 및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의 경우 각종 자격 연수 과정이나 직무 연수 과정에서 표준 화법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 각종 연수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신항(2003), 오늘날의 언어 현실과 표준화법의 중요성, 새국어생활 31-1, 국립국어원.
- 구본관(2008), 문법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경어법 교육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제11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 구현정(2009), 경어법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제2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김규원(2002), 대중매체를 이용한 호칭어·지칭어 교육 방법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보인(2006), 한·일 의례성 인사말의 대조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2),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중(2003), 현행 표준화법의 미비점, 새국어생활 31-1, 국립국어원.
- 김은수(2008), 초등 국어과 언어예법 교육 연구, 윤리교육연구 15, 한국윤리교육학회.
- 김정남(2008), 한국어 담화 교육을 위한 논의-한국어 경어법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한국어교육, 1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태곤(2000), 화법교육에서 언어예절 지도 연구, 어문연구 제 28권 4호, 어문연구학회
- 김희진(2003), 표준화법의 요건과 보급 방향, 새국어생활 31-1, 국립국어원.
- 노은희(2009), 국어 교육에서 ‘표준 화법’ 관련 내용의 수용 방향, 제20회 한국화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문금현(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인사 표현의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8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영순(2003), 한·일 양국인의 인사행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 서현석(2009), 인사말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제20회 한국화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성기철(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원리,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 양영희(2009), 국어 호칭어 체계 수립을 위한 사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68, 한국언어문학회

- 왕한석 외(2005), 한국 사회의 호칭어, 역락.
- 이경우(2003), 국어 경어법 변화에 대한 연구(1), 국어교육 10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경우(2008), 국어 경어법 변화에 대한 연구(2),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 이용덕(2001), 한일 대학생의 가정에서의 인사말에 관한 연구, 한양일본학 9, 한양일본학회
- 이정복(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대학사.
- 이정복(2003), 통신 언어의 표준 화법. 새국어생활 31-1, 국립국어원.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임철성(2009), 남북 화법 표준화를 위한 한 모색, 제20회 한국화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전영우(2003), 표준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31-1, 국립국어원.
- 전영우(2004), 언어예절과 인간관계, 역락.
- 전영우(2009), 표준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제2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전은주(2009), 호칭어·지칭어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제2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화법학회.
- 전혜영(2005), 한국어 공손표현의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29, 이중언어학회.
-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엮음(1991), 우리말의 예절-화법의 실제와 표준, 조선일보사.
-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6), 우리말의 예절(증보판)-상/하, 조선일보사.
- 조항범(2009), 품격을 높이는 우리말 예절- 말이 인격이다, 예담.
- 홍민표(2002),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사행동에 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 일어일문학 연구 37, 한국일어일문학회.
- 황병순(1999), 국어 인사말 연구, 배달말 25권, 배달말학회.

<Abstract>

Preliminary Research to Improve the Standard of Korean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ontemporary discourse within Korean society with the view of providing sufficient evidence and material for a review of the Standard of Korean Discourse(1992). The Standard of Korean Discourse has been criticised, for it was made without nationwide survey on the contemporary discourse usage and people's consciousness about establishing national standard regulation on spoken language. So we need to investigate on the Standard if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spoken language and th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about spoken language. Due to the enormous scope of the topic, the focus of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only on the spoken forms of address, calling the other side, referential forms and the use of the honorific suffix '-si(시)-'.

A survey of 1,100 people in Seoul City, Incheon City, and Kyounggi province was conducted by written questionnaire on the three critical areas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Standard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of a few respondents. Th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since 1992 spoken discourse in Korean society has considerably changed. For example, familial morning greetings are disappearing and internet language is infiltrating spoken language. Further,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tated they have difficulty finding appropriate words in some discourse situations, and they expressed a desire for a standard of discourse that provides detailed and specific guidelines as well as systematic education of that standard through the school syst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rrent Standard of Discourse does not reflect contemporary discourse. We suggest that further research

on spoken discourse be conducted nationwide, and that findings be employed to improve on the existing Standard of Discourse to better reflect the public's use of spoken Korean.

Keywords: standard of discourse, forms of address, calling the other side, honorific suffix, contemporary discourse

【부록】

<부록 1> 인사말- 예비 조사 결과

<부록 2> 본 조사용 설문지

<부록 3> 본 조사용 OMR 답지

<부록 4> 기타 의견- 본 조사 결과

<부록 1> 인사말- 예비 조사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대 여성	엄마	안녕하세요	잘 잤니	들어가세요	갔다오게~	기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민수명경혜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김 *자 *자 이세요	김 씨입니다	금방 나을까요		힘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좋은 아침!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세해 북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박 *자 *자 되십니다.	박 씨입니다.	패유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속하거나 말없이 행동?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먼저 퇴근했습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세해 북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오래 사세요	김 *자 *자 쓰십니다.	저는 김 씨입니다.	빠른 쾌차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20대 여성	잘 주무셨어요?	고개만 숙입니다	안녕~	내일 봐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해 북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민수명경혜	* *자 *자 쓰십니다.	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개만 숙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야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세해 북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민수명경혜	제 아버님의 성함은 유명(자)기(자)입니다.	성' 자체에 이중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 밤 보내셨습니까?	정년 식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스피스겠습니까? ...
	저 일어났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세배할 땐 말없이 해야 합니다.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심세++자*자 이십니다.	성이 꺾인지 뺀인지 헷갈립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정년 식사를 기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땐 말보다는 손잡거나 그런 행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10대 여성	엄마, 아빠 잘 잤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세해 북 많이 받으세요	축하해	민수명경혜	저희 아버지 성함은 ***입니다.	저는 최 씨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밤 다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생일 축하해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자 *자 입니다.	전주 이 씨입니다	빠른 쾌유를 받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저 나가요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세요	세해 북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축하드려요	* , *자 *자 이십니다.	~입니다.	걱정 많으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까?	심려가 크셨습니다.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잤냐		별로요	다	가블께 다녀오겠습니 다	가세요 다녀오세요	많이 받으세요	축하해 축하한다	요	*자 *자 *자 함자를 쓰십니다.		요.
베고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갓뚜께요	죄송한데 저 먼저 기보겠습니 다	다녀오세요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년식장을 모르겠습니 다.	힘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먼저 들어갔습니 다	들어가세요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한다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습니 다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저는 남세 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축	고생하십니 다.	*씨요		상심이 크시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먼저 기보겠습니 다	들어가십시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 씨 상을 드립니다.	우 씨 상자 레자 쓰십니다.		힘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고생하십시 오 수고하세요	취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각정이 많으시겠어 요.	*씨입니다.		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고생하십시 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안 이가		이쩌나... 상심이 크시겠습니 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먼저 기보겠습니 다	들어가세요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한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좋아지겠나 요	송 인자 식자 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 다.
없음	안녕하세요	모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 다	모름	모름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 한다	모름	저는 *자 *씨입니다.	모름	모름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기 오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하한다	오래오래 시십시오	아버지 존함은 *자 *자 *자 이십니다.	전 *새입니다.	**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모르겠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30대 남성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일 축하해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이십니다.	정씨 입니다.	쾌차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심려 많으십니까?
40대 남성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신년인자로 절하고, 말씀을 들음	한 살 더 먹은 것을 축하한다.	만수무강하 세요	상황	성은 김가 입니다.	병간호에 고생하십니 다.	그간 회사에 기여하신데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슬프셨습니 다
	일어나셨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세요	들어가세요	건강하세요	생일 축하해	건강하세요	성은 *이고 *자 *자를 쓰십니다.	*가	몸조리 잘하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 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왔어?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 뵈오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자 *자 저희 아버님이십 니다.	저는 *가 입니다.	힘드시죠?	축하드립니다 다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 가십시오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일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시십시오	저희 부친 성함은 *자 *자 *자 입니다.	저는 신가 입니다.	노고가 크시지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다.
50대 남성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심을 축하합니다.	제 아버님 성함은 ***입니다.	저는 *씨 입니다.	빨리 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 다.	말없이 말없이 말없이 없군요.

<부록 2> 본 조사용 설문지

※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설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화법학회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화법 실태를 파악하고, 국어 표준 화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대해서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당시의 생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이틀 주제를 대해서 조사하여 ‘표준 화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현재의 표준 화법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학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설문 조사 답변은 현재 일상화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 화법 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법 실태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 결과는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11.

한국화법학회장 이창덕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 한국화법학회

● 다음 상황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단,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시 중에 없는 표현은 ‘⑧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1	집안에서 아버지께 하는 아침인사말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	저 일어났어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2	집안에서 어머니께 하는 아침인사말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	저 일어났어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3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4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과세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건강해라.	(생일)축하!	(생일)축하해.	생일 축하한다.	축하축하 (추카추카)			
6	회감(칠순, 고회)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세요.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7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다시(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먼저 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8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아침인사말	안녕하세요?	안녕?	일찍 나왔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9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들어가세요.	다음에 (내일) 뵈세요.	안녕히 (조심히) 들어가세요.	편히 주무세요.	편히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10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고생하십시오.	내일 뵈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1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씨 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길자, 동자 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길동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길자, 동자입니다.	홍, 길자, 동자이세요.	
12	자신의 성(姓)씨를 소개하는 말	(저는) 가입니다.	(저는) 김 씨입니다.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저는) 김해 김 씨입니다.	(저는) 김 씨 성을 씁니다.		
13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뵈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편히 가셨을 겁니다.	힘내세요.	말없이 인사만 한다.

● 다음 상황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단,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시 중에는 표현은 ‘㉠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공통>

번호	문항 내용	㉠	㉡	㉢	㉣	㉤	㉥	㉦	㉧ (기타)
1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어머니	어머님					
2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길동)아버지	(길동)아범	(길동)아빠	철수(야) (아들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야)		
3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영수)어머니	(영수)어멈	(영수)엄마	영희(야) (딸 이름)	이 과장 (직위명)	애(야)		
4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세)아가	(길동)어머니(야)	영자(야) (며느리 이름)	애(야)				
5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칭할 때	(우리)며느리	(우리)며늘애	(길동)어머니	(우리)김 박사 (직위)	철수 처 (아들 이름)	영자(야) (며느리 이름)		
6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김 과장 (직위명)	영희 씨	민규 이모 (조카 이름)		
7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사돈	사돈총각	사돈도령	김 과장 (직위명)	철수 씨	성규 (외)삼촌 (조카 이름)		

<여자> 여자 분만 답해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1	머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버님	아빠							
2	머느리가 시아버지를 <u>지칭</u> 할 때	시아버지	시아버님	시아빠	철수 씨 아버님	길동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3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길동) 아미	(길동) 아범	김 서방	김 과장 (직위명)	여보게	철수 (사위 이름)				
4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아직 없을 때)	여보	철수 씨	철수(야)	아빠	오빠	영감	자기			
5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여보	철수 씨	철수(야)	아빠	오빠	영감	자기	길동 아버지	길동 아빠	
6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u>지칭</u> 할 때	(우리) 그이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아저씨	애 아버지	애 아빠	바깥양 반	김 과장 (직위명)		
7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김 서방	김 과장 (직위명)	제부	제남	길동 아빠					
8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아가씨	아기씨	언니	고모	형님					
9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u>지칭</u> 할 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길동이) 작은아버지	(길동이) 삼촌					
10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올케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						

<남자> 남자 분만 답해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1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장인어른 /어르신	아버님	아버지							
2	사위가 장인을 <u>칭칭할 때</u>	장인	아버님	길동이 외할아버지							
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여보	영희 씨	영희(야)	자기	입자	할멈	마누라	길동 어머니	길동 엄마	
4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아직 없을 때)	여보	영희 씨	영희(야)	자기	입자	할멈	마누라			
5	남편이 아내를 <u>칭칭할 때</u>	그 사람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	영희	애 엄마	길동엄 마	와이프	가족	(제) 아내	
6	형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아주머 니	형수님	형수						
7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매부	매형	자형	형님						
8	아내 오빠의 부인을 부를 때	아주머니(님)	치남(의) 떡	형수	(길동) 엄마	(길동) (외)숙모					
9	장모를 부를 때	어머니	어머님	장모님	엄마						

다음 상황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단,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시 중에 없는 표현은 '⑩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1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김)철수 씨	김철수 선생(님)	김 선생(님)	김 형	미스터 김 /미스 김	김 군 /김 양	철수(야)			
2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김)영희 씨	길동 어머니	홍 과장 네	김 여사	김 과장(님) (직책 이름)	제수씨			
3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자네) 부인	(자네) 합부인	(자네) 아내	(자네) 와이프	길동 엄마(어머니)	사모님	(김)영희 씨			
4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김)철수 씨	길동 아버지	(김)과장님	(너희) 남편	(너희) 바깥양반	(너희) 신랑	사부님	아저씨	오빠	
5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부님 (師夫-)	(김, 김철수) 선생님	(김)과장님	바깥어른	부군					
6	식당에서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아저씨	오빠	과장님	삼촌	젊은이	총각	여기요 /저기요			
7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아가씨	언니	아주머니	아줌마	고모	이모	여기요 /저기요			
8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고객님	손님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머니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9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							

● 표준 화법과 관련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1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2	현행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혼란스럽다.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통이다.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3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표준 화법을 가르치고 개선하는 일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학교	방송	신문	가정	정부기관
6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즐거운 쇼핑 되세요!”	매우 자주 듣는다.	자주 듣는다.	가끔 듣는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6-1	위 표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루 어색하다.	상당히 어색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7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30분 이후 주차료는 자기 부담이세요.”	매우 자주 듣는다.	자주 듣는다.	가끔 듣는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7-1	위 표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루 어색하다.	상당히 어색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 표준 화법의 보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 감사합니다 -

<부록 3> 본 조사용 OMR 답지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성 별	연 령
① 남성	세
② 여성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⑥ 60
	⑦ 70
	⑧ 80

답안지 작성요령
 1. 해당란에 보기와 같이 다르게 표기하세요.
 (보기)
 ● 100 ○ 100
 ○ ○ ○ ○ ○ ○
 2. 선택지에 적혀 있는 문항에 표기하세요.

**한국화법학회
국 립 국 어 원**

인사말 (공통)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호칭 · 지칭어 - 가족 (공통)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호칭 · 지칭어 - 가족 (여자)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호칭 · 지칭어 - 가족 (남자)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호칭 · 지칭어 - 직장 · 사회 (공통)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표준 화법 (공통)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1	○	○	○	○	○	○	○	○	○	○	○	○	○	○	○	○	○	○	○
7-1	○	○	○	○	○	○	○	○	○	○	○	○	○	○	○	○	○	○	○

* 표준 화법의 보안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부록 4> 기타 의견- 본 조사 결과

1. 인사말(공통) 기타 의견

	20대	30-40대	50대 이상	전체
	(아빠)안녕(3)	아빠(1)	운동가요.(1)	
1	먼저 췌어요.(1) 아빠, 일어났어?(1) 먼저 췌어요.(1) (엄마)안녕(2) 나 일어났어(2) 일어났어?(1) 이제 일어나야죠.(1) 굿모닝~(1) 내 꿈꿨어?(1) 밥 줘.(1)		운동가요.(1)	
2		진지 잠수췌어요?(1)		
3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1)	밥 줘!(1)	내년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1)	
4	이름 부름(1)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 생일 축하해요.(1) 잘 태어났습니다.(1)	만수무강하십니까.(1)	
5	사랑해(1) 추카추카 해(1)			

생측(1)	오래오래 사세요.(1)	먼저 끊을게.(1)	먼저 끊어(끊을게)(3)
6	하지 않음.(1) 건강하세요.(1)		
7	끊어(끊을게)(2) 알겠어(알겠습니다).(2) 응응(네)(2) 그냥 끊는다.(1) 취세요.(1) 질(폭) 잤어?(1) Good morning(1) 가세요.(1)		
8			
9		편안히 가세요.(1)	오늘 감사했습니다.(1)
10	먼저 같게요. 수고하세요.(1) 고하세요.(1)		죄송합니다.(1)
11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3) 저희 아버지는 김, 길자, 동자 쓰세요.(1)	저희 아버지는 홍, 길자, 동자입니다.(1) 홍자, 길자, 동자, 홍길동 이십니다.(1)	

저희 아버지 함 자는 흥, 길자, 동자입니다.(1) 흥, 길자, 동자 쓰십니다.(1) 성은 흥자를 쓰 시고, 함은 길 자, 동자를 쓰십 니다.(1)			
12 김씨예요.(1) 삼가 고인의 명 복을 빕니다.(1)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1)		
13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1) 얼마나 애통하 세요?(1)		

2. 호칭·지칭어(가족-공통) 기타 의견

	20대	30-40대	50대 이상	전체
1	마마(1) 어무이(1)	어미(1)	엄니(1)	
2	(아빠 성함)야	아들(1) (길 동)애 비 (야)(2)	아들(1)	
3	(손자이름)야(1)	딸(1) (성씨)실아(1)	(김)실이(1)	
4	(손자이름)야(1) 길동엄마야(1)	꿍은이(1)	당신(1) 어멈아(1)	
5	(우리)첫째/둘째	애미(1)		

(1)			
우리 딸(1)	우리 꿍은이(1)		
길동엄마(2)			
며늘아기(1)	며늘아기(1)		
6			
7	사돈 아들(1)		

3. 호칭·지칭어(가족-여자) 기타 의견

	20대	30-40대	50대 이상	전체
1				
2				
3	OO아빠(1)	OO아빠(1) 사위(1) 서방(1)		
4		서망님(1)	저기요(1) 별명부름 우리 집 양반 (1)	
5				
6	(아이)아빠(1) 내꺼(1) (우리)오빠(1)	아빠(1) 여보(1)		
7	(이름부름)야/씨 (2) 패제(1)		이모부(1)	

4. 호칭·지칭어(가족-남자) 기타 의견

	20대	30-40대	50대 이상	전체
1				
2				

3		엄마(1) 여보, 길동 엄마(1)		
4	wife (와이 프)(1)		별명부름(1)	
5				
6				
7				

5. 호칭·지칭어(직장·사회-공통) 기타 의견

	20대	30-40대	50대 이상	전체
1				
2		길동엄마(1)		
3	제수씨(1)	제수씨(2) 집사람(1)		
4		길동아빠(2) 남군(1)	길동아빠(1)	길동아빠(3)
5	(선생님) 남 편(분)(4) 마깁분(1) 부분(1) ○○씨(1)		남편되는 분(1) 마깁분(1)	(선생님) 남편 (분)(5)
6	사장님(1)	웨이터(1)		
7	사장님(1)			

6.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의견

(1) 20대 의견

범주	관련 의견
표준 화법 사용 실태	호칭의 문제가 통일되었으면 한다. 부르는 방법이 제각기이기 때문에 종종 혼란스럽다./호칭·지칭 통일(직계 가족 간)/존칭의 남발!!/화법, 예를 들어 경어체나 호칭·지칭의 경우에 지나치게 복잡한 명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른들조차 정확한 호칭을 몰라서 아주버님 혹은 아주머님으로 지칭했었던 기억이 있다./다른 사람의 표준화법 오류를 지적하기 힘든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한다./통신언어 좀 쓰지 않게 교육을 통해 교육해야한다. “~하세요”를 “~하세요”로 발음하는 건 아주 어색하다./요즘 많은 외래어와 통신어의 유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표준어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어의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과 학교에서 이를 주관하고 교육시켜야 한다./호칭문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우리나라 화법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화법은 좀 쉽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바뀐 화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준 화법 보급을 위한 방송/매체 의 역할	방송에서 잘 하라./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표준 화법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호칭이나 지칭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보다는 예의를 표시한다는 의미로 지나치게 경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칭·호칭을 많이 쓰는 방송 특히 드라마에서 신경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학교나 방송·신문 등에서 표준 화법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 등이 많이 필요

	<p>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방송 자막은 반드시 표현이 표준 맞춤법에 준하여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임용 시 국어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여 현직에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대중매체에서 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의 올바른 모범적인 사용. 현실에 맞게 적절히 축소/드라마나 영화같은 곳에서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 듣는 것이 있다 보니까 틀린 화법도 맞게 생각하게 됨.</p>
표준 화법 실제 조사 및 정비	<p>표준화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학교·가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표준화법 자체가 우리나라는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사견입니다. 표준화법의 전체적 규칙성 통일성 제정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국어 호칭·지칭은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합니다./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해 아이들의 표준화법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국가 차원의 조사 정비 필요!/분명히 체계적 정리와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합니다./화법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신판으로요.</p>
표준 화법 보완 및 개선 방향	<p>한자어로 된 복잡한 호칭을 쉬운 우리말로 만들어 들으며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호칭이나 기존 호칭을 정리해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친근감 표현을 위해 언니, 오빠 이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이 점은 너무 막기보다는 “정식명칭은 ○○이지만, 친근감 표</p>

	<p>현을 위해 언니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주술 관계가 어색한 문장(예)즐거운 쇼핑되세요.)의 경우 차라리 단어의 뜻을 현 상태를 반영해 재정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대중이 많이 사용한다고 표준화법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언어규칙·규범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규정해서 널리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이대로 적용하는 게 더 나을 듯싶다./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부드러운 어휘 사용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누구나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복잡한 우리의 호칭어를 현대 사회에 맞게 간소화하는 한편,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표준화법이 호칭어, 지칭어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인사말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주제별, 상황별로 자세하게 정리되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p>
표준 화법의 교육적 필요성 및 방법	<p>가정에서 표준화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쉽게 배우면 좋겠다./학교와 가정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품위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바른 표현을 사용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이것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학교 수업을 통해 국어시간에 강조해야 한다./매체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인터넷으로 인해 표준화법이 혼란스러워 졌는데 이를 위해 방송과 가정에서 보완해야하지 않을까?/학</p>

	<p>교 교육(화법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공익광고 방송 (kbs, sbs, mbc등)을 통해서 사회의식의 변화 필요/학교에서 국어교육 강화, 재량활동 활용/방송 등 사립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서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에서조차 표준화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학교교육에서 보완해야하지 않을까./표준 화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각 회사 및 기관에서 직원들 교유용으로 인터넷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국어 시간에 화법을 따로 열심히 가르치거나, 화법만을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젊은 세대들이 쓰는 표현이 표준 화법이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표준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말은 늘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적절한 표현, 발음 등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화법을 많이 연구하고, 홍보, 교육해 주세요.</p>
--	---

(2) 30-40대 의견

범주	관련 의견
표준 화법 사용 실태	<p>무심코 썼던 표현들이 보기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에 놀랐다. 체계적인 적당한 표현 방법을 알고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윗사람에게 저가 아닌 내가라는</p>

	<p>표현을 자꾸 듣게 됩니다. 이때 내가라는 표현을 쓸 경우 우의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인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물에 대하여 높임말을 쓰는 것은 어색해서 개선 필요(예: 500원이세요.)/세대는 변화하는데 말의 표현방법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조어가 생기고 세대 간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 유가 아닐까 싶습니다./친, 인척간의 호칭, 지칭 특히 4촌 이후의 호칭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다 표준화하여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표준 화법 보급을 위한 방송/매체의 역할	<p>TV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 간의 호칭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TV등 미디어에서 표준화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인터넷상의 화법 및 표현문체의 해결/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 기타 방송매체들을 이용해서 바르게 홍보하고 꾸준히 바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표준 화법 실태 조사 및 정비	<p>지역마다 나이마다 표준화법이 다르므로 혼란이 많아서 말할 때 실수하지 않으나 걱정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서 배부도 하고 교육을 시킴으로 공통으로 쓰는 표준화법이 정리되었음 합니다./정립이 필요함을 느낀다./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또써 불편하진 않지만,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말의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은어사용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방송매체의 역할이 기대됩니다./표준화법을 좀 더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표준 화법 보완 및 개선 방향	<p>적어도 백년은 변치 않는 철자·화법이 필요하다. 대졸자도 10년이 지나면 문맹이 되다시피 하는 국문법은 정말 문제이다!/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기본이 좋을 수도 있고, 반면 불쾌 할 수도 있다. 문구를 봐도 인상을 찌뿌리게 할 때도 많이 있다. 교육과정이나, 방송(기타, 연애프로, 연속극)등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말이 너무 비화되어 사용되는 요즘 현실이다./문제없다./너무 어렵고 복잡한 어려운 경어보다는 지금 현대시대에 맞게 쉽고 간단하면서 평소에 어려움이 없이 널리 쓰이는 언어구사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여서 널리 쓰이는 방향으로 언어가 발전했으면 한다./간편하게 써지길 바랍니다. 복잡하면 어색하기만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맞춤법에 어긋날 때에는 홍보를 하여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준어를 쓰면 좋겠지만 서로의 상대에 따라서 표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모르겠습니다./표준 화법의 보완과 더불어 많이 실수하는 잘못된 화법도 같이 조사 홍보했으면 합니다./간혹 어떤 호칭을 써야할지 모를 때가 있으나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는 편한 호칭을 대신 쓰기에 불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일률적인 한 가지 호칭으로 통일되었으면 한다.</p>
표준 화법의	표준화법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공통적으로 널리 쓸 수 있도록 정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교육적 필요성 및 방법	<p>같다./표준화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웃어른께 대하는 존댓말을 학생들에게 기초부터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에 공경심을 제대로 인식하였으면 합니다./학교나 가정에서 많이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빠른 경제 성장과 핵가족화로 신세대 청소년들은 혼자서 보거나 경어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니 학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합니다./정부기관에서 공식적인 틀을 정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나 학교에서 공통신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도 될 것 같습니다./통일된 표준화법이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표준화법에 대한 방송을 광고를 통해 알려준다./어떤 것이 표준화법인지 잘 모르겠다. 국가차원에서 학교를 통해 표준화법 안내문을 가정으로 보내면, 아이들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지속적인 홍보와 실행을 들어간다면 좀 더 빠른 표현으로 쓰리라 봅니다./청소년들의 은어사용보다는 컴퓨터와 문자(핸드폰) 사용 시 표준 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대중매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p>
--------------	---

(3) 50대 이상 의견

범주	관련 의견
표준 화법 사용 실태	표준화법이나 보완은 생각해 해본적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다만 요새 젊은 사람들의 컴퓨터 용어나 줄임말 등이 문제이다. 젊은 학생들에게 존대나 호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준 화법	일반인 대상으로 방송기관인 TV에서 자주 교육을 해

보급을 위한 방송/매체의 역할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격에 맞지 않은 호칭이나 언어 사용이 많이 쓰여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너무 쉽게 말하고 있고 특히 “같아요.”라는 말이 난발된다고 느낍니다.
표준 화법 실태 조사 및 정비	올바른 지칭어·호칭 및 경어법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차원에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표준 화법 보완 및 개선 방향	쉬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호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표준화법에 대한 표현을 간단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함./외래어와 혼합어도 어색하고 안 맞는 말은 기준을 만들어 고쳐나가기야 할 것 같다.
표준 화법의 교육적 필요성 및 방법	학교교육의 향상성에 방송에서의 적극적인 사용/제정 비된 표준화법을 학교교육현장, 또 방송을 통해서 등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학교교육기관에서 철저히 그리고 자주 교육해야 한다.

